

- 목 차 -

제 1 장 서론 1

1. 보고서 발간의 배경과 목적 1

2. 과정 및 방법 2

3. 보고서의 구성 4

4. 용어 사용 등 5

제 2 장 10년 활동성과 분석 6

1. 지방의제21 도입 과정과 현황 6

1) '지방의제21'과 관련한 지구적 움직임 6

2) 우리나라의 지방의제21 도입배경 및 과정 9

2. 제1기: 의제 도입기(1998년~2000년) 14

1)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창립과 '푸른경기21' 작성·발표 14

2) 실천사업 18

3) 교육 및 토론회 등 20

4) 연구사업 22

5) 기초의제와의 네트워크 사업 23

6) 홍보사업 24

7) 기타 사업 25

8) 의제 도입기 종합 25

3. 제2기: 모색기(2001년~2003년) 27

1) 의제실천 사업 28

2) 공모를 통한 실천사업 30

3) 의제 지표 평가사업 32

4) 분과 실천사업 34

5) 교육 및 토론회 등 35

6) 기초의제와의 네트워크 사업 39

7) 홍보사업 41

8) 기타 사업 42

9) 모색기 종합 42

4. 제3기: 과도기(2004년~2006년) 45

1) 의제 재작성 45

2) 분야별 의제 실천사업 50

3) 공모를 통한 실천사업 53

4) 분과사업 55

5) 교육 및 토론회 등의 사업 56

6) 기초의제와의 협력사업(교류협력위원회) 64

7)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보고서 발간 65

8) 홍보사업 67

9) 기타 사업 67

10) 과도기 종합 68

5. 제4기: 정착기(2007년~2008년) 70

1) 분야별 의제실천사업 71

2) 공개모집을 통한 실천사업 73

3) 교육 및 토론회 등의 사업 75

4) 기초의제 추진기구와의 네트워크(기초의제협력위원회 사업) 82

5) 조직체계 개편 83

6) 홍보사업 85

7) 기타 사업 85

8) 정착기 종합 86

제 3 장 10년 활동 평가 - 활동내용을 중심으로 91

1. 평가 기준 91

2. 민관파트너십(민간협력)을 증진을 위한 기여 97

1) 활동 유형별 민간협력 강화 노력 및 성과 평가 98

2) 시민사회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한 정도 114

3) 민간협력사업에 대한 평가 종합 121

3. 기초의제와의 협력 관계 124

- 1) 기초의제 작성 및 추진기구 설립에 기여한 정도 125
- 2) 기초의제 간의 네트워크 구성에 기여한 정도 127
- 3) 기초의제와의 적절한 역할분담의 정도 129
- 4) 기초의제 역량강화에 기여한 정도 134
- 5) 기초의제와의 협력사업 평가 종합 137
- 4. 의제 지표 수립과 실천의 적절성 139
 - 1) 의제 지표의 실천가능성(측정가능성) 140
 - 2) 의제별 지표 대비 실천사업의 적절성 145
 - 3) 실천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 정도 148

- 2) 식량 위기 시대에 대비한 자립기반 구축 206
- 3)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 및 소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207
- 4) 에너지 위기 시대에 대비한 자립기반 구축 208
- 5) 주요 실천 영역으로서의 지역복지 208
- 6) 경제구조의 변동에 따른 충격 흡수할 경제적 대안 영역 개발 ... 210
- 7) 활동에 있어서 지구적 책임성 강화 211

제 4 장 10년 활동 평가 - 참여 주체들의 평가내용을 중심으로 153

- 1. 조사 개요 153
 - 1) 조사목적 및 대상 153
 - 2) 조사방법 및 시기 154
 - 3) 응답자 현황 155
- 2. 민관협력에 대한 기여도 평가 156
- 3. 기초의제 지원 및 긴밀한 관계 형성에 대한 기여도 평가 163
- 4. '경기의제21' 및 의제실천 사업의 적절성 평가 168
- 5. 기타 경기도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기여도 평가 173

제 5 장 향후 10년의 전망과 과제 185

- 1. 여건 변화와 새로운 모색의 필요성 185
 - 1) 지속가능발전의 위기와 새로운 도전 185
 - 2) 지난 10년 활동 경험에 대한 성찰과 전환에 대한 요구 188
- 2. 제도적 환경 변화에 따른 역할 재정립 190
 - 1)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과 새로운 과제들 190
 - 2)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와 경기지속위 간 관계 재정립 192
 - 3) 제도적 환경 변화에 따른 실천 과제들 196
- 3.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른 역할 강화 205
 - 1) 기후변화 시대에 대비한 실천 프로그램 강화 205

- 표 목 차 -

<표 II-1> 경기도 내 기초의제별 의제21 선포일 및 추진기구 설립일 11

<표 II-2> ‘푸른경기21’ 분야별 내용 및 시범추진 지역, 주관단체 ... 16

<표 II-3> 모색기 공모사업을 통한 지원 단체 수와 지원 금액 31

<표 II-4> 연도별 ‘경기의제21’ 작성 현황 46

<표 II-5> ‘경기의제21’ 의제명과 지표 46

<표 II-6> 과도기 의제실천위원회 별 실천사업 내용 51

<표 II-7> 과도기 공모사업 현황 53

<표 II-8> 과도기 친환경 마을만들기사업 현황 54

<표 II-9> 과도기 분과별 사업추진 현황 55

<표 II-10> 과도기 기초의제와의 협력사업 내용 64

<표 II-11> 정착기 의제실천위원회별 실천사업 내용 71

<표 II-12> 정착기 공모사업 현황 73

<표 II-13> 정착기 친환경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현황 74

<표 III-1> 국가 지속가능발전 지표 93

<표 III-2> 시기별 위원 참여 공무원 현황 추이 102

<표 III-3> 어울 한마당 개최 현황 106

<표 III-4> 공무원과 함께 참여한 해외연수 및 국제회의 현황 107

<표 III-5> 현안에 대한 민관 공동논의 주요 사례 현황 109

<표 III-6> 민간위원 현황 116

<표 III-7>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환경단체 실천사업 주요 현황 ... 117

<표 III-8> 환경대담사 현황 118

<표 III-9> 환경교육 한마당 현황 119

<표 III-10> 환경교육포럼 현황 119

<표 III-11> 비정기적으로 개최한 대표적 환경교육 실천 현황 120

<표 III-12> 기초의제 관련 조직체계 변천과정 및 이유, 주요 사업내용

등 128

<표 III-13> 의제실천위원회별 사업 참여(대상) 시·군 및 131

<표 III-14> 기후변화 관련 주요 활동 현황 136

<표 III-15> ‘푸른경기21’ 내용과 지표의 측정가능성 및 달성 정도 141

<표 III-16> ‘경기의제21’ 지표의 측정가능성과 실천활동 현황 대비 143

<표 III-17> ‘경기의제21’ 지표 달성 정도 147

<표 III-18> 활동 및 사업 유형별 일반 시민 참여도 평가 149

<표 IV-1> 응답자 소속집단 현황 155

<표 IV-2> 응답자의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활동 경력 156

<표 IV-3> 행정이 시민단체를 파트너로 인식하도록 기여한 정도 ... 157

<표 IV-4> 시민사회 주체들의 행정 파트너 참여 기회 제공 정도 ... 158

<표 IV-5> 시민사회 역량강화에 기여한 정도 159

<표 IV-6> 민간단체들 간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한 정도 159

<표 IV-7> 행정-시민사회 신뢰 증진에 기여한 정도 160

<표 IV-8> 전반적 민관협력에 기여한 정도 161

<표 IV-9> 기초의제의 활동에 참고가 된 정도 164

<표 IV-10> 기초의제 활성화 또는 역량강화에 기여한 정도 165

<표 IV-11> 기초의제 간 협력관계 형성에 기여한 정도 166

<표 IV-12> 기초의제와의 긴밀한 관계 형성에 기여한 정도 166

<표 IV-13> ‘경기의제21’ 지표의 실천 가능성 정도 169

<표 IV-14> 의제실천사업이 지표 상승에 미친 영향 정도 170

<표 IV-15> 실천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참여 확대 정도 170

<표 IV-16> 의제 지표 값 달성 정도 평가 171

<표 IV-17> 지속가능발전 교육 및 홍보 정도 174

<표 IV-18> 경기도민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 높여준 정도 ... 175

<표 IV-19> 지속가능발전에 도민 참여 이끌어 낸 정도 176

<표 IV-20> 활동 영역의 확대 정도 177

<표 IV-21> 의제 활동에 대한 평가·모니터링 수행이 적절히 이루어진 정도 178

<표 IV-22> 지속가능발전에 행정 관심과 실천 이끌어 낸 정도 179
 <표 IV-2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도정 변화 이끌어 낸 정도 179
 <표 IV-24> 기초지자체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관심과 실천 이끌어 낸
 정도 180
 <표 IV-25> 지속가능발전 조례 및 위원회 설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181

<표 V-1> 지속위와 실천협의회 간 구성 및 역할 비교 192
 <표 V-2> 통합형과 상호보완적 분리형 내용 비교 194

- 그림 목 차 -

<그림 I-1> 진행 과정 및 방법 3

<그림 IV-1> <표 IV-3>의 측정 값 분포도 157
 <그림 IV-2> <표 IV-4>의 측정 값 분포도 158
 <그림 IV-3> <표 IV-5>의 측정 값 분포도 159
 <그림 IV-4> <표 IV-6>의 측정 값 분포도 160
 <그림 IV-5> <표 IV-7>의 측정 값 분포도 160
 <그림 IV-6> <표 IV-8>의 측정 값 분포도 161
 <그림 IV-7> 민관협력에 대한 기여도 평가 종합 분석도 162
 <그림 IV-8> <표 IV-9> 측정 값 분포도 164
 <그림 IV-9> <표 IV-10>의 측정 값 분포도 165
 <그림 IV-10> <표 IV-11>의 측정 값 분포도 166
 <그림 IV-11> <표 IV-12>의 측정 값 분포도 167
 <그림 IV-12> 기초의제 활성화 및 긴밀한 관계 형성 기여도 평가 종합
 분석도 168
 <그림 IV-13> <표 IV-13>의 측정 값 분포도 169
 <그림 IV-14> <표 IV-14>의 측정 값 분포도 170
 <그림 IV-15> <표 IV-15>의 측정 값 분포도 171
 <그림 IV-16> <표 IV-16>의 측정 값 분포도 172
 <그림 IV-17> '경기의제21' 실천가능성과 실천사업의 적절성 평가 중
 합 분석도 173
 <그림 IV-18> <표 IV-17>의 측정 값 분포도 175
 <그림 IV-19> <표 IV-18>의 측정 값 분포도 176
 <그림 IV-20> <표 IV-19>의 측정 값 분포도 176
 <그림 IV-21> <표 IV-20>의 측정 값 분포도 177
 <그림 IV-22> <표 IV-21>의 측정 값 분포도 178
 <그림 IV-23> <표 IV-22>의 측정 값 분포도 179

제 1 장 서론

<그림 IV-24> <표 IV-23>의 측정 값 분포도	180
<그림 IV-25> <표 IV-24>의 측정 값 분포도	180
<그림 IV-26> <표 IV-26>의 측정 값 분포도	181
<그림 IV-27> 기타 경기도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한 정도 평가 종합 분석도	182
<그림 IV-28>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기여도 평가 종합 분석도	183
<그림 V-1> 경기도-기초지자체 지방의제21과 지속위 간 역할 모형 ..	195

1. 보고서 발간의 배경과 목적

○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는 1998년 9월4일 창립 이래로 10년간 경기지역의 민·관 협력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지방의제21 확산과 정착을 견인하여 왔음

○ 또한 지난 10년간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이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2007년), 경기지역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의 확산 등의 성과를 이루어왔음

○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는 1998년 창립 이후 1999년에는 6월3일에 8개 분야 21개 의제를 최종적으로 확정 발표하였음.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일부 의제의 내용 변화 요구에 직면하여 2004년과 2005년에 걸쳐 13개 의제를 재작성하여 발표하였음

○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활동은 단지 의제를 작성·공표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이의 실천을 위한 사업, 의제실천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다양한 공모사업, 교육 및 토론회 개최, 청소년 환경탐사 등의 기획사업, 기초의제 등과의 네트워크 사업, 국제 네트워크 사업, 현안 대응 활동, 홍보사업 등을 활발히 전개하여 왔음

○ 또한 의제실천 및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운영 등을 위한 「의제 지표 평가에 관한 연구」와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중장기발전방안 연구」 등의 평가

및 연구 사업도 진행하여 왔다.

○ 2008년은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10주년을 맞는 해로서, 이에 지금까지의 활동 및 사업내용을 총체적으로 돌아보고 평가할 필요성이 제기됨.

○ 이는 단순히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가 지금까지 수행해 온 활동들을 평면적으로 나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경기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활동에 기여한 성과들과 과제들을 정리함으로써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가 10년의 기간 동안 경기도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한 바를 분석적으로 도출해 내하고자 함. 이를 통해 지나온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들을 극복하고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더붙어서 도출하고자 함

○ 그러나 이 과정은 단순히 지나온 자료들을 통해 이루어지기 보다는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주체들과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들 주체들과의 공유와 합의를 통해 향후 10년을 위한 과제와 방향을 도출하고자 함

○ 이 사업의 구체적 성과는 10주년 기념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며, 이 사업과 보고서의 구체적 목표를 간단히 정리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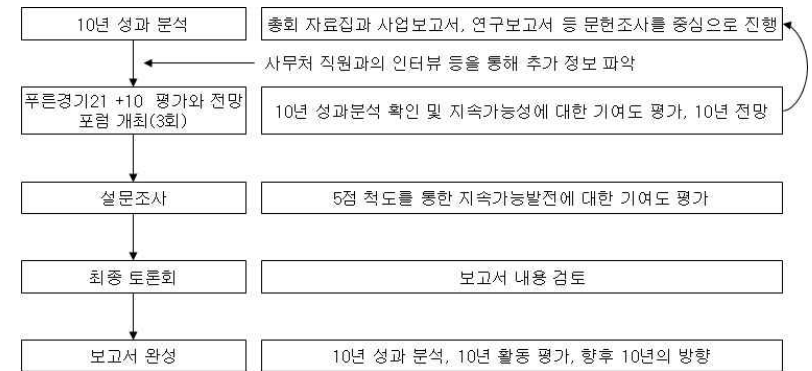
-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의 지난 10년간 활동을 성과 중심으로 분석하여 정리하고
- 지난 10년 활동을 활동 내용과 참여 주체들의 의견을 근거로 평가를 실시하며,
-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하기 위한 변화 방향을 도출

2. 과정 및 방법

○ 이 보고서를 발간하기 위하여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활동과 관련한 총회

자료집 및 활동보고서와 관련 문건 등의 문헌자료 참고와 관련자들에 대한 인터뷰 및 집담회 등, 사무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분야별 현황 파악조사와 의견 청취, 그리고 설문조사와 토론회 등의 방법을 사용함

○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여 성과분석 및 평가, 향후 10년 전망과 관련한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을 간략하게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의 <그림 1-1> 과 같음



<그림 1-1> 진행 과정 및 방법

○ 푸른경기2 +10 평가와 전망 포럼은 각각 역대 사무처장단+국장(8월27일), 기초의제 사무국장단(9월2일),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운영위원 및 경기지역 관련 NGO 관계자(9월3일) 모임으로 구분하여 개최

○ 설문조사는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의 10년 활동을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한 정도를 5점 척도를 사용하여 9월29일부터 10월4일까지 1주일 간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자는 실천협의회 운영위원과 정책위원회, 양성평등위원회, 각 의제실천사업 위원장을 포함한 기획위원, 역대 사무처장 및 사무국장,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실시

○ 최종토론회는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10주년 기념사업으로 일환으로 개

최되었으며, 보고서의 초고에 대한 발표와 그에 대한 토론을 중심으로 진행.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최종 보고서에 반영

3. 보고서의 구성

○ 이 보고서는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의 지난 10년 간 활동의 성과를 분석하고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하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10년 간의 활동 전망을 도출하고자 하는 데에 가장 큰 목적이 있음

○ 이에 따라 이 보고서는 크게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 제1장: 서론
- 제2장: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10년 활동성과를 분석한 장으로, 지난 10년을 4개의 시기로 구분하여 각 시기별 어떠한 특성이 있으며 어떠한 발전과정을 밟아왔는지, 각 시기별로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사업 유형별로 구분하여 분석
- 제3장: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가 경기도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한 정도를 활동내용을 근거로 평가
- 제4장: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가 경기도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한 정도를 실천협의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5점 척도에 근거한 질문지를 통해 평가
- 제5장: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의 향후 10년 발전 방안을 제시한 장으로, 특히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의 제정과 경기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실천협의회의 위상과 역할을 중심으로 발전 방안 제시

4. 용어 사용 등

○ 보고서 본문에서는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라는 정식 명칭을 가급적 사용하려고 노력하였으며, 한 문단 안에 중복되어 사용하게 될 경우 '실천협의회'로 간략히 명기하였음

○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에서 작성한 지방의제21의 내용은 1999년에 발표된 의제21인 '푸른경기21'과 2004년 ~ 2005년에 발표된 '경기의제21'로 구분하여 명기하였으며, 일반적인 지방의제21은 그냥 지방의제21로 명기하였음

○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의 경우 지방의제21 추진기구로 명기하였으며, 각 의제 추진기구별 명칭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추진기구의 공식 명칭을 그대로 명기하였음

제 2 장 10년 활동성과 분석

1. 지방의제21 도입 과정과 현황

1) '지방의제21'과 관련한 지구적 움직임

○ 리우 지구정상회의가 개최되기 20년 전인 1972년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인간 환경회의(Conference on Human Environment)'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179개국 정상들이 모여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21세기 행동계획인 '의제21'을 채택

-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인간환경회의는 인간의 환경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
- 냉전체제 하에서 열린 이 회의에는 동구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불참하였고, 개발도상국들도 개발국가 중심으로 진행된 이 회의에 불신을 가지고 있었음

○ 그 후, 1987년에는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CED)>에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일명 브룬트란트 보고서)를 통해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다룸

- 이 보고서에서는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지속가능 발전의 개념을 설명

○ 1992년 리우에서는 전세계 110여 개국 정상들과 178개국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UN환경개발회의(UNCED)'가 개최되어, 경제발전과 환경보존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를 주요한 과제로 다루어 논의를 진행

- 이 회의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을 보다 발전시켜, 경제적 지속가능성 뿐만이 아니라 자연자원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요구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세계적 전략으로 경제성장의 회복과 사회구조의 질적 변화, 노동·식량·에너지 문제의 사회적 해결, 인구의 지속가능한 수준 유지, 자원의 기반구축과 기술혁신 등과 같은 사회적 지속가능성까지 망라¹⁾

○ 리우회의에 모인 세계정상들은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적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는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을 채택하여 발표하였고, 이의 실천을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계획인 '의제 21'도 채택하여 발표함

○ '의제 21'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제를 선정하고 그 추진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실천 강령을 제시

- '의제 21'에서는 그 내용으로 다루어야 할 사항으로, 물, 대기, 토양, 해양, 산림, 생물종 등 자연자원의 보전·관리 위한 지침과 더불어 빈곤퇴치와 건강, 소비형태의 변화 등 사회경제적 이슈들을 모두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그 실행수단으로는 재정확충, 기술이전, 과학발전, 교육, 홍보확대, 국제협력 등이 포함되도록 함

○ '의제 21'에서는 사회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참여를 통해 이러한 실천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이른바 '주요 그룹(major groups)'을 핵심주체로 설정

- 이 주요 그룹으로는 여성계, 청소년, 농민, NGO, 지방정부, 근로자와 노동조합, 기업 및 산업계, 과학기술계, 원주민 등 9개 그룹이 포함

○ 이 '의제 21' 제28장에서는 "지방정부는 경제, 사회, 환경의 조직을 구성·운영·유지하고, 지역 환경정책과 규제방안을 수립하며, 국가적, 광역적 환경정책의 수행을 돕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주민을 교육시키고 동원하며

1) 환경부, 2005.2

책임을 지우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각국의 지방정부에서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인 ‘지방의제21’을 주민들과 함께 작성·채택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권고하는 것에 합의하고 결의

- 이와 관련하여 ‘Think Globally, Act Locally’라는 슬로건이 급속히 전파되기 시작함

- 이 슬로건은 당초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창립자인 데이빗 브로워(David Brower)가 1969년 창립 당시 슬로건으로 처음 사용하였고, 1972년 유엔 인간환경회의에서 널리 확산. 그것이 1992년 ‘리우환경개발회의’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중요한 슬로건으로 자리 잡게 되었음

○ 이후 1994년에는 전세계의 각 지역사회가 자신의 특성에 적절하게 지방의제21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교환과 지방정부 간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성격으로 ‘맨체스터 지구포럼 ’94’가 개최됨

○ 1997년에는 ‘유엔환경특별총회’가 개최되어 리우정상회의 이후 5년 간의 의제21 진척사항을 점검해 보고 향후 대책을 논의

○ 이후 2002년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174개국에서 100여 명의 국가수반과 대표단 및 각급 비정부기구(NGO) 회원들이 참가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 정상회의가 개최됨. 이 회의는 리우 정상회의 이후 10년 만에 개최된다는 의미에서 ‘리우+10’ 회의라 불리기도 함

- 이 회의에서는 2015년까지 세계의 빈민인구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하고 이를 위해 세계연대기금(WSF) 설립을 합의했으며, 보건, 식수, 농업, 생물다양성, 교육·무역, 에너지 등 6대 의제별 현안도 논의됨

2) 우리나라의 지방의제21 도입배경 및 과정

○ 우리나라에서 지방의제21에 대한 관심은 1994년 영국 맨체스터에서 개최된 ‘맨체스터 지구포럼 ’94’에 참여하면서 본격적으로 확산됨

-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이 회의에 참여하기 위해 ‘Sustainable Seoul Development’란 보고서를 발간하였고, 민간 차원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경실련 환경개발센터와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그리고 한국환경정책학회가 ‘Local Agenda 21과 지방정부의 대응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

○ 지역 차원에서도 1994년 7월 부산에서 ‘동북아환경협력회의’가 개최되는 것을 계기로 ‘녹색도시 부산21’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이어서 광주에서도 지방의제21 추진기구가 창립되는 등 속속 지방의제21이 작성되고 그 추진기구들이 발족하게 됨

○ 이렇듯 지방의제21이 우리나라에서 확산되게 된 데에는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방자치제도와 연관이 깊음

○ 1997년 4월, 환경부는 '지방의제21 작성지침'을 각 지역에 배포하고 지방자치단체 환경역량 평가항목에 지방의제21 수립 및 추진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발표함으로써,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제21을 작성하도록 하는데 기여함

○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지방의제21이 작성·발표된 곳은 부산광역시로, 1994년 7월에 '녹색도시 부산21' 추진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1995년 9월 '부산환경선언' 및 '녹색도시 부산21'이 발표됨. 이후 1997년 1월에 「부산광역시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하였으며, 1999년 1월에 「녹색도시 부산21 실천지침서」를 발간. 2000년 2월에는 작성된 의제를 추진하기 위한 <녹색도시 부산21> 사무국이 설치됨

○ 광주광역시에서는 1995년 7월부터 지방의제21 추진 준비작업이 이루어져, 같은 해 10월에는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인 <푸른광주21 협의회>가 창립

○ 서울시에서는 1995년 11월에 <녹색서울시민위원회>를 설치하고 1996년 7월 시민단체, 전문가, 서울시 공무원 등 12명으로 구성된 <서울의제21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의제21을 추진하기 시작. 1997년 1월에 시민, 시민단체, 전문가, 교수, 언론인, 서울시 공무원 등 200여명을 추진위원으로 하는 <서울의제 21 추진협의회> 구성되었고, 같은 해 7월에 '서울의제 21'을 확정·선포

○ 대전에서는 1996년 11월 <대전의회제21 추진협의회>가 구성되었고, 1998년 4월 '꿈과 희망의 푸른 대전 21'이라는 이름으로 '대전의회제 21'이 선포됨

○ 인천에서는 1996년 9월 <깨끗한 인천 만들기 시민협의회>가 창립하여, 1998년 3월에 <인천의회제 21 추진협의회>로 재편. 1998년 10월 '살기 좋고 활기찬 인천 만들기'라는 이름의 '인천의회제21' 선포

- 인천의회제21이 선포된 이후 조례제정을 통해 <인천의회제 21 실천협의회>가 설치됨

○ 경기도 지역에서는 '푸른경기21'이 발표되기 이전인 1996년 안산시에서 처음으로 '상록도시 안산21'을 작성·발표하였으며, 1997년에는 수원시에서 <21세기 수원만들기 협의회>를 구성하였고 1998년 12월 '희망수원 21'이라는 이름으로 수원의제21을 작성·발표함

- 수원시의 경우에는 1995년 단체장 선거 시에 지방의제21을 포함한 100대 의제를 선정하여 각 후보들이 자신의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하는 사업을 시민사회단체들이 전개하였고, 그후 1996년 터키의 이스탄불에서 열린 세계주거회의(HABITAT II)에 참여한 수원시장이 일부 시민단체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함께 지방의제 추진기구를 설립하고 '희망수원 21'을 작성·선포

- 안산시의 경우, 시장이 수원시장과 함께 세계주거회의에 참여하였으나, 최초로 작성된 지방의제21은 시민 또는 시민단체들과 함께 만들었다기보다 용역보고서로 발간함. 이로 인해 그 후 추진되지 못하다가 2001년 3월에 의제추진기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2002년 3월에 다시 지방의제21을 작성·선포함

<표 II-1> 경기도 내 기초의제별 의제21 선포일 및 추진기구 설립일

기초시·군	의제명	의제추진기구 명	의제 선포일	추진기구 창립일
안산시	상록도시 안산21	-	1996	2001.03.30
	깨끗하고 살기좋은 안산21	깨끗하고살기좋은안산21 실천협의회	2002.01.08 2008.01.31 (재작성)	
수원시	수원의제21(희망수원21)	21세기 수원만들기협의회	1998.12.28 2002.03.12(재작성)	1997.04.22
구리시	푸른꿈 짙은구리21	구리의제21추진협의회	1999.10.14	1998.03

광명시	푸른광명21	푸른광명21실천협의회	1999.12.23	1999.12.23
성남시	21세기 꿈이 있는 푸른 성남 만들기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1999.12.28	1999.01.22
김포시	맑은김포21	맑은김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0.05.02	2001.11.23
안양시	늘푸른안양21	늘푸른안양21실천협의회	2000.05.04	1998.04.16
평택시	아름답고 푸른평택21	아름답고푸른평택21 실천협의회	2000.12.16	1999.08.30
부천시	푸른부천21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	2001.02.26	2000.01.18
의정부시	푸른터맑은의정부21	푸른터맑은의정부21 실천협의회	2001.04.22	2000.04.22
오산시	오산의제21(보고서 미발간)	살고싶은오산21실천협의회	2001.08.07	2003.03.28 2007.03.29(제 창립)
과천시	과천환경21	과천환경21실천협의회	2001.11.18	2000.1.22
의왕시	21세기녹색의왕만들기	의왕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02.01.29	1999.04.30
파주시	푸른파주21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2002.02.01	2002.09.27
시흥시	맑고푸른시흥21	맑고푸른시흥21실천협의회	2002.03.14	2000.09.27
군포시	군포의제21	푸른희망군포21실천협의회	2002.03.15	2000.12.07
포천시	맑고푸른포천의제21	맑고푸른포천의제21 실천협의회	2002.03.29	2000.12.15
용인시	푸른환경새용인21	푸른환경새용인21 실천협의회	2003.02.28	2000.09.07
고양시	고양의제21	높푸른고양21협의회	2003.04.09	2000.08.26
가평군	아름답고 살기 좋은 가평 만들기	청정가평 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03.12.18	2002.12.26
남양주시	남양주의제21	남양주의제21실천협의회	2003.12	2002.4.22
여주군	함께 가꾸는 푸른여주21	푸른여주21실천협의회	2003.12	2002.12.26
안성시	푸른안성맞춤21	푸른안성맞춤21추진협의회	2004.02.04	2001.12.16
연천군	맑은연천21	맑은연천21실천협의회	2004.04.21	2001.11.30
양평군	살맛나는 세양평 맑은물사랑 친환경농업 양평의제	맑은물사랑! 양평의제21추진협의회	2004.04.21	2002.04.25
이천시	이천의제21	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04.12.24	2002.12.27
화성시	기분좋은 화성21	기분좋은화성의제21 실천협의회	2005.02.25	2003.09.21
광주시	너른고을 광주의제21	너른고을 광주의제21 실천협의회	2006.09.20	2002.03.29
양주시	문화환경도시 양주	양주의제21실천협의회	2007.01.17	2005.05.30
하남시	(의제 작성 준비 중)	하남의제21 추진협의회	-	2008.6

자료: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경기도, 2007.12 참조

○ 경기도 차원에서는 1998년 <경기의제21 추진협의회> 창립대회를 가짐으로써 지방의제21 작성과 실천을 위한 기반을 다짐. 그 후, 1999년 6월 3일에 ‘푸른경기21’을 선포함으로써 본격적인 의제 실천 활동을 시작

○ <경기의제21 추진협의회>가 창립되고 ‘푸른경기 21’을 작성·선포한 이후, 1999년도 하반기에 구리시가 지방의제21을 수립 발표하였고 1999년 말에는 성남시와 광명시가 종합연구보고서와 지방의제를 발표. 또한 부천시, 안양시, 평택시, 과천시, 고양시, 의왕시, 시흥시, 화성군 등의 지자체가 지방의제를 작성하기 위하여 추진기구를 설립. 2001년에는 양평과 안성이 추진기구를 설립하는 등으로 경기도 내 다수 지방자치단체에 의제 추진기구 설립 및 의제작성이 확산됨
- 현재 경기도 내에는 31개 시·군 중 30개 시·군에서 지방의제21 추진기구가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29개 자치단체에서 지방의제21을 작성·선포. 하남시는 2008년 6월에 지방의제21 작성을 위한 추진기구를 설립하여 2008년 9월 현재 지방의제21 작성을 준비 중

○ 이렇듯 우리나라의 ‘지방의제21’과 그 추진기구들은 짧은 시간 안에 급속히 확산되었는데, 그러한 원인으로는 당시의 사회적 상황이 많이 반영됨
- 무엇보다도 민선자치단체장이 선출되면서 지방자치제도가 본격화 되었고, 이와 더불어 민관파트너십이 일상적인 사회적 의제로 확산되었으며,
- 당시 환경문제가 사회적으로 주요하게 제기되면서 가장 무난하게 민관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는 주제로 환경문제가 고려되었으며,
- 각종 국제대회에서 지방의제21이 강조됨에 따라 이에 참여한 여러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무원, 시민사회단체 구성원들의 이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고,
- 이에 따라 중앙정부에서도 각 자치단체에 지침을 내려 보내 지방의제21 추진을 유도

○ 환경부에서 2005년에 발표된 연구보고서를 참고하면, 지방의제21의 작성과 그 추진기구의 설립에 있어 크게 시민단체 중심형과 지방자치 중심형으로 나뉜다²⁾

○ 시민단체 중심형은 지방정부와의 협력적 관계를 통해 시민·환경단체들이 의제작성과 그 실천활동을 주도하면서 이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형태를 의미
- 시민단체 중심형의 경우에는 의제 작성 및 추진기구들이 시민단체 중심의 독자적 사무국 체계를 갖추어 의제 작성 전후에 창립됨

○ 반면, 지방자치단체 중심형의 경우에는 의제 작성 그 자체를 중시하여, 작성 과정에서 지역의 시민들이나 시민·환경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보다는 대학이나 연구소 등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중심형의 경우 의제 작성 전후에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의제 추진기구들이 독자적인 실무력을 갖춘 채 창립되지 않았거나, 창립되었다 하더라도 그 활동 실적이 미미한 상태에 머무

2. 제1기: 의제 도입기 - <경기의제21 추진협의회> 창립과 의제 작성(1998년 하반기~2000년)

○ 이 시기는 경기도 지방의제21인 ‘푸른경기21’이 작성·발표된 이후, 그 실천을 위한 활동이 시작된 초창기라 볼 수 있음

○ 따라서 아직은 체계적인 실천사업이 전개되었다기보다는 행정과 참여 단체 등 외부에서 제기되는 과제들을 주로 실천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고 평가됨

2) 환경부, 2005.2 참조

○ 전체적으로 이 시기는 향후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가 정착을 하고 질적 발전을 할 수 있는 출발을 시작한 시기라 평가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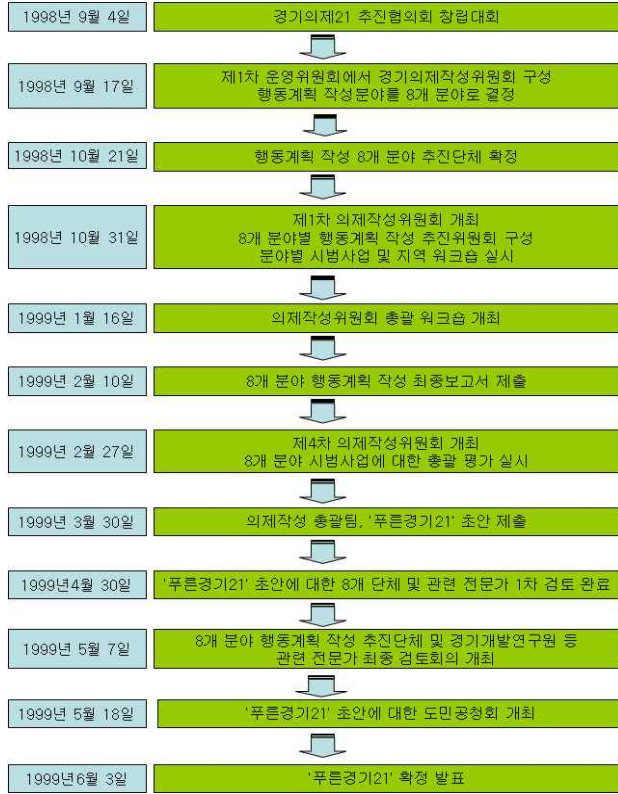
1)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창립과 ‘푸른경기21’ 작성·발표

○ 현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는 1998년 9월4일 <경기의제21 추진협의회> 창립대회를 가짐. 그리고 같은 달 17일 제1차 운영위원회를 통해 경기의제 작성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행동계획 작성분야를 8개 분야로 결정한 후, 동년 10월21일 행동계획 작성 8개 분야 추진단체를 확정함

○ 1998년 10월에 첫 의제작성위원회를 개최한 후 8개 분야별 행동계획 작성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야별 시범사업 및 지역 워크숍을 실시. 다음 해 1월16일에는 의제작성위원회 총괄워크숍을 개최한 후, 2월10일에 8개 분야 행동계획 작성 최종보고서를 제출. 이후 3월30일에는 의제작성 총괄팀에서 ‘푸른경기21’ 초안을 제출하였고, 관련 단체 및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5월18일 초안에 대한 도민공청회 개최

○ 이러한 과정을 거쳐 1999년 6월3일 8개 분야 21개 의제로 구성된 ‘푸른경기21’을 확정발표

- 8개 분야의 의제는 각각 시범적 추진지역과 추진단체를 선정함



* 자료: 경기도제 21 추진협의회, 1999에서 인용

<그림 II-1> '푸른경기21' 작성과정(1998년~1999년)

- 의제를 8개 분야로 추출한 것은 경기도의 가장 대표적인 환경현안을 중심으로 배치했기 때문
- 이 8개 분야는 위성도시권의 일반적인 생활환경현안(대기·교통과 에너지/하천과 호소, 습지/생태도시/폐기물)과 경기도 지역의 대표적인 자연환경 현안(팔당상수원과 유기농업/시화호와 해양생태계/비무장지대와 광릉숲),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청소년)로 구성
- 당시 발표된 8개 분야 21개 의제 내용과 시범추진지역 및 추진단체 현황은,

<표 II-2> '푸른경기21' 분야별 내용 및 시범추진 지역, 주관단체

분야	의제명	시범추진지역	주관단체
대기와 에너지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인다	과천시	과천환경운동연합
	자전거 이용을 생활화 한다		
	건고 싶은 거리를 만든다		
폐기물	주민이 참여하는 폐기물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군포시	군포환경자치시민회
	포장재 쓰레기를 줄인다		
	음식물 찌꺼기를 자원화 한다		
시화호와 해양생태계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맑은 시화호를 만든다.	안산시	안산YMCA
	생명의 보고 갯벌을 우리 손으로 지킨다		
	해양 친수문화공간을 확대한다		
하천과 습지	하천을 따라 생태문화 탐방로를 만든다	수원시	수원환경운동센터
	하천과 호수의 수질을 개선한다		
	하천 및 습지생태계를 보전한다		
비무장지대와 광릉숲	비무장 지대를 세계적인 생태학습장으로 만든다	파주시 남양주시	경기북부 환경운동연합
	광릉숲을 생물종다양성의 중심지로 만든다		
팔당 상수원과 유기농업	자연이 숨쉬는 팔당호 수변공간을 만든다	양평시	팔당상수원유기농업운동본부
	수질보전형 도시와 농촌을 만든다		
생태도시	자연이 살아 숨쉬는 생태도시를 만든다	성남시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물 절약을 생활화한다		
	조용한 주거환경을 만든다		
사회복지	지역사회시설을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개방한다	수원시	경기복지시민연대
	청소년을 위한 지역정보망을 구축한다		

○ 의제초안 작성은 그 지역의 민간단체가 담당하도록 해당 주관단체를 공개모집하여 선정. 이에 따라 8개 분야별로 해당 주관단체들에게 지역별로 주민조직, 환경단체, 전문가, 기업체, 행정기관 등과 파트너십을 구성하여 각 분야별 행동계획을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이와 함께 시범사업 초안도 제시하도록 함

○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작성된 지방의제21은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민간단체와 행정이 협의하여 경기도의 비전을 작성하였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큰 의미가 있음. 그리고 각 의제별로 연도별 개선 목표치를 설정하고, 도민, 기업체, 행정기관

및 경기도의회, 시민단체, 전문가, 교육기관 및 학생의 세부 실천계획을 제시하였다는 의의도 크다 할 수 있음

○ 1998년에 설립된 <경기의제21 추진협의회>는 1999년 6월 ‘푸른경기21’을 확정·발표한 후 이를 실천하는 단위인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로 명칭과 위상을 변화시킴으로써, 명실상부한 의제실천의 기구로서의 위상을 갖추게 됨

- 이는 구체적 의제를 실천할 분과위원회 구성의 변화에서도 잘 알 수 있는 바, 추진협의회 시절 ‘정책기획분과위원회’, ‘사업실행분과위원회’, ‘지역협력분과위원회’로 구성되었던 것이 실천협의회로 위상으로 바뀌며, 작성된 의제를 실천하기 위한 ‘자연생태분과위원회’, ‘생활환경분과위원회’, ‘시민사회분과위원회’로 재구성됨

○ 반면, 초기에 만들어진 이 의제 내용은 관련 주체들의 광범한 합의를 거치지 못하고 주로 시범추진 지역의 시민단체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작성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님. 또한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정 및 수단, 그리고 각 주체들의 실천을 견인·유도하기 위한 방안 등이 함께 고려되지 못하고 해당 지역의 주관 단체에 이를 일임한 것도 한계라 할 수 있음

- ‘푸른경기21’이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의제라는 점을 고려하면, 특히 행정과의 합의와 행정의 실천의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의제 작성과정에서 그 내용과 실천계획들을 확정할 때 행정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은 행정이 향후 의제의 실천에 적극적이지 않은 큰 원인 중 하나라 볼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은 몇 가지 점에서 당시의 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는데,

- ▶ 경기도의 예산으로 ‘푸른경기21’ 작성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의제수립을 책임지기로 한 주체들의 역량이나 기간 등에 있어서 각계각층의 광범한 합의를 거칠만한 여유가 부족했고,
- ▶ 경기도의 생활권이 넓어 공통의 의제를 만들 만한 여건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역별로 의제를 만들도록 하였으며,

▶ 의제별 주관단체를 선정하는 것은 각 지역별로 지방의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 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초의제21 작성과 추진기구 설립을 자극하고자 하는 의도 때문

○ 즉, 초기 의제작성 과정은 지방의제21을 어떻게 모범적으로 작성하고 실천할 것인가 하는 것보다는 경기도 지역에서 지방의제21을 작성하고 실천하기 위한 토대를 빨리 구축할 필요성이 절실했던 측면이 고려된 것이라 할 수 있음

2) 실천사업

○ 공모를 통해 민간단체의 실천을 지원하는 사업은 초기부터 진행된 주요한 사업 중의 하나로, 의제가 작성·발표된 1999년 이후, 1999년에 도내 17개 민간·환경단체에 1억4천여만 원, 2000년에 도내 29개 민간·환경단체에 2억5천여만 원을 지원하여 실천사업 수행

- 이러한 실천사업은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통해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실천사업 우수단체와 부진단체를 선정하여 익년 공모 사업 심사 시 가산점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는데, 이러한 사업방식은 이후 지속됨

○ 공모를 통한 실천사업 진행은 이외에도 학교를 대상으로 별도로 시행

- 2000년에는 도내 11개 학교에 2천6백여만 원을 지원

- 학교실천사업 역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2000년도에 경우 1회 평가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수학교를 선정하여 시상함으로써 실천사업 활성화 유도

○ 공모를 통한 실천사업의 경우에는 2000년에 그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중간점검 모임 역시 개최함으로써, 중간·중간 실천사업의 활성화를 견인하기 위해 노력

○ 공모를 통한 실천사업이 초기부터 활성화되었던 데에 반해 정작 작성된 의제를 직접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분과사업들은 아직 제 자리를 잡지 못함. 이는 기본적으로 의제의 실천을 각 분야별 주관단체를 선정하여 진행하도록 일임하였기 때문. 즉, 의제실천의 구체적 담당 주체를 분야별 주관단체로 정하고 그에 위임함으로써 작성된 의제에 대한 직접적 실천사업이 분과위원회의 고유한 역할로 설정되어 있지 못하였음

○ 따라서 의제 실천을 담당해야 할 각 분과의 일상적 활동이 분과 위원들이 주로 참여하는 교육 및 토론회 등과 그때그때 분과에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내용들로 채워짐으로써,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차원에서는 작성된 의제실천에 대한 직접적인 실천활동이 계획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 하지만 자연생태분과의 경우 2000년에 실천사업 주관단체 관계자와 분과위원들이 참여한 “푸른경기21’ 2000년 실천사업 투어링·워크숍”을 통해 자연생태 관련 분야 의제의 실천사업 문제점 및 대책방안을 논의하고 실천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함

○ 그리고 의제와 직접 관련된 실천활동은 아니지만 자연생태분과의 경우 ‘경기도 갯벌살리기 실천운동’, 생활환경분과의 경우 ‘경기도 폐기물 조례 제정안 제안사업’, 시민사회분과의 경우 ‘장애우가 편한 경기도 만들기 캠페인’ 등의 사업을 수행

○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시기 작성된 의제를 실천하기 위한 주요 사업은 공모를 통한 사업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공모를 통한 실천사업은 작성된 의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직접적 사업이라 보기 힘들다는 점에서, 작성된 의제를 실천하기 위한 체계적인 실천활동은 많이 부족한 시기였다 평가할 수 있음

3) 교육 및 토론회 등

○ ‘푸른경기21’이 작성된 직후인 1999년부터 교육사업, 특히 환경교육사업은 비교적 활발히 실천되어옴

○ 이 시기 교육사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들로 대부분 채워져 있음.

- 1999년의 경우 어린이 환경노래극 ‘이슬이’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의 후원(500만원)으로 부천시와 용인시에서 상영
- 2000년에는 4박5일간의 자전거 환경탐사인 ‘새천년 경기지역 환경대탐사’를 도내 초·중·고생 약 1백 여명이 참여하여 진행

○ 이 시기는 ‘푸른경기21’이 막 작성되고 난 이후라서 기획사업의 종류 또한 다양한 편은 아님. 그러나 시민들에 대한 환경교육의 방법으로 환경노래극 공연을 시도한 점, 기업체의 후원참여를 통해 진행한 점, 환경노래극을 지역의 주체들과 공동주최하여 공연한 점 등은 광역의제 추진기구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시도였다고 볼 수 있음

○ ‘새천년 경기지역 환경대탐사’ 사업은 이후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10년 동안 지속된 사업이라는 점, 청소년들의 현장체험 통한 친환경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교육사업이라는 점 등에서 그 의의가 깊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추진협의회 차원에서나 각 분과 차원에서는 최초로 작성된 ‘푸른경기21’을 홍보하고 각 주체들의 실천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및 토론회, 워크숍 등이 개최됨

○ 1999년에는 경기 지방의제21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도내 시·군별 지방의제21 담당 공무원 및 민간단체 관계자 등 200여명 참여 하에 개최하였고, ‘푸른경기21’ 교육용 CD 및 비디오 테이프를 제작하여 31개 시·군에 배포하였음. 또한 ‘푸른경기21’의 내용을 어린이용 만화로 제작하여 도내 초등학교 4학년 학급당 1부씩 배포하기도 함

○ 1999년 각 분과에서는 의제실천사업보다는 각 분과별로 1회씩의 워크숍을 개최함

- ‘자연생태관련 실천사업 투어링·워크숍’(자연생태분과), ‘지속가능한 지역 사회를 위한 기업의 역할’ 워크숍(생활환경분과), ‘시민사회분과위원회 99 워크숍’(시민사회분과)
- 그러나 이는 경기도민의 환경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라 보기 어려움. 이는 그 참여자들 대부분이 분과위원들이기 때문

○ 반면, 의제가 작성·발표된 이후인 2000년에는 교육사업과 토론회 등이 주로 분과위원회 주관으로 많이 시행됨. 즉, 실천협의회 차원의 교육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대신 각 분과에서 전년보다 심혈을 기울여 기획한 워크숍 및 토론회 등이 진행됨

- 자연생태분과:
 - ▶ 자연생태분과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 ▶ ‘푸른경기21’ 2000년 실천사업 투어링·워크숍
- 생활환경분과:
 - ▶ 경기도 폐기물 조례 제정안 제안사업
 - ▶ 폐기물과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토론회
- 시민사회분과:
 - ▶ 지방의제21 활성화 논의를 위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워크숍

○ 기본적으로 지방의제21은 국제적 협의와 선언에 의해 만들어 지고 추진된다

는 점에서 국제 교류도 중요한 사업의 하나라 할 수 있는데, ‘푸른경기21’이 작성된 해인 1999년 12월에는 지방의제 선진지 연수를 도의원과 실천협의회 자문위원, 도 관련 공무원 등 6인이 일본 가나가와 현으로 다녀옴

○ 2000년 5월에는 도내 기초의제 추진기구 및 담당 공무원 등 19명이 일본의 가나가와현과 가마쿠라시 등에, 동년 6월에는 도내 기초의제 추진기구 및 담당 공무원 등 21명이 영국과 독일에 지방의제21 선진지 연수를 다녀왔고, 선진지 연구보고서를 제작하여 배포

○ 종합적으로, 이 시기 교육 및 토론회 등의 사업에 있어 의제작성 해인 1999년에는 지방의제를 홍보하는 환경교육이 추진협의회 차원에서 다양하게 시도되었으며, 그 다음 해인 2000에는 각 분과별로 의제 실천 활성화와 몇 가지 주제에 대한 기획된 워크숍 및 토론회가 개최됨. 이는 경기도 지방의제의 출범과 각 분과위원회 활성화의 단계를 거치는 과정이라 평가됨

4) 연구사업

- 의제가 작성된 1999년에는 수립된 의제를 구체화하고, 추진사업을 점검하는 지표 및 감사방법에 대하여 의제 추진 참여자들의 이해를 돕고, 실제적인 사업 추진이 뒷받침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에 관련된 몇 개 연구를 별도로 추진
 - 지속성 지표개발 및 지속가능한 개발전략 수립
 - 자연환경 감사 지침 및 모니터링 체계구축에 관한 연구

5) 기초의제와의 네트워크 사업

○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는 ‘푸른경기21’을 작성할 때부터 경기도 내 기초 지자체에 지방의제21 작성 및 추진기구 설립을 촉구하기 위한 활동에 활동의

역량을 집중

- '푸른경기21' 작성시 8개 분야를 지역별로 분담하였고, 주관단체를 선정한 것도 기초 자치단체들이 시급히 의제를 작성토록 하기 위한 목적과 아울러 기초지방의제21 추진기구 설립을 자극하기 위함이었음

○ 이에 따라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가 만들어 진 1999년에도 예산으로 배정 받은 4억 대부분도 경기도 지역 기초지방의제를 만드는 데에 집중적으로 사용하기도 함

-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들에게 의제 관련 실천사업을 공모하여 실천사업을 지원하였고
- 각 지역의 시민단체 등 대표자들에게 의제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 1998년 12월, 지방의제21 작성 및 실천에 대한 일선 시·군의 이해와 협조를 위해 31개 시·군 지방의제 담당자 교육을 경기도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등 행정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교육 및 연찬회 등을 개최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

○ 또한 1999년 경기도와 제주도 지방의제 추진기구에서 전국지방의제21대회를 개최하고, 2000년에는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를 경기도로 유치한 것도 행정과 시민단체들로 하여금 지방의제21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효과를 거둠

○ 2000년에는 실천협의회 내에 <교류협력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는데, 그 과정에 기초자치단체 지방의제21 추진기구 관계자 및 담당 공무원 등이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간접적으로나마 기초자치단체의 의제작성과 의제실천 사업 및 활동의 방향 등에 대한 내용적 지원 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2000년 1월27일,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1차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20명 참여), 동년 3월9일에는 부산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2차 간담회 개최(20명 참여)

○ 이렇게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2000년 6월에 시흥의제21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워크숍을 지원하였으며, 2000년 10월19일부터 1박2일 동안 경기지역 시·군의제21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

○ 이밖에도 2000년 11월22일에는 경기지역 기초 지방의제21 추진기구 운영위원장 13인이 참여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군의제 활성화 방안과 <푸른경기21 실천협의회>와 기초의제 간 연계방안을 논의

- 요약하면,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는 초기에서부터 기초의제21 작성과 추진기구 설립 지원에 큰 역점을 쏟았는데, 이를 위해,
 - 지역단체들에 대한 공모를 통해 실천사업을 추진하였고,
 - 공무원들에 대한 워크숍과 교육 등을 주관 또는 지원하였으며,
 - 전국대회 등을 통해 지방의제21 작성과 추진기구 설립을 자극

6) 홍보사업

○ 1999년 12월말부터 2000년 10월까지 소식지를 5회 발간하였으며, 각 1천부를 제작하여 실천협의회 위원과 전국의 지방의제21 추진기구, 도내 기초자치단체 지방의제21 추진기구 사무국, 도내 민간환경단체 등에 배포

○ 경기도청 내에는 '환경친화형 경기도청 만들기' 브로셔를 3천부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스크린 세이버를 환경국 컴퓨터에 설치

7) 기타 사업

- 이 시기에 현안문제에 대한 대응활동도 있었는데,
 - 2000년 11월에 경기도, 수원시, 안산시, 화성군 담당 공무원과 경기개발연구원,

언론인 등 16인과 함께 철보산 습지 현장방문과 그 보전방안에 대한 간담회 개최

- 2000년 12월에는 경기도 농정국의 요청에 따라 채석허가지 및 간선임도 설치 예정지에 대한 민관합동 실태조사 실시 및 간담회 개최
 - ▶ 안산, 화성, 가평 등 7개 기초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및 민간환경단체 관계자 참여

○ 또한 1999년 12월 환경부 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의제21 전국네트워크’ 모임에서 사무국을 담당함으로써, 전국의 지방의제21 추진기구들 간의 연계 및 발전에 큰 기여를 함

8) 의제 도입기 종합

○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가 처음 설립되고 처음으로 지방의제21을 작성한 이 시기는 작성된 의제를 홍보하고 기초의제와의 관계를 설정하며, 의제에서 지향하는 친환경적 지속가능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교육 및 토론회 등의 사업이 주를 이룸. 이는 처음 의제가 도입된 시점에서 앞으로의 발전을 준비하는 시기라 볼 수 있음

○ 하지만, 그러한 와중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시도하였는데, 민간단체 공모사업 및 학교 공모사업, 도내 청소년이 참여하는 생태탐사 활동 등은 향후 10년간 지속적으로 수행·발전되어 온 사업이라는 점에서, 이 시기는 향후 실천협의회 사업의 발전에 있어서 그 토대를 구축하는 시기였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반면, 이 시기는 지속가능발전에 있어서 사회복지 분야의 2개 의제를 제외하고는 모두 환경이라는 주제와 관련된 분야와 의제에 지나치게 치중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음. 그러나 애초 우리 사회에 지방의제21이 도입된 배경 등이 환경 이슈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볼 수 있음. 다

만, 향후 지속가능발전에 있어 필요한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이 포함되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하겠음

○ 이 시기는 ‘푸른경기21’과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가 도입·설립되는 시기였던 만큼 향후 개선되어야 할 부족한 면이 많이 발견되는데, 그 내용을 중요한 몇 가지만 추려 간략히 언급하면,

- ① 의제의 작성 과정에 행정과 시민들의 주체적 참여가 부족한 채 민간단체와 전문가 중심으로 이루어진 점
- ② 작성된 의제의 실천을 분야별 담당 단체에 위임하면서, 실천협의회 차원의 의제실천을 위한 집요한 노력이 부족한 점
- ③ 행정의 참여가 재정을 지원하는 것 이상의 주체적 참여 범위를 넘어서지 못한 점
- ④ 의제 실천의 주체가 되어야 할 분과위원회가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하여, 자체 토론회 및 워크숍 등을 개최하는 등의 역할에 머문 점
- ⑤ 교육 및 홍보 등이 도내 많은 시민들에게 전달되기보다는 일부 행정 및 민간 단체에만 국한되어 진행된 점 등
- ⑥ 의제의 내용이 ‘지속가능발전’의 총체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야 함에도 친환경적인 이슈들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는 점 등

○ 그러나 도입기라는 초보단계임에도 이 시기에 지속가능한 경기지역 발전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기여를 많이 하였는데, 그 중 중요한 몇 가지만 추려 간략히 언급하면,

- ① 경기도의 지방의제21인 ‘푸른경기21’을 작성하고 발표하였다는 점
- ② 친환경적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홍보 및 교육, 사업의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점
- ③ 작성된 의제를 실천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였다는 점(주관 단체 선정 및 분과위 구성 등)
- ④ 운영위원회와 사무국, 분과위원회 등 실천협의회 내부 조직체계를 구축하였

다는 점

- ⑤ 광역의제 실천기구인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와 기초의제와의 관계 설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다는 점
- ⑥ 경기도에서는 최초로 행정과 민간단체와의 매개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하였다는 점
- ⑦ ‘지방의제21 전국네트워크’ 결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으며, 1기 사무국을 유지하여 전국 지방의제21 확산 및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한 점

3. 제2기: 모색기- 의제실천사업 시도와 이슈의 확대(2001년~2003년)

○ 이전의 시기에는 ‘푸른경기21’을 작성하였으나 그 실천은 주로 의제별 담당 민간단체에 위임한 채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차원의 주요 활동과 관심사로 다루어지지 않았고, 의제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일상적 활동 영역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친환경적 이슈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음

○ 그러나, 제2기라 할 수 있는 이 시기는 작성된 의제를 실천하기 위한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차원의 의지와 노력이 시작된 시기라 볼 수 있고, 또한 활동과 관심의 범위가 환경을 넘어서 제반 사회정책 전반으로 확장되기 시작한 시기라는 점에서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가 경기도의 지속가능발전을 매개하고 추진하는 지방의제21 추진기구로서 자리를 잡아나가는 시기라 볼 수 있음

○ 또한 의제실천사업의 주요한 통로였던 공모사업에 있어서도 기존의 자유공모 형식을 뛰어넘어 지정공모를 통해 의제에 대한 직접적 실천사업을 보다 강화

1) 의제실천 사업

○ 이 시기가 이전 시기와 비교해 명시적으로 변화된 방향은 크게 세 가지인데, 그 중 한 가지는 작성된 의제에 대한 실천 의지와 사업의 내용에 있어 환경정책을 넘어 전반적 사회정책에 대한 관심표명을 회칙개정을 통해 표현한 것이고, 두 번째는 기존의 의제에 대한 재검토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것, 세 번째는 공모사업에 있어 자유공모의 내용을 줄이고 의제실천에 초점을 맞춘 지정공모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 의제실천사업에 대한 의지가 강화된 것은 2001년 정기총회의 안건을 통해 회칙 제3조(사업)의 내용 중 제4호에 “푸른경기21’의 실천사업 추진 및 평가’를 삽입하면서 공식화되었는데, 이는 그전부터 이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에 따른 결과임

○ 기존 의제에 대한 재검토 작업은 2002년도에 각 의제에서 애초 설정한 지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조사·연구사업 진행을 통해 이루어짐

- 이 연구사업은 외부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어 시행
- 또한 이 조사·연구사업에서는 ‘푸른경기21’의 현실적 지표 수정에 대한 제안도 포함됨

○ 이 조사·연구 결과에 의하면, 전체의제 21개 중 실제로 측정 가능한 지표는 10개로 나타남. 이는 최초로 작성된 ‘푸른경기21’이 실제적 실천과제 중심으로 작성되지 못하였음을 드러내는 연구결과라 볼 수 있음

-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의제지표의 수정 또는 의제 재작성 필요성이 제기됨

○ 또한 직간접적으로 지표의 달성 정도를 파악한 바에 따르면, 대다수 의제가 목표치로 설정한 지표달성 정도를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이는 그 동안의 실천협의회 활동에서 의제의 지표 달성에 대한 고려와 의지가 부족한 결과라 볼 수 있음

- 그러나 이는 애초 '푸른경기21' 실천전략 속에서 이미 노정되어 있었던 결과라 할 수 있는 바, 시범적 추진지역을 설정하고 그 실천을 주관 민간단체에서 담당하도록 위임함으로써 경기도 전체의 지표달성을 처음부터 상정하지 않았었기 때문
- 또한 시범 추진지역의 실천을 토대로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할 조직적 실천전략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도 않았음
- 그리고 시범적 추진지역에서도 관련 지표의 달성 정도를 확인하려는 노력이 부족했음

○ 이러한 조사·연구결과에 영향을 받아 2002년부터는 각 분과들에서 경기의제인 '푸른경기21'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을 전개하는 변화를 보임

- 자연생태분과:
 - ▶ 2002년: 습지탐방 및 의제지표 평가 워크숍 시행
 - ▶ 2003년: 내륙습지 모니터링 학교 3회 운영, 경기지역 내륙습지정책 모니터링 사업, 비무장지대 환경탐사 등
- 생활환경분과:
 - ▶ 2002년: 쓰레기 감량화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상품 전과정 모니터링 시행, 녹색구매 의제만들기 워크숍
 - ▶ 2003년: ZERO WASTE 경기도 만들기 토론회, 경기지역 재활용·재사용정책 모니터링 사업, 대형유통업체 1회용품 안 쓰기 캠페인 사업 추진, 2003 쓰레기 없는 연말 보내기 캠페인 및 실태조사, 폐컴퓨터 재사용·재활용 캠페인 등

○ 이 시기에는 교류협력분과와 여성분과가 신설되었는데, 특히 여성분과의 경

우에는 아직 이와 관련한 의제가 작성되지 않았음에도 '지속가능하고 성 평등한 지방의제21'이라는 주제로 경기도 공보육 체계 확대 구축을 위한 사업과 양성평등 의식 확산 워크숍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등으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

○ 이 시기 의제실천사업의 내용을 종합하면, '푸른경기21'이 설정한 지표에 대한 모니터링과 지표 수정, 그리고 의제의 내용을 보다 실천적인 것으로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진 시기라 볼 수 있음. 따라서 이 시기는 이후 의제 재작성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실천사업으로의 변화를 모색하는 시기라 할 수 있음

2) 공모를 통한 실천사업

○ 공모를 통한 실천사업 지원은 크게 민간단체 실천사업과 학교 실천사업으로 나뉘는데, 이는 실천협의회 초기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 그러나 이전 시기와 비교해 달라진 점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제실천에 초점을 맞춘 지정공모가 이 시기부터 강화되었다는 것

- 초기 민간단체에 대한 공모사업은 주로 민간단체의 참여를 독려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으나, 이 시기 이후부터는 의제 실천의 수단으로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

○ 공모를 통한 실천사업의 연도별 지원 단체 수와 금액을 비교하면, 아래의 <표 II-3>과 같음

<표 II-3> 모색기 공모사업을 통한 지원 단체 수와 지원 금액

연도	종류	지원 단체 및 학교 수	총 지원금액
2001	민간단체 실천사업	32개 단체	2억3천여만 원
	학교 실천사업	12개 학교	2천7백여만 원
2002	민간단체 실천사업	19개 단체	1억3천만 원
	학교 실천사업	15개 학교	4천5백만 원
2003	민간단체 실천사업	23개 단체	1억7천만 원
	학교 실천사업	19개 학교	6천만 원

○ 이 시기의 민간단체 실천사업 지원 단체 수 및 지원 예산이 2002년도부터 대폭 줄어들었음을 확인 할 수 있는바, 이는 2002년부터 의제실천사업이 조금씩 시도되고 있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 즉, 기존에는 실천사업이 주로 공모를 통해 수행되었으나, 2002년부터는 직접적 의제실천사업에 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서 상대적으로 공모를 통한 민간단체 실천사업의 비중이 줄어들

○ 이 시기 공모를 통한 민간단체 실천사업에 있어 특이한 사업이 편성되었는데, 그것은 기초의제 추진기구가 연대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사업에 대하여 1천만 원을 지원한 것

- 이는 광역의제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기초의제와의 긴밀한 연계 및 기초의제를 통한 실천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한 것
- 그러나 이 사업은 2001년도에 한해 실시되었으며, 그 이후에는 일상적 실천사업을 통해 기초의제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이 설정됨

○ 이와는 달리 학교 실천사업은 고유한 사업으로 자리를 잡아가며 그 비중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음

○ 2002년에는 이 공모사업을 통해 1개 민간단체와 1개 학교 연대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해 선진지 연수 프로그램 명목으로 2천5백만 원을 지원하기도 함

- 2002년 5월에 유럽, 8월에 홍콩과 대만 연수 지원

○ 이 시기 공모사업을 통한 실천사업의 내용을 요약하면, 학교 실천사업의 발전적 지속과 달리 민간단체 실천사업의 경우에는 의제실천을 위한 실천활동의 확장으로 자체 규모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고 할 수 있음. 이는 이후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의 실천사업이 의제지표 달성을 위한 실천사업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에 있음을 의미

3) 의제 지표 평가사업

○ 이 시기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기획사업의 특징 중 하나는, 앞서 의제 실천사업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푸른경기21' 지표에 대한 평가작업이 추진되었다는 것

○ 이 사업은 2001년 후반기부터 '푸른경기21 중장기계획 기획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는데, 이 사업에는 의제지표평가사업과 실천협의회의 조직비전 마련을 위한 중장기계획사업이 포함됨. 또한 기존에 작성된 8개 분야 21개 의제로 구성된 '푸른경기21'의 수정보완 작업까지 포함된 사업

- 이를 위해 2001년 8월 말 환경·도시계획·경제·지방의제21 전문가 및 실천협의회 분과 총무 등 20여명으로 중장기계획 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회의 및 워크숍 등을 진행

○ 2002년에는 의제지표 평가사업을 수행하였고,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활성화 및 장기비전 전략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

- 2001년에 「'푸른경기21' 의제 지표 평가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2002년 3월에 발간
- 이 연구사업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8개 분야 21개 의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그 결과를 의제지표 평가 워크숍(2003.1.28)에서 논의하여 실천사업과 연

계된 의제지표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과, 기존 8개분야 21개 의제의 재편과 여성 의제 신규 작성, 미군기지 문제 등에 대한 의제가 제안됨

- 이 조사결과는 결국 기존에 작성된 '푸른경기21'의 지표 및 의제 자체의 수정을 위한 논의의 근거로 작용하였으며, 향후 의제 재작성으로까지 발전하는 계기가 됨
- 또한 2002년 11월에 개최된 실천협의회 활성화 및 장기비전 전략 마련을 위한 토론에서는 지방의제21의 정체성, 실천협의회 조직개편 및 사업방향, 광역·기초의제·NGO의 연계성 등에 대한 발제와 토론을 진행

○ 이 중장기계획사업에는 경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CSD) 구성과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와의 관계설정에 대한 내용도 포함

- 2002년 5월 경기지역 기초의제 추진기구 관계자와 도내 NGO 관계자, 환경 담당 공무원 등이 참여하여 '경기 CSD 구성 및 푸른경기21 활성화 워크숍'을 개최. 이 자리에서는 경기 CSD 구성에 합의하였고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와의 관계를 정립
- 2003년 4월에는 '경기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경기 CSD 설치에 대한 합의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으며, 각론으로 도지사 직속기구화, 자문 뿐 아니라 심의 기능 첨부,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에 사무국 설치 등을 제안

○ 이 시기에는 정례적인 기획사업과 공모사업 이외에 가장 많은 역량이 기존 의제지표를 평가하고 이에 조응한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조직 및 활동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와 연구에 투입됨. 이는 이 시기가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의 질적 발전을 모색하는 단계에 있음을 의미

4) 분과 실천사업

○ 이 시기에는 각 분과의 활동도 정착되어 가는 시기라 볼 수 있음. 그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이전 시기와 달리 각 분과의 활동이 의제지표 달성과 직접 연관된 사업 이외에도 구체적인 실천사업 위주로 진행되었기 때문

○ 이 시기, 각 분과들의 사업 중 앞서 소개한 의제 지표 관련 실천활동과 직접 연관되지 않은 사업들만 추려서 나열해 보면,

- 자연생태분과:
 - ▶ 2001년: 경기도 환경 주요지역 투어링·워크숍, 셋강 살리기 지침서 만들기를 위한 워크숍
 - ▶ 2003년: '생태이동통로 조성방안을 위한 워크숍' 등 개최
- 생활환경분과:
 - ▶ 2001년: 경기지역 환경기초시설 실태점검을 위한 투어링 워크숍, 기초자치단체 환경관리 실태조사 및 워크숍
 - ▶ 2002년: 쓰레기 소각장·매립장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 경기지역 환경교육 네트워크를 위한 워크숍
 - ▶ 2003년: 경안천 생태탐사
- 시민사회분과:
 - ▶ 2001년: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워크숍, 경기 기초자치단체 시정평가사업
 - ▶ 2002년: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워크숍, 경기지역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 ▶ 2003년: 경기지역 도시정책의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토론회, 경기도 및 기초지자체 도시정책 모니터링 사업, 도내 주민자치센터 모니터링 사업,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워크숍

○ 이 시기는 처음으로 여성분과가 설립되어 활동을 시작한 시기로, 2002년에는 크게 두 차례의 포럼을 진행하였고, 2003년에는 다양한 실천사업과 워크숍이 개최되는 등 빠른 시간 안에 활성화됨

- 2002년 8월에는 여성분과 준비위원회 출범기념 포럼을 개최하여, 지방의제21의 여성 참여 현황 점검 및 참여확대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 2002년 12월에는 지역순회 여성포럼인 '지방의제21과 여성-여성참여현실과 개선방안 논의'를 두 차례에 걸쳐 개최
- 2003년에는 경기도 공보육 체계 확대 구축을 위한 사업 차원에서 보육 관련 두 차례의 모니터링 실시와 보육 관련 세 차례의 세미나를 개최하여 그 결과물로 「경기도 영유아 및 아동 보육 조례안」을 마련하여 10월에 경기도 의회에 제출
- 2003년에는 이외에도 두 차례의 워크숍을 개최하였는데, 7월에는 1박2일로 '양성평등 의식 확산 워크숍'을, 11월에는 '지속가능하고 성 평등한 지방의제21 워크숍'을 각각 개최

○ 이 시기의 분과사업은 의제 지표 달성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실천사업들을 주축으로 실천되었다는 점에서 이전 시기에 비해 분과의 활동내용이 정확·발전된 시기라 할 수 있음. 특히 여성분과가 새로이 신설되었음에도 빠른 시간 안에 활성화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음. 하지만, 다른 분과들과 달리 시민사회분과의 경우에는 의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실천사업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의제와 분과사업의 연관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5) 교육 및 토론회 등

- 이 시기는 의제지표의 평가와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의 중장기발전전략을 모색하는 시기였던 만큼 다양한 주제의 토론회, 워크숍이 활성화된 시기라 할 수 있으며, 교육 관련 사업도 이전 시기에 비해 많이 활성화 됨
- 환경교육사업은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초창기부터 중요하게 기획·실천된 사업으로, 앞서 언급한 공모를 통한 '학교실천사업'을 포함하여, 환경대탐사 등이 정기적으로 실행됨

- 환경대탐사의 경우 2000년부터 시작되어 이 시기에도 매년 지속적으로 개최됨
- 제2회(2001.7.23~27): 중·고·대학생 및 일반인 약 100명이 참여하여 한탄강부터 수원까지 경기도 일대 강·하천·호수 탐사
- 제3회(2002.7.23~26): 중·고·대학생 약 100명이 참석하여 명지산에서 팔당댐 및 경안습지 등을 거쳐 에버랜드 호암미술관에서 해산
- 제4회(2003.7.22~25): 도내 중학생~대학생 약 350명 포함 총 390여명이 연천, 성남, 평택, 군포, 안산 등을 거치며 환경체험

○ 또한 이 시기에는 NGO와 GO가 함께 참여하는 어울 한마당이 처음으로 개최되었고, 이후 지속 사업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됨

- 2001년 10월12~13일, 경기도 NGO 관계자와 환경담당 공무원, 기초의제 추진기구 관계자 등 3백여 명이 참여한 '경기 NGO·GO 환경 한마당'이 기조강연, 분과 토의, 대동놀이, 평가모임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고 공동선언문 채택
- 2002년 11월15일~16일, 남한강 연수원에서 도내 NGO, 기업인, 기초의제 관계자 등 160여 명이 참여하여 '지속가능한 경기도를 위한 2002년 어울 한마당' 개최. 이 한마당에서는 여성, 폐기물, 공단, 주민자치 등 4개 분야가 세션별로 진행된 후 민관 공동선언문 발표
- 2003년 11월25~26일, 이천 유네스코 문화원에서 공무원 및 NGO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여하여 '지속가능한 경기도를 위한 2002년 어울 한마당' 개최. 여기에서는 자연생태, 생활환경, 도시사회, 여성 분야 경기 정책 및 의제지표 모니터링 결과 분석 발표, 민관 공동 경기환경 및 사회정책 비전 제시 등이 진행됨
- 어울 한마당은 매년 민간단체 관계자와 공무원, 의제 실천기구 관계자 등이 참여함으로써 민관협력에 기반한 거버넌스 기구로서의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위상 및 실천과제 등을 논의하는 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

가 있으며, 그 내용 또한 점차로 '푸른경기21'의 내용을 모니터링 하고 실천과제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구체화되는 발전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역시 의의가 큼

○ 이외에도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의 중장기 발전전략과 관련된 토론회, 경기 CSD 구성과 관련한 토론회 등이 여러 차례 개최되어, 실천협의회 위원들을 포함하여 공무원, 기초의제 추진기구 관련자 등이 참여하여 의견들을 개진하고 이를 수렴하는 과정을 거침

○ 특히, 2003년에는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차원의 다양한 교육 및 토론회 등이 '경기 정책 포럼'이라는 사업으로 수렴되어 보다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등으로 활성화됨. 또한 '경기 정책 포럼'이 활성화되면서 경기도 지역의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토론회 등도 활성화됨

○ '경기정책 포럼'을 포함하여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전체 차원에서 진행되는 교육 및 토론 사업 등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 2001년: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관리방안 토론회, 화옹호 대책마련을 위한 현장투어 및 워크숍
- 2002년: '지방의제21과 WSSD' 정책포럼, 통합적 하천관리 방안과 주민참여 활성화 토론회, 팔당지역 오염총량제 도입과 주민지원사업 개선안 토론회
- 2003년: 경기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위한 1~2차 간담회, 희망을 만드는 시화호 만들기 정책 워크숍, 경기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효율적 운영을 위한 토론회, 경기 환경교육의 현황 공유 및 발전방안 모색 토론회, 공모사업 정책 간담회, 지속가능한 생산·소비를 위한 녹색구매 지표만들기 토론회, 한강하구 보전방안 모색토론회(고양의제21, 파주의제21, 김포의제21, 녹색연합,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공동주최)

○ 국제교류 사업과 관련하여, 해외 선진지 연수와 국제대회 참여 활동을 진행

하였는데, 해외연수와 관련해서는,

- 2001년에 기초의제 추진기구와 연계하여 활동하고 있는 NGO 담당자 및 담당 공무원 등이 호주와 뉴질랜드를 두 팀으로 나누어 각각 6월과 7월에 다녀왔으며, 9월에는 기초의제 추진기구와 연계하여 활동하고 있는 NGO 담당자 및 담당 공무원 등과 함께 필리핀을 다녀옴
 - ▶ 호주와 뉴질랜드 연수의 경우에는 현지 지방의제21 관련기구 방문과 친환경적 우수 및 오수관리 체계 견학, 시드니 바이센테니얼 도심공원 및 왕립 식물공원 견학, 캔버라시 도시계획 견학, 질롱 폐기물 재활용센터 방문, 국제환경지자체협의회 등 방문
 - ▶ 필리핀 연수에서는 필리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방문, 도시빈민 집단이주시설 방문, 그린피스와 가이아 등 환경단체 방문, 토양과 물 보호재단 및 환경구조센터 등 견학
- 2003년도에도 두 차례의 해외연수를 실시하였는데, 도내 기초의제 추진기구 관계자 및 공무원 등이 2차로 나누어 각각 17명씩 인도와 태국을 다녀왔으며,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에서 주관하는 마을의제21 일본연수단에 3명을 파견

○ 2002년에는 해외 선진지 연수 대신 WSSD(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에 경기지역 참가단 25명이 참여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방의제21의 역할 논의, 세계 NGO 주최 각종 포럼 및 워크숍 참가, 정부대표정상회의의 참관 등을 실시

○ 이 시기 교육 등의 사업을 요약하면, 환경교육사업이 다양한 방법으로 양적 성장을 하였을 뿐 아니라, 일반 교육 및 토론회 등의 사업도 2003년 '경기정책 포럼' 개설과 더불어 양적으로 상당한 성장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음. 특히, 이러한 양적 성장과 더불어 현안에 대한 정책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등 다양한 주제와 관심들이 교육 및 토론회라는 틀을 통해 이루어짐으로써 질적인 면에서도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6) 기초의제와의 네트워크 사업

○ 이 시기가 이전 시기와 구분되는 또 하나의 뚜렷한 특징 중 하나는 경기지역 기초의제와의 긴밀한 관계설정이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는 것. 이는 회칙의 변화에서도 잘 나타나는 바, 2000년에 설립된 '교류협력특별위원회'는 2001년에 정식 분과 중의 하나인 '교류협력분과'로 자리를 잡았으며, 2002년에는 회칙에서 별도의 조문을 분리하여 '기초의제협의회'를 두었고 2003년에는 '교류협력위원회'를 역시 회칙에서 별도 규정함으로써 그 위상을 강화함

○ 교류협력특별위원회는 일시적 조직체계였으나 교류협력분과는 안정화된 분과로의 조직위상을 갖추었으므로 안정적 활동체계로 그 위상이 강화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기초의제 국장들이 참여

○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는 광역의제 추진기구로서의 위상을 가지므로, 특히 기초의제 추진기구와의 긴밀한 협력과 연계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항상 여겨졌으며, 이를 위해 2001년에는 기초의제 추진기구 간 연대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1천만원의 지원하기도 함

○ 2001년에는 기초의제 추진기구 운영위원장과의 간담회를 세 차례 가져, 이전 시기보다 더욱 활발한 모임을 가짐. 그러나 이 시기에는 단순한 간담회 차원의 연계를 넘어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에서 주최하는 '경기 기초의제 실무자 연수 및 평가지표개발을 위한 워크숍'을 2001년 9월에 개최함으로써 그 연계성을 더욱 강화함

○ 또한 2002년에도 '기초의제협의회'가 회칙에서 별도로 규정되어, 기초의제 추진기구 대표자 회의로서의 성격을 지니도록 함. 교류협력분과가 기초의제

협의회로 변화된 데에는 기초의제와의 협력사업이 다 분과와 차별적 특성을 갖고 있으며, 기초의제라는 실체와 보다 긴밀한 연계를 맺어야 할 필요성과 더불어 기초의제를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의 주요한 주체로 설정한다는 점을 실제적으로 강조하기 위함

- 이를 위해 기초의제협의회의 참여범위를 확대하였는데, 기존의 기초의제 사무국장에서 기초의제 사무국에서 추천하는 일부 위원들까지로 범위를 확대

○ 또한 기초의제협의회로의 변화와 더불어 협의회 대표 2인을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회칙을 개정함으로써 그 위상을 강화함. 이러한 위상 강화로 인해 기초의제의 활성화를 꾀함

- 기초의제 추진기구 운영위원장과의 간담회를 두 차례 개최하였을 뿐 아니라 기초의제 추진기구 실무자들과의 모임도 개최하였고, 기초의제 추진기구 사무국장들이 참여하는 '경기 지방의제21 활성화를 위한 광역·기초의제 집행책임자 간담회'를 통해 공동으로 교류협력사업과 경기 CSD 추진방안을 논의함

○ 이러한 연계의 발전은 2003년 교류협력위원회가 정착하면서 더욱 활성화됨. 기초의제협의회가 교류협력위원회로 다시 그 명칭이 변화된 것은 '협의회'라는 특성상 독자적인 활동을 전개하려는 경향이 보임에 따라, 기초의제와 실천협의회의 보다 긴밀한 연계를 강화하는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2003년에는 이러한 조직체계 변화를 바탕으로 기초의제 관계자 연수와 기초의제 사무국장단 워크숍 등이 추진되었고, 운영위원장들과의 간담회도 두 차례 개최되는 등의 활발한 활동을 전개

○ 이 시기에 이렇듯 기초의제와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조직체계의 변화가 매년 있게 된 데에는 무엇보다도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와 기초의제와의 연관성을 강화하고, 기초의제가 실천협의회의 주요한 파트너라는 위상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음

7) 홍보사업

○ 2001년부터 2003년까지의 기간 동안 소식지를 14회 발간하였으며(2001년 2회, 2002년 8회, 2003년 4회), 각 1천부 가량을 제작하여 실천협의회 위원과 전국의 지방의제21 추진기구, 도내 기초자치단체 지방의제21 추진기구 사무국, 도내 민간환경단체 등에 배포. 이는 이전 시기부터 시작된 것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임

- 그러나 각 연도마다 발간 횟수가 다른 등 정기적 소식지로서의 기능은 아직 정착되지 않음

○ 이 시기 3년 동안 매년 달력을 제작하여 기초자치단체 및 도의회, NGO, 환경관련 시설 등에 배포하였으나, 이는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차원이 아닌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와 공동으로 수행한 사업

○ 그밖에 매년 민간단체 실천사업 총괄보고서와 학교실천사업 총괄보고서를 제작하여 위원 및 경기도, 경기도 의회, 실천사업 주관학교, 도내 민간환경단체, 전국지방의제21 추진기구 등에 배포하였으며, 해외 선진지 연수 보고서 역시 제작하여 배포

○ 2002년 2월 경에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푸른경기21' 추진기구 및 활동소개, 경기 자연생태계 환경현황 및 사진 등을 수록하였으며, 2003년에는 이 기능을 보다 확대하여 분과별 게시판 기능과 자료실 기능 활성화, 도내 기초의제 추진기구 간 네트워크 기능 포함, 영문 홈페이지 제작, 소식지 매호 웹페이지화 등을 구현

○ 이전 시기와 비교하여 이 시기에는 홍보활동도 대폭 강화되었는데, 비록 정

기성까지 갖추지는 못했지만, 소식지의 발간 횟수가 늘어났고, 홈페이지가 확대 개편됨으로써 일상적으로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활동에 대한 홍보 및 정보 교류가 원활해 짐

8) 기타 사업

○ 이 시기 기타 사업으로는 지방의제21과 관련한 각종 학술대회 및 토론회 등을 후원 또는 참가한 활동을 들 수 있는데,

- 2001년에는 국제정치학회의 '제6차 한국정치세계학술대회'를 후원하고 참여하여 환경과 정치 및 지방의제21 사업 등에 관하여 토론하였으며,

- 2002년에는 한국NGO학회에서 주최한 '지방화시대와 NGO·언론의 역할'을 후원하기도 함

9) 모색기 종합

○ 이 시기는 몇 가지 점에서 그 이전 시기와 비교해 발전된 모습을 보이는 바, 가장 큰 변화는 이전 시기에 작성된 '푸른경기21'을 실천하고 그 지표의 적절성 등을 모니터링 하는 사업들이 다수 배치되어 수행되었다는 것과 그 관심 영역이 환경적 이슈를 넘어선 사회정책 전반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였다는 것

○ 또한 이 시기는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와 각 기초 지방의제 실천기구와의 긴밀한 관계 설정과 역할분담 등이 활발히 논의·시도된 시기이기도 함. 이는 광역의제 실천기구로서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의 구체적 위상과 활동의 내용 정립에 있어 매우 중요

○ 조직체계에 있어서도 이 시기는 실천협의회의 활동기반이 안정화된 시기라 볼 수 있는데, 사무국이 사무처로 승격되어 보다 많은 권한을 통해 안정적 실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고, 위원들의 수도 2001년 회칙개정을 통해 기존 10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됨. 또한 교류협력위원회(2001)와 여성분과(2002)가 신설되어 보다 다양한 활동을 위한 체계를 구축함

○ 그리고 이 시기에는 경기도 현안에 대한 중재 및 대안모색 등을 위한 대응이 활발히 이루어진 시기이기도 함. 이는 특히 2003년도 경기도 환경정책 포럼을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에서 주관하기 시작하면서 더욱 활성화 됨

○ 따라서 이 시기는 경기도의 지속가능발전을 매개하고 추진하는 지방의제21 실천기구로서의 위상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간 시기라 볼 수 있음

○ 이렇듯 이전 시기에 비해 지방의제21 추진기구로서의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활동이 양적 질적으로 많은 발전을 거듭하였으나, 모색기라는 시기 구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몇 가지 점에서는 아직 아쉬운 점이 드러나는데,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① 이전 시기에 비해 ‘푸른경기21’ 실천사업이 활성화되었으나, 아직 그 실천이 주요한 일상사업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했다는 점. 이는 각 의제 지표달성의 명확한 주체가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조직구조 내에 수렴되어 있지 못하였기 때문
- ② 의제작성 과정의 구조적 문제점이기는 하지만, 도민들이 참여하는 의제실천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함으로 인해, 도민들의 참여 기회가 크게 확장되지 못한 점
- ③ 분과들의 사업들이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차원에서 통일성을 견지하지 못한 채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그로 인해 각 분과 활동에 있어 활성화 정도가 차별적으로 드러남
- ④ 지난 시기에 이어 이 시기에서도 행정의 재정지원 이외에 주체로서의 참여가 부족했다는 점
- ⑤ 총회 회칙 개정을 통해 환경 이외의 사회정책 전반의 지속가능발전을 선언하

였지만, 아직 실천적으로 환경 이슈에 주로 국한되어 있었다는 점 등

○ 그러나 이 시기는 제2기인 도입기에 비해 많은 활동과 조직체계가 안정화되어 간 시기라 볼 수 있음. 이 시기 이러한 긍정적 변화의 내용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요약하여 언급해 보면,

- ① 이전 시기에 작성된 ‘푸른경기21’을 실천하기 위한 활동이 주요한 활동내용으로 점차 자리잡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이는 공모를 통한 민간단체 지원사업에 투입된 예산이 줄어들고 그 대신 의제실천사업으로 전환된 것에서 구체적으로 확인 가능
- ② 의제 지표 개선 및 의제수정을 위한 모니터링 및 평가작업이 이루어진 점
- ③ 중장기계획 기획사업을 통해 의제지표 개선 방안뿐만 아니라, <경기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립과 위상 및 역할, 그리고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와의 관계에 관한 논의를 주도하는 등 경기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 ④ 사무국이 사무처로 확대개편됨으로써 의제실천을 위한 내적 실무력을 강화한 점
- ⑤ 기초의제와의 긴밀한 관계를 위하여 교류협력특별위원회가 교류협력분과로, 교류협력분과가 기초의제협의회로, 이것이 다시 교류협력위원회로 그 위상과 역할이 점차 증대된 점
- ⑥ ‘경기정책포럼’이라는 틀을 만들어 다양한 주제의 토론회와 워크숍, 현안 대응활동 등을 전개한 점. 이는 의제실천기구의 정책적 대안 및 민과 관의 중재기능 등 고유한 활동 영역도 점차로 활성화되고 있음을 의미
- ⑦ 도내 민간단체와 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어울 한마당’이 정기적인 행사로 자리잡은 점 등

4. 제3기: 과도기 - 의제의 재작성 및 실천사업 정착기(2004년~2006년)

○ 이 시기를 특징짓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무엇보다도 의제 재작성을 통해 측정 가능한 의제와 지표를 개발하고 선포했으며, 이후 작성된 의제의 실천을 주요한 활동의 내용으로 삼기 시작했다는 것

○ 또한 의제의 관심 영역에 있어서도 환경 이슈를 뛰어 넘어 본격적으로 주민 자치 및 도시계획, 사회복지, 여성, 문화 등의 제반 사회정책 이슈를 자신의 활동 영역으로 삼아 실천을 주도해 온 시기라 볼 수 있음

○ 그밖에 기초의제 추진기구와의 관계도 일정 정도 그 위상과 역할이 정립되었으며,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활동체계를 변화시키는 등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가 명실상부한 경기도의 의제추진기구로서 자기 위상과 역할을 찾아 나간 나간 시기라 볼 수 있음

○ 이러한 변화·발전의 과정을 과도기라 설정한 이유는 이 시기의 준비를 통해 다음 시기에는 앞서 언급한 내용들이 실질적인 활동내용으로 정착되었기 때문

1) 의제 재작성

○ 변화된 현실에 맞도록 ‘푸른경기21’을 재작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지난 시기의 의제지표 평가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됨. 또한, 대다수의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에서 지방의제21과 그 추진기구들이 활동을 시작하면서 광역과 기초추진기구 간의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그에 걸맞는 광역의제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 역시 의제재작성의 필요성을 절박하게 하였음

○ 이에 2004년 3월에 2박3일간 ‘경기의제 재작성을 위한 사전 워크숍’을 통해 경기도 환경정책과 지방의제21, 지방의제21과 푸른경기21 중장기 발전방향을 토의하였고, 동년 4월에는 경기도의제21 재작성을 위한 1차 총괄 워크숍을 통해 ‘푸른경기21’ 평가 및 재작성 방향과 추진계획을 논의하고 분야별 모임을 가짐

○ 의제 재작성은 2004년부터 2005년, 2년에 걸쳐 이루어 짐. 그 현황은, <표 II-4·5>와 같음

<표 II-4> 연도별 ‘경기의제21’ 작성 현황

의제 재작성 시기	재작성 된 의제
2004년	산림 및 녹지, 습지, 하천, 폐기물, 도시계획, 주민자치, 성평등, 보육 / 총 8개
2005년	농업,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에너지, 사회복지, 문화의제 / 총 5개
재작성된 의제 개수	총 13개

<표 II-5> ‘경기의제21’ 의제명과 지표

의제 분야	의제명	의제지표
산림녹지	자연과 인간의 안식처, 숲과 공원을 지키고 만들어 나간다	1인당 도시공원 면적
		1인당 산림 면적
습지	자연의 보물 습지 찾기	습지 보존지역의 지정 수와 면적
수질·하천	어린이들이 물장구 치며 놀 수 있는 하천 만들기	하천의 종다양성
폐기물	생명과 환경을 위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고 재사용하기	1인당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도시계획	주민이 만들어 가는 도시계획	도시계획에서의 시민 참여 평가지수
주민자치	주민들이 가꾸는 살기좋은 마을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평가지수
성평등	다른 모습 같은 생각 - 양성 평등, 더 살기좋은 경기도	성평등 교육 시행지수
보육	아이들의 함박웃음이 피어나는 경기도	국공립 보육시설 시설운영위원회 설치율
농업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경기도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다함께 실천하는 녹색살림	친환경상품 구매율 및 자치단체 녹색구매 조례 제(개)정 수
에너지	지구 생명과 미래를 위한 에너지,	인구 1인당 비산업용 에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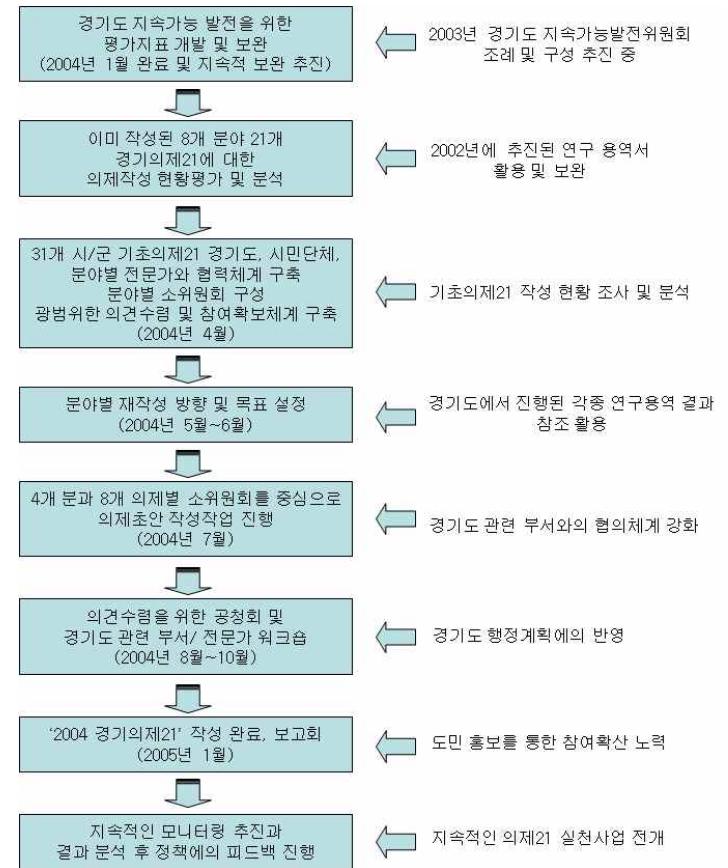
	아껴쓰기와 자연에너지로 바꾸기	사용량(비산업: 가정, 수송, 건물, 공공부문)
사회복지	주민참여로 만드는 복지세상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만들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동 평가지수
문화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경기	문화 예술 소모임 수

○ 지난 의제에 비해 이렇듯 의제의 절대 개수가 줄어든 것은 의제를 선언적인 것이 아니라 실천력을 담보한 실질적인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 즉 구체적으로 실천 가능한 의제를 선정하여, 그에 대한 실천을 책임 있게 담보하는 것이 의제로서의 위상에 적절하다는 판단을 하였기 때문

○ 의제의 재작성은 총괄위원회를 중심으로 분과위원회, 의제별 작성팀, 실무기획위원회, 의제 재작성 자문단을 구성하여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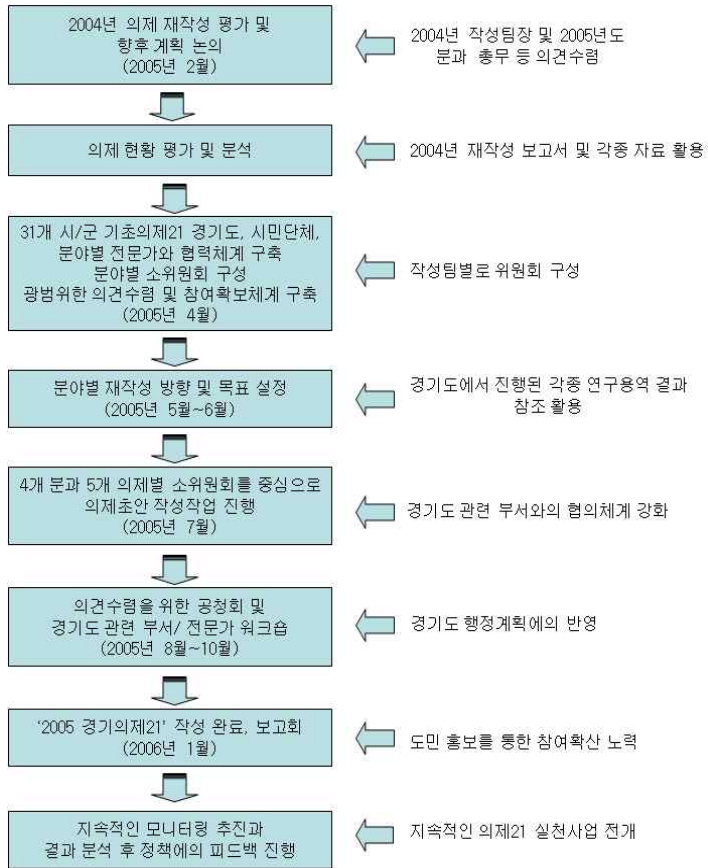
- 총괄위원회는 재작성 사업 2개년 계획을 수립·검토·조정하는 역할 등을 통해 재작성 사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 이 위원회는 의제별 작성팀장과 작성팀 추천 전문가 및 관련 단체 활동가 1~2인, 경기도 관련 부서 과장 등으로 구성
- 분과위원회는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내에 일상활동을 위해 구성된 기존 4개 분과를 의미하며, 각 분과를 중심으로 재작성 의제 분야 및 작성의제를 선정하는 역할 수행
- 의제별 작성팀은 재작성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단위로, 관련 분야 전문가와 관련 단체 활동가, 경기도 관련 부서 과장, 도의원, 언론, 기업 관련자 등 5~10명으로 구성
- 실무기획위원회는 재작성 사업 총괄 추진을 위한 실무기획과 집행 점검 활동을 수행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작성팀장과 각 분과 총무, 총괄위원회 추천 활동가 1~2인,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사무처장 등 10인 내외로 구성
- 의제 재작성 자문단은 재작성 사업 과정에 대한 이해 관련자 및 주요 그룹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주요 9개 그룹을 고려하여 재작성될 의제 관련 자문단을 구성하였고 기초의제의 관련 분야 위원 중 일부를 선임

○ 의제 재작성 과정을 그림으로 간략히 설명하면,



* 자료: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2006.1 에서 인용

<그림 II-2 > 2004년 '경기의제21' 작성 과정



* 자료: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2006.1 에서 인용

<그림 11-3> 2005년 '경기의제21' 작성 과정

- 의제 재작성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했던 사항들을 살펴보면,
 - 환경, 경제, 사회적 측면이 통합적으로 고려된 접근을 하여 의제를 수립한다.
 - 재작성 사업 추진과정을 포함하여 지표설정 및 모니터링 계획 등에 성평등 관점을 견지해야 한다.
 -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비전을 생생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 경기도 각 주요그룹의 의견이 반영되고 지역주민과의 협의가 있어야 한다.
- 경기도 각종 계획을 바탕으로 한 장기목표가 있어야 한다.
- 관련 부서의 행정계획이 반영된 행동계획과 달성목표가 있어야 한다.
-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와 추진체계를 제시해야 한다.
- 주민참여 역량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한 모니터링 추진계획과 도민 실천사업 추진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 위에서 소개한 고려사항들을 살펴봐도 알 수 있듯이, 이 시기 의제의 재작성은 도민의 의견을 의제의 내용에 반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직접 참여하여 실천할 수 있으며, 도민이 직접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정량화된 지표를 중심으로 작성하고자 노력하였고, 구체적인 모니터링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음

○ 이는 앞서 작성된 '푸른경기21'이 관련 단체의 공모를 통해 작성하도록 한 문제점을 극복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차원에서 직접 의제를 작성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경기도 전체의 비전과 구체적 실천 및 모니터링 지표를 담았다는 점에서 보다 진일보한 의제라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도민들을 대상으로 의제 명칭을 공모하는 등 도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려 노력하였으나, 실제 도민들의 참여는 잘 이루어지지 않음. 이는 경기의제 자체가 광역의제라는 특성으로 인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만한 통로나 관심이 크지 않기 때문.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정책적 방향이 고민될 필요 있음

2) 분야별 의제 실천사업

○ 이 시기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가 실천가능성을 고려한 지표를 통해 의제를 재작성한 것이라면,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그 실천사업이 각 분과의 일

상활동 등을 통해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의 중요한 활동으로 자리잡기 시작했다는 것

○ 의제실천사업은 기본적으로 작성된 의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표에 근거한 목표치 달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모니터링과 의제 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사업으로 나뉜

○ 2004년도에 작성된 8개 의제에 대해서는 그 실천사업이 그 다음 해인 2005년부터 바로 시작되었으며, 2005년도에 작성된 나머지 5개 의제에 대한 실천사업은 그 다음 해인 2006년부터 시작됨

- 의제 재작성 이후 첫 해의 사업은 주로 의제에서 제시한 지표 상 첫 기준을 잡는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 이 시기 각 의제별 지표치 상승을 위한 실천사업의 현황을 정리하면,

<표 11-6> 과도기 의제실천위원회 별 실천사업 내용

의제 분야	연도	실천사업 내용	담당 분과
산림녹지	2005	▶ 도심숲(학교숲) 현황조사 모니터링(공모사업)	
	2006	-	
습지	2005	내륙습지 목록작성과 모니터링(공모사업)	자연생태 분과
	2006	▶ 습지 관련 교재 제작·배포 (이하, 공모사업과 연계) ▶ 고간 습지 금개구리 집단 서식지 보존운동 ▶ 평택호 살리기 네트워크 확대 및 공동 시민참여 프로그램 ▶ 습지/하천 보존 위한 활동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 ▶ 생명의 보고 내륙습지 보전을 위한 모니터링	
수질·하천	2005	▶ 경안천, 황구지천, 신천, 안양천 모니터링(공모사업)	생활환경 분과
	2006	▶ 기초자치단체 하천관리체계 및 하천 관리 인식조사 모니터링	
폐기물	2005	▶ 폐기물의제 모니터링(공모사업과 연계)	
	2006	▶ 가정 내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에 대한 모니터링	
도시계획	2005	▶ 의제 지표 측정을 위한 모니터링	도시사회 분과
	2006	▶ '도시대학' 진행(공모사업)	

주민자치	2005	▶ 의제 지표 측정을 위한 모니터링	
	2006	▶ 농촌지역 주민자치센터 현황 조사·분석	
성평등	2005	▶ 양성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실태 모니터링(공모사업과 연계)	여성분과
	2006	▶ 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한 실천활동	
보육	2005	▶ 국공립시설운영위원회 실태조사와 인식조사를 통한 모니터링	
	2006	▶ 「모두가 함께 하는 보육의 밑거름,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제대로 알기」 안내서 제작·배포	
농업	2006	▶ 친환경 농업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도민 의식조사 ▶ 친환경 농산물 소비확대 프로그램(공모사업)	자연생태 분과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2006	▶ 친환경상품 생산업체와 유통업체, 판매업체, 재활용 매장에 대한 모니터링	생활환경 분과
에너지	2006	▶ 냉방온도 및 나홀로 차량 실태조사, 주요 가로 간판조명 실태 모니터링	
사회복지	2006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모니터링	여성분과
문화의제	2006	▶ 문화소모임 활동 현황 모니터링	도시사회 분과

○ 이 시기에 의제실천사업으로 수행한 모니터링 등은 모두 의제 지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모니터링이 아닌 실천사업의 경우에는 의제 지표 값을 개선하기 위한 실천사업을 중심으로 기획됨. 특히 이 시기의 모니터링 및 실천사업은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한 공모사업과 연계한 경우가 많음

○ 그러나 각 분과의 사업 중 '경기의제21'의 지표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사업의 현황이 곧바로 모든 분과가 의제실천사업에 가장 큰 역량을 집중하였다는 의미는 아님. 즉, 이전 시기에 비해 의제지표 달성을 위한 실천사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각 분과마다 이외의 사업들도 병행해서 실천되는 등 분과위원회의 활동이 아직은 의제실천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보기는 힘들

- 이는 이후 시기에서 분과위원회가 해체되고 의제별 실천위원회 체계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근거가 되기도 함

○ 이 시기 의제실천사업의 현황을 요약하면, 2004년과 2005년에 각각 작성된 총 13개의 의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사업들은 2006년부터 4개 분과와 민간단체

지원사업을 통해 매년 진행됨. 이는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가 작성된 의제의 실천을 주요한 사업으로 배치하기 시작하였음을 의미

3) 공모를 통한 실천사업

○ 이 시기에도 공개모집을 통한 학교실천사업과 민간단체 실천사업이 꾸준히 시행됨

○ 이 시기 두 유형의 공모사업 현황은, <표 II-7>과 같음

<표 II-7> 과도기 공모사업 현황

연도	종류	지원 단체 및 학교 수	총 지원금액	
2004	민간단체 실천사업	24개 단체	2억원 원	
	학교 공모사업	21개 학교	6천여만 원	
2005	민간단체 실천사업	13개 단체	1억3천7십만 원	
	학교	공모사업	15개 학교	2,900만 원
		환경교육 기획사업	6개 학교	2,940만 원
2006	민간단체 실천사업	15개 단체	1억4천6백여만 원	
	학교	공모사업	12개 학교	3천만 원
		환경교육 기획사업	6개 단체	3천만 원

○ 학교 공모사업은 학교가 주체가 되는 실천 지원사업이고 환경교육기획사업은 도립환경교육센터 설립 등과 맞물려 환경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민간단체들로 하여금 학교 환경교육사업을 실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신설. 단, 이 사업의 경우 기초의제 추진기와 학교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시행토록 조건을 담

○ 또한 학교 공모사업과 학교 환경교육 기획사업의 내용에 있어서도 초기에는 주로 생태체험교육 위주였으나, 이 시기부터는 음식물 쓰레기 또는 일반 쓰레기

또는 에너지 등으로 다변화되어 감

○ 이 시기부터 시작된 새로운 공모사업은 2005년부터 시작된 ‘친환경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2005년에는 민간단체지원사업과 별도로 진행되었고 2006년에는 민간단체지원사업 중 기획공모를 통해 4개 지역의 사업을 지원. 그 이외에 2006년에는 ‘도시대학’에서 기획된 실천계획 중 적절한 지역 및 사업 2개를 선정하여 마찬가지로 ‘친환경마을만들기사업’이란 이름으로 추진

<표 II-8> 과도기 친환경 마을만들기사업 현황

구 분	사업 내용
2005년 기획공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합의를 통한 초록연못 만들기 ▶ 지속가능한 우리동네 만들기 프로젝트 ▶ 도농교류를 통한 ‘장안뜰 유기농 체험 마을만들기’ ▶ 농촌생태체험 마을만들기
2006년 민간단체지원사업 중 기획공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농교류를 통한 친환경 가시리마을 만들기 ▶ 도시와 농촌이 함께 가꾸는 녹색마을 만들기 ▶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마을만들기 ▶ 걷고 싶은 중앙동 거리만들기 시민운동
2006년 도시대학과 연계하여 기획·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성 금석천 ‘꿈의 다리’ 조성공사 ▶ 화성 물꽃마을 ‘생태학습장’ 조성

○ 2005년도 친환경 마을만들기 사업의 예산은 7,000만원이었고, 2006년도에 민간단체지원사업과 별도로 도시대학과 연계된 친환경 마을만들기사업 지원예산은 5,600만 원. 하지만 도시대학에 대한 예산이 이와 별도로 약 1,500만 원 가량 지원되었으므로 친환경 마을만들기와 관련한 예산은 2006년도에도 7,000만 원 가량으로 2005년도 비슷한 수준. 게다가 민간단체지원사업에서도 기획공모사업으로 친환경 마을만들기사업을 지원한 것을 감안하면, 이 사업과 관련한 예산은 2005년에 비해 2006년에 크게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 시기의 공모를 통한 실천사업 현황과 성과를 요약하면,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초기부터 실시되던 환경교육 사업에 대한 공모가 이 시기에도 지속되

었으며, 특히 자체적으로 개발한 브랜드라 할 수 있는 ‘도시대학’이 나름의 성과를 거두면서 실천영역으로 확대되어 친환경 마을만들기 사업으로까지 발전하였다는 점은 매우 모범적인 모델을 창출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음

4) 분과사업

○ 이 시기 각 분과들의 주요 사업은 의제 재작성과 작성된 의제를 실천하기 위한 사업들이 많았으나, 의제 지표에 근거한 실천사업 이외에도 각 분과의 고유한 특성에 따른 정책개발 및 여타 실천사업들도 병행해서 진행됨

○ 각 분과들의 이 시기 사업 추진 현황을 연도별로 소개하면, <표 II-9>와 같음

<표 II-9> 과도기 분과별 사업추진 현황

분과	연도	사업	세부내용
자연생태 분과	2004	한강하구 생명문화제	고양, 파주, 김포의 두루미 축제와 연계한 탐조프로그램 진행
		친환경 농업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현실적 행정지원책 방안 논의
		도내 내륙습지 사례조사	오산, 이천, 광명, 여천, 여주 등
		경기 DMZ 개발현황 조사	생태계 영향 현장조사
	2005 2006	산림·녹지 및 습지 의제 모니터링에 집중	
생활환경 분과	2004	제사용·재활용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방안 토론회	경기지역 제사용·재활용 실태 분석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모색
		에너지 워크숍	지구 온난화 극복 위한 NGO 실천사례 점검 및 기후변화협약 관련 경기지역 활동사례 모색
	2005	2005 경기 에너지 체험마당	에너지 중요성 홍보 및 재생가능 에너지 체험
		2005 경기지역 에너지 전국 투어 워크숍	기후변화 관련 워크숍 및 에너지 관련 시설 견학
		재생가능 에너지 교육시설 설치	태양광·풍력 하이브리드 가로동, 발전 표시 게시판
		도농교류(팜-그린투어)	5회 실행 및 1회 평가회의
2006	수질·하천 모니터링에 집중		
도시사회 분과	2004	도시대학	경기지역 도시문제 강좌 및 개발사례 점검, 친환경개발에 대한 이해 등

		도시대학 서울투어 및 도시 워크숍	서울시 뉴타운 건설, 청계천 복원사업, 대중교통체계 개선사업
		평택 미군기지 현장방문	기지 이전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및 의견교환
		주민자치센터 매뉴얼 개발 위한 전문가 워크숍	-
	2005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워크숍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 공유 및 향후계획 논의
	2006	도시계획에 대한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모색 정책간담회	도시계획에 대한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여성분과	2004	성평등 현실진단사업 지역 모니터링	경기지역 성평등 실태 점검 및 지역별 모니터링
		방과후 보육실태 조사사업, 지역토론회	경기지역 방과후 보육 실태 점검 및 지역별 모니터링 및 오산과 안양 등에서 지역토론회 개최
		여성 활동가 성찰 아카데미	애니어 그림 통한 자기성찰과 시민사회운동 역량 강화
	2005 2006	성평등 및 보육의제 모니터링에 집중	

○ 이 시기 각 분과 및 위원회의 실천사업을 요약하면, 의제 재작성이 단계적으로 완료된 2005년부터 의제 지표에 근거한 모니터링이 주를 이루고, 의제 재작성이 완료되기 이전인 2004년에도 재작성되고 있는 의제와 관련한 실천사업이 주를 이룸. 이는 2004년부터 의제 재작성의 내용 및 방향이 어느 정도 정립되어 있었음을 의미

5) 교육 및 토론회 등의 사업

○ 이 시기는 교육사업 특히 환경교육과 관련한 사업이 질과 양 모든 면에서 대폭 강화된 시기라 할 수 있음.

○ 환경교육과 관련해서는 정기적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환경 대담사 사업’, 그리고 ‘환경교육 한마당’을 포함하여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진행된 ‘환경교육 포럼’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들이 기획·실천됨. 특히, 환경교육 한마당은 이 시기에 처음으로 개최됨

○ 환경대탐사의 경우,

- 제5회(2004.8.19~21):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와 <평택호 네트워크>(평택호), <안양천 네트워크>(안양천), <이천YMCA>(남한강), <시화호 연대회의>(경기연안 갯벌), <한국어린이식물연구회> 공동주관으로, 각 지역별 40명씩 총 200여명 참가
- 제6회(2005.7.26~30): 도내 청소년 150명, 학부모 80여명, 군장병 50여명, 총 280명이 참석하여 가평과 포천, 연천 지역을 탐사
- 제7회(2006.7.25~28): 하천탐사라는 1개 주제를 선택하여 구체적이고 집중적인 체험 학습효과를 높임. 도내 중고등학생 138명과 진행용원 29명이 참여하여, 경기도 안성천 유역 탐사

○ 이전 시기와 비교하여 이 시기 환경대탐사는, 기본 틀에서는 비슷하지만, 행사의 양과 질에서 발전되는 모습을 보임.

- 탐사의 방법을 자전거에서 도보로 전환
-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통해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였으며, 탐사의 주제도 점차로 구체적이고 집중적인 형태로 변화
- 참여 인원이나 구성에 있어서도 이전 시기보다 많아지고 다양해 짐
- 이러한 활성화를 통해 경기지역의 대표적 청소년 환경축제로 자리매김

○ 환경교육 한마당은 경기도 내 환경교육 관련 NGO와 기업, 민간기구들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환경교육 관련 프로그램 교류와 교육 등을 목적으로 개최

- 2004년에는 제1회 한마당을 개최하였으며, 홍보 부스 33개를 설치하여, 하루 행사임에도 500여명이 방문·참여
- 2005년 제2회 한마당 행사는 한국환경교육 네트워크 창립대회를 겸하여 개최되었으며, 환경교육 홍보 부스 100여개를 설치·운영하였으며, 약 1,500여명이 방문·참여
- 2006년 제3회 한마당 행사는 '소통과 연대로 희망을 열자!'라는 슬로건으로 경기지역 환경교육 관련 NGO, 기업, 지방의제21 등 40여 곳이 참여, 60여 개

부스 운영 및 환경교육 활동 공유

○ 이외에 다양한 환경교육 사업이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차원에서 진행

- 2004년에는,

- ▶ 환경교육 자문단 구성·운영
- ▶ 생태안내자 육성사업: 공개모집을 통해 15개 단체 선정·지원
- ▶ 초등학교 5학년 대상의 환경교육 교재 2,000부 제작·배포
- ▶ 생태안내자 공동연수를 9월13일부터 15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가평에서 진행
- ▶ 학교환경교육 조사사업: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976개와 중등학교 435개, 고등학교 319개 학교 대상 실시 및 관계자 토론회 개최
- ▶ 환경교육교재 제작

- 2005년에는,

- ▶ 환경교육포럼: 교사, 전문가, 환경교육 관련 시민단체 활동가, 공무원 등이 참여하여, 8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회 생태여성주의 등 생태교육 관련 내용으로 진행
- ▶ 연천 도립환경교육센터 운영·전시 프로그램개발사업: 5월부터 12월까지 도립환경교육센터 운영방안, 전시계획, 프로그램 목록화 및 예시 프로그램 제안과 총 20 강좌의 경기 북부지역 생태안내자 교육 프로그램 실시
- ▶ 환경교육교재 증보판 제작: 2004년 제작한 교재의 증보판으로, 학생용 3,000부와 교사용 500부 제작하여 배포

- 2006년에는,

- ▶ 환경교육 포럼: 환경철학, 물, 기후변화, 쓰레기 등을 주제로 환경교육에 관심 있는 시민단체 활동가와 공무원, 기초의제 관계자, 교사 등이 참여하여 2월부터 12월까지 총 9회 진행
- ▶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강 하구, 시화호 유역, 광교산, 안양천, 안성천을 대상으로, 단체와 학교가 연계한 거점별 특성화된 생태 모니터링 및 교육 프로그램을 수집·분석함으로써 체험환경교육의 틀 정립과 질적 수준 향상.

그리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프로그램의 공유로 많은 이들에게 체계화된 교육 기회 제공

▶ 환경교육 활동가 공동 연수: 8월30일부터 9월1일까지, 2박3일 간 경기도 환경교육 활동가(시민단체, 기초의제21 등의 생태안내자)들이 참여하여 진행

○ 그밖에 앞서 소개한 ‘학교 공모사업’과 ‘학교 환경교육 기획사업’ 역시 환경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시기 환경교육이 대폭 강화되고 매우 활성화되었음을 알 수 있음

○ 환경교육 이외의 교육 및 토론회 등의 사업도 이 시기에 상당한 정도로 활성화되었고 NGO, GO, 기업인 등 다양한 지방의제 추진주체들이 참여하는 ‘어울한마당’도 정기적 사업으로 이 시기에도 매년 개최됨

○ 어울 한마당의 경우,

- 2004년: 12월2일~3일 경기도 환경국과 공동으로 ‘2004 환경정책 워크숍’ 개최

▶ 공무원, 기업체 환경관리인, NGO 및 지방의제21 관계자 등 200여명 참여
▶ 경기도 환경정책 방향 설명, 기업의 지역협력 우수사례 소개, 자연체험활동, 갈등 구조 개선 관련 특강, 건강 및 먹거리 강좌, 어울마당 등 진행

- 2005년: 제5회 어울한마당은 이 해에 개최되지 않고 대신 2006년 1월19일~20일에 개최. 도내 환경공무원과 지방의제21 관계자 및 NGO, 환경기술인 등 200여명 참여하여, 경기도 환경정책을 공유하고 민관협력과 환경정책 토론 등의 내용으로 진행

- 2006년: 2006년 11월10일~11일, 200여명이 참여하여 체육대회와 문화행사로 구성된 어울림 한마당과 의제 모니터링 워크숍, 지역탐방 등의 내용으로 진행

○ 어울 한마당 사업은 관련 분야 공무원과 지방의제21 관계자 및 기업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공동의 관심사를 교류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실천적 관점을 일치

시켜 나가는 행사로,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지방의제21 추진기구로서는 중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음

○ 또한 그밖의 교육 및 정책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등도 활성화 되었는데, 이 시기에도 주로 ‘경기정책 포럼’을 통해 이루어짐

- 2004년:

▶ 시화호 지속가능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워크숍: 시화호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NGO 운동전략 논의
▶ 주민지도자 활성화 워크숍: 6월4일부터 5일, 이틀간 주민자치력 향상방안과 마을의제-주민자치 연계 방안 논의
▶ 생명 그리고 평화 정책 포럼: 8월17일~18일, 경기지역 환경정책 평가 및 비전 제시
▶ 광교산 도립공원 추진과 수도권 남부 교통난 해소를 위한 토론회

- 2005년: 현안에 대한 정책대안 마련 중심으로 진행

▶ 경기 2020 도시기본계획 상수도권 인구계획의 현황과 문제점 토론회 개최
▶ 경인지역 새방송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위한 경기지역 토론회
▶ 「국민임대주택건설특별조치법」 이해 및 향후 경기지역 대응방안 논의 토론회

- 2006년:

▶ 푸른경기21 중장기 발전 기획사업: 2005년도 발간한 중장기발전방안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7차례의 세미나와 1회의 워크숍을 진행하여, <푸른경기21 실천협의회> 장기 비전과 조직개편안, 사업추진방향 등 마련
▶ 경기도 버스교통 이용 개선을 위한 경기도민 토론회
▶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워크숍: 정부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정책 소개 등
▶ 경기지역 뉴타운 사업 관련 거주민 주거복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
▶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도시 조성과 지역 특성화를 위한 심포지엄

○ 앞의 정책포럼 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시기 경기정책 포럼은 양적으로도

이전 시기보다 활성화되었으며, 내용적으로도 경기도의 현안 등 구체적 주제를 통해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도들이 돋보임

○ 이 시기 교육사업 중 눈여겨볼 만한 것은 도시사회분과 사업으로 진행되던 '도시대학'이 2006년부터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의 기획사업으로 발전했다는 것으로, 단순히 주관 주체가 한 개 분과에서 실천협의회 차원의 기획사업으로 변했다는 형식적 차원이 아니라 교육사업과 실천사업(친환경 마을만들기사업)을 연계시키는 사업에 정기성을 부여하는 등으로 질적인 발전을 이루었다는 것

○ 또한 이 시기에는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확산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경기도 만들기에 있어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관점 하에 매년 정기적으로 '양성평등 워크숍'을 여성분과가 아닌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차원으로 추진

- 2004년에는 12월16~17일, 이틀간 양성평등 현실 점검과 지속가능발전과 양성평등의식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 확대를 주제로 개최

- 2005년에는 4월27~28일, 이틀간 양성평등의 필요성, 성별영향평가의 이해, 성희롱 바로 알기 등의 주제로 기초의제 관계자, 시민단체 등 약 50여명이 참여

- 2006년에는 제1기 성별영향평가 아카데미를 6월14일~8월9일 동안 진행하였으며, '행복한 변화를 만드는 반쪽이들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푸른경기21 위원, 도내 지방의제 추진기구 위원과 실무자, NGO 회원과 활동가, 경기도 의회 의원과 시의원, 공무원 등이 참여. 총 11강 34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내용은 성별영향 평가 바로 알기, 성별영향평가 확산을 위한 간담회 등

○ 이외에도 각 분과 실천사업으로 교육과 토론회 등의 사업들이 기획·실천되었음을 감안하면, 이 시기 현안 대응을 위한 정책대안 모색 토론회 및 워크숍, 성인지와 관련한 정기적 교육 등 교육 관련 사업이 양·질적으로 활성화 됨

○ 국제교류 사업은 이 시기 주로 해외연수 형태로 진행되었는데, 해외연수와 관련해서는 각 분과별로 해당 분과의 관심사에 따라 기획·실행

- 2004년에는,

▶ 여성분과에서는 6월 말~7월 초에 걸쳐 추진협의회 위원과 기초의제 관계자, 공무원, 도의원, 언론인 등 17명이 호주의 바이센터니얼 공원과 북시드니 자치정부 및 커뮤니티 센터, NSW 성폭력 센터, 이주여성 인권연합단체, Tresillian 복지재단과 Guthriechild Core Center 보육시설 등을 방문하여 여성정책 관련 연수 수행

▶ 생활환경분과에서는 7월에 실천협의회 위원과 공무원, 기초의제 관련자, 도의원, 도내 NGO 회원 등 21명이 일본 동경과 교토, 오사카 지역을 방문하여 강의 날 대회 참가 및 동경만 야조공원 이따기강 하천 탐사, 야하기강 회의 방문, 물과 문화 연구회 방문 등의 연수 프로그램 실시

- 2005년에는,

▶ 도시사회분과에서는 6월에 도의원과 도시계획 전문가, 기초의제 관계자, 공무원 등과 함께 오스트리아와 독일을 방문하여, 유럽 선진도시의 도시계획과 주민자치 및 문화관광 분야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기회 가짐

▶ 자연생태분과에서는 7월에 러이사 마이칼 호수를 NGO 활동가, 공무원, 도의회 의원 등이 방문하여, 극동 아시아 자연생태계 보전 정책에 대한 이해 및 도내 관련 정책 벤치마킹 기회로 활용

○ 그러나 2006년부터는 각 분과별로 이루어지던 해외연수가 다시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전체 차원으로 통합. 그 이유는 각 분과별로 실시되는 해외연수가 자체 역량이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할 때 기획 및 실행 등을 각 분과에 일임하는 것보다는 협의회 전체 차원으로 준비하는 것이 보다 충실한 연수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 또한 2006년에는 ICLEI 세계총회 및 제3회 세계도시포럼 등이 개최되고, 이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보다 충실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

○ 이에 따라 2006년에는,

- ICLEI 세계총회 참석:

- ▶ 2월25일~3월7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 타운
- ▶ 경기도 행정의 참여 이외에 경기지역 지방의제에서 19명 참가(7개 시·군과 경기도)
- ▶ 활동내용으로는, 경기지역 참가단 및 지방의제21 참가단 운영과 지방의제21의 세계적 동향 파악, ICLEI 프로그램 도입방안 모색 등

- 쿠바· 캐나다 연수:

- ▶ 6월12일~22일, 쿠바 아바나와 바라데로, 캐나다 벤쿠버
- ▶ 위원 및 기초의제 관계자, 언론인, 공무원 등 17명 참가
- ▶ 쿠바 - 도시농업 및 생태농업 정책과 현황 연수 통해 경기지역 지속가능 농업 활성화 방안 모색
- ▶ 캐나다 - 제3회 세계도시포럼 참가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만들기를 위한 선진 도시의 노력과 성과 벤치마킹

- 일본 연수

- ▶ 12월13일~16일, 일본 동경
- ▶ 공동회장과 운영위원,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의제팀원 4명
- ▶ 세계 최대 친환경상품 전시회인 'ECO PRODUCTS 2006 JAPAN' 참관 및 친환경 관련 생산 기술 및 소비자 정보 등 동향 파악, 지속가능경영 기업 방문(에바라, 파나소닉 환경전시관 등), 공정무역 NPO인 네팔리 바자르 방문 등

○ 이 시기의 교육 및 토론회 등의 사업을 요약하면, 환경교육과 현안에 대한 정책대안 모색 등 다양한 교육과 토론회, 워크숍 등이 매우 활성화된 시기라 볼 수 있음. 또한 '환경교육 한마당' 등이 정기 사업으로 새롭게 추진되는 등 그 주체에 있어서도 매우 다양할 뿐 아니라, 그 주체나 대상에 있어서도 청소년과 학생, 공무원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등 양적 질적인 면 모두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룬 시기라 볼 수 있음.

6) 기초의제와의 협력사업(교류협력위원회)

○ 이 시기 기초의제와의 협력사업은 여러 차례의 위상 변화를 통해 정착된 교류협력위원회의 독자적인 체계를 통해 활성화됨.

○ 사업의 내용들을 요약하면, <표 II-10>과 같음

<표 II-10> 과도기 기초의제와의 협력사업 내용

연도	사업	세부내용
2004	권역별 공동사업	▶ 남부: 지역 상호간 청소년 하천생태교실 ▶ 동부: 한강 상류 네트워크 구성 사업 ▶ 서부: 외국인 노동자 실태조사사업 ▶ 북부: 한복정맥 보전을 위한 모니터링
	경기지역 지방의제21 실무자 연수	▶ 지방의제21 실무자 리더십 개발
	지방의제21 공동사업과 발전방향 토론회	▶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와 공동주최 ▶ 광역·기초의제21 공동사업 및 발전방안 논의
2005	경기지역 지방의제21 실무자 연수	▶ 리더십 훈련을 통한 자기점검, 커뮤니케이션 훈련 통한 활동역량 강화, 지방의제21 활동 아젠다 토론회를 통한 비전 점검
	경기지역 지방의제21 백서 제작	▶ 기초의제별 의제의 내용 및 추진기구 운영 규정, 기초의제별 주요사업 및 분과·예산 현황
2006	지방의제21 실무자 연수	▶ 지방의제21 활동가들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 이 시기 교류협력위원회는 그 위상과 역할이 점차로 정착되어가고 있으며, 기초의제 추진기구와의 네트워크 사업에서는 큰 변화를 보이는데 그것은 기존의 운영위원장 및 실무자 간 간담회와 같은 종류의 사업이 점점 줄어들고 그 대신 위의 활동현황에서 소개하고 있는 바와 같은 다양한 사업들이 수행됨

- 2005년 기초의제 운영위원장들과의 간담회가 한 차례 개최되었을 뿐 그 이후에는 없어짐

○ 기초의제와의 협력사업에 있어 이전 시기에서는 주로 광역·기초 간 교류에 초점을 맞추었던 데에 비해, 특히 이 시기부터는 구체적인 공동실천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음. 이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상당 정도 활성화 되어가고 있음의 의미

7)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보고서 발간

○ 이 사업은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가 지난 시기에서부터 각종 워크숍, 간담회 등을 통해 진행해 온 사업들로, 2005년 초에 비로소 그 최종 결과물을 연구보고서로 발간

○ 이 연구보고서는 “지방의제21이 추구하는 ‘거버넌스 체제의 구축’과 이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목표 달성에서는 많은 해결과제들”이 있다는 문제인식으로부터 출발하여,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의 “지난 활동내용과 조직구조 및 관계적 특성들을 종합적으로 진단·분석하여 형식과 내용 면에서 실천협의회가 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하는 목적으로 시행³⁾

○ 이 연구보고서를 완성하기 위해 실무회의를 6차례나 개최하였으며, 한양대학교 제3섹터 연구소에 전체 해당 연구를 의뢰기로 함

○ 이 연구 과정에서는 연구팀과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운영위원, 중장기 발전 기획팀 등이 참여한 간담회를 두 차례 개최하였으며, 구체적 조사방법으로는 실천협의회 위원과 행정, 기초의제 관계자 및 관련 인사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설문조사와 전문가 델파이조사, 실천협의회 사무처 관계자들에 대한 면접조사를 사용

3)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2005.12 참조

○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는,

- ▶ 참여 그룹과 실천 영역의 확대
- ▶ 사회적 영향력과 정책적 영향력 확대

- 전략 유형 및 내용으로는,

- ▶ 네트워크 전략: 내부 구성원 간 소통과 합의기반 확충,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방식에 대한 구성원 간 신뢰기반 확보 및 다양한 외부 파트너와의 상호협력 강화 및 시민, 기업, 행정, 기초의제 참여자들 간의 원활한 소통과 공동사업 개발
- ▶ 생활화 전략: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위해 실생활에 밀접한 의제 발굴 등이 필요하고, 참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계층에 대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 ▶ 정책화 전략: 정책의 지속가능성 평가 및 여론 수렴 기능 확대, 의제의 실천 계획과 제도적 연계성을 높이려는 노력 등 정책 평가 및 영향력 확대와 지속가능한 정책대안을 개발하기 위한 정책형성 역량 개발

- 전략추진단계로는,

- ▶ 단기 전략으로, 네트워크를 통한 자원과 에너지를 결집하고
 - ▶ 중기 전략으로,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한 실질적 거버넌스 기구로 전환
- 조직구성 및 역할의 변화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분과위원회 체계를 의제실천을 중심으로 하는 체제로 변화시킬 것 제안

- 마지막으로 이러한 중장기발전을 위한 예산의 확대 지원 제안

○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활동체계를 개편하는 등에 직접 적용되기도 하였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1997년 총회를 통해 그 동안 실천활동의 가장 기본 단위로 기능해 왔던 분과위원회가 ‘경기의제21’을 실천하는 의제실천위원회로 대체

○ 이 연구사업은 ‘연구’ 그 자체의 한계와 성과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푸른

경기21실천협의회>가 의제실천을 중심으로 활동체계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큰 사업이라 평가할 수 있음

8) 홍보사업

○ 이 시기의 홍보사업은 소식지 발간, 홈페이지 운영, 공모사업 및 분과활동 등 사업별 총괄보고서 제작·배포 등 정기적인 발간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 이 중 소식지 발간사업은 2006년도에 이르러 매달 1회 이상의 웹진으로 발전

○ 또한 2005년부터는 홍보다이어리를 제작하여 경기도 의원 및 행정, 의제관계자들에게 배포

9) 기타 사업

○ 2006년에는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는 활동들이 여러 사업으로 추진되었는데, 이 중에는 기존의 생활환경분과에서 추진하던 사업인 에너지 워크숍과 청소년 에너지 체험마당이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차원의 사업으로 전환된 것도 있음

○ 분과 사업이 실천협의회 차원의 사업으로 전환된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존재하는데,

- 첫째는 이 사업이 발전하여 개별 분과보다는 실천협의회 전체 차원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 때문이고,

- 둘째는 분과의 일상활동이 점차로 재작성된 의제 지표를 실천하는 사업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각 분과의 활동 역량으로 기존의 사업을 소화하기 힘들다는 판단 때문이며,

- 셋째는 기후변화협약 대응 활동이 최근 그 중요성을 더해 가면서, 개별 분과보다는 실천협의회 전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때문

○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한 활동으로 '2006 경기 에너지 워크숍'과 '2006 청소년 에너지 체험마당', '경기시민발전 추진사업'이 진행됨

- 2006 경기 에너지 워크숍은 8월26일부터 30일까지 <경기에너지 시민연대>와 공동으로 주관하여 개최되었으며, 지방의제21 관계자, NGO 관계자, 에너지 담당 공무원, 기업인 등 30여 명이 참여

- 2006 청소년 에너지 체험마당은 10월 28일 성남시 중앙공원에서 개최되었으며,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에너지 만화공모 및 수상작 전시, 솔라카 경진대회, 에너지 퀴즈대진, 에너지 체험교육 기자재 전시 및 체험 등

- 경기시민발전 추진사업은 시민투자형 태양광 발전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6년 10월에 추진위가 발족되었으나 부지확보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향후 사업으로 추진기로 하고 연기

○ 그 외 이 시기에 <경기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관련된 활동과 경기그물코 센터 운영위원회 활동,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활동 등에도 적극 결합하였으며, 2004년에는 '경기환경교육센터건립 추진협의회' 활동에도 운영위원 중 3인이 참여하는 등으로 결합

10) 과도기 종합

○ 이 시기는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가 의제 추진기구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활동을 벌이고 발전시켜 왔다는 점과 지난 시기까지의 문제점 중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결해 오고 있다는 점에서 혼란스런 과도기가 아닌 보다 발전되어 나가는 과정으로서의 과도기라 할 수 있음

○ 특히, 이 시기는 '경기의제21'을 작성하였다는 점과 그 의제의 실천을 추

진기구의 중요한 활동으로 상정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그 이전 시기와 비교해 질적 발전이 이루어진 시기가 볼 수 있음

○ 또한 2006년 총회를 통해 위원의 수를 기존 150명 내외에서 300명 내외로 참여 폭을 확대시킴으로써,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참여 폭을 확대한 것도 이 시기의 특징 중 하나라 할 수 있으며, 이는 그만큼 실천협의회의 외연이 확대되었음을 의미

○ 이 시기에는 지난 시기에 지적한 문제점을 일정 정도 해소한 발전된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다만, 지난 시기에서부터 지적되어 온 고질적인 문제들의 경우 이 시기에도 여전히 문제로 지적할 수 있겠으나, 그 상황이 점차로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의제 재작성과 추진과정에서 도민들의 실질적 참여가 아직 많이 부족하기는 하나, 의제실천사업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은 각 지역별 추진사업 과정에 도민들의 참여가 점차로 확장되고 있음을 의미

- 행정의 주체적 참여가 부족한 점 역시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하나, 이는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와 경기도 행정과의 개별적 문제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아직 우리 사회의 지방자치, 특히 민관협력 또는 거버넌스에 기반한 행정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전반적 구조의 문제로 파악할 수 있음. 다만,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에 대한 경기도의 재정 지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행정에서도 실천협의회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음을 의미

- 의제 재작성과 실천과정에 소수의 위원들이 적극적 주체로 참여하였을 뿐, 다수 위원들이 아직은 소극적인 참여를 보인 점 역시 지난 시기에 이어 지속적으로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음. 그러나 이 역시 실천협의회 위원 구성상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즉, 지속가능발전과 의제실천사업에 필요한 인원을 위원으로 섭외하기보다는 민·관·기업 등 다양한 주체의 당위적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 따라서 구체적인 실천의 역할은 기획위원회와 실행위원회 단위를 통해 이루어짐. 하지만, 위원들의 구체

적 역할배분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이 시기는 이전 시기와 비교할 때 여러 가지 점에서 발전된 모습을 보이는데, 그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 ① '경기의제21'을 이전에 비해 실천가능한 이슈와 구체적 지표로 재작성한 점
- ② 분과활동이 점차로 의제 실천사업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점
- ③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중장기발전에 대한 연구 및 토론이 지속되어 그에 대한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정착기로 나아가는 토대를 다진 점
- ④ 환경교육을 포함한 경기도의 현안에 대응하여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교육 및 토론회, 워크숍 등이 매우 활성화된 점
- ⑤ 교육사업인 '도시대학'이 실천사업인 '친환경마을만들기'로까지 확대·발전함으로써, 교육과 실천의 연계성을 살린 점
- ⑥ 교육 및 토론회 등의 사업에 있어 지난, 시기와 비교하여, 특히 이 시기에는 그 주제 및 주제 또는 대상이 매우 다양하게 확대되었다는 점
- ⑦ 기초의제와의 협력사업이 단순한 간담회 등을 넘어 교류협력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공동실천사업으로 발전한 점
- ⑧ 소식을 웹진으로 변경하여 보다 많은 도민들에게 정기적인 소식을 발송하기 시작하였다는 점 등

5. 제4기: 정착기 - 의제실천사업을 중심으로 활동체계 전환 (2007년~2008년)

○ 이 시기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활동과 사업의 기본 단위인 분과위원회를 작성된 의제를 실천하기 위한 의제별 실천위원회로 재편하여, 이를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상활동 내용으로 삼은 것

- 이는 그 동안 지속적으로 고민해 오던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의 중장기 발전계획의 결과가 반영된 것

○ 참고로, 2008년도 사업 및 활동현황은 이 보고서 제작 시점인 2008년 7월 말 현재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것들임

1) 분야별 의제실천사업

○ 이 시기에는 13개 의제가 재작성 된 이후 분과위원회를 해소하고 의제별 실천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의제 지표달성을 위한 모니터링 및 실천이 가장 중요한 일상사업 및 활동으로 자리를 잡음

○ 각 의제별 실천위원회의 이 시기 활동내용을 살펴보면, <표 II-11>과 같음

<표 II-11> 정착기 의제실천위원회별 실천사업 내용

의제 분야	연도	실천사업 내용
산림녹지	2007	도시공원 모니터링
	2008	도시공원 모니터링(모니터링 대상 지역 전 년보다 확대)
습지	2007	습지보전지역지정 전략수립을 위한 경기도 습지 관련 기초 현황 조사와 습지보전지역 발굴을 위한 워크숍
		연안습지 교육교재 개발 사업
	2008	도내 습지보전 및 대중인식 증진활동 조사·목록화
		습지 대중인식증진 활동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4회 경기도의 습지 대중인식 증진활동 홍보사업과 이를 위한 논습지 주제의 환경교재 제작
수질·하천	2007	의제 지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하천 및 안성천 수계에 대한 자연형 하천 조성 실태 조사 및 조성구간 생태계 복원 실태 모니터링
	2008	시민참여형 하천 모니터링 표준조사표 개발 및 모니터링 하천운동 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활동가 워크숍
폐기물	2007	학교급식현장에서의 쓰레기 줄이기 실천사업과 모니터링
	2008	회사 구내 식당의 음식물쓰레기 모니터링 및 감소방안 모색
도시계획	2007	경기 지역 뉴타운 개발에 대한 정책 세미나 및 워크숍

	2008	의제지표 제작성 사업
		경기도 뉴타운에서의 마을만들기 사업
주민자치	2007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을 활성화 위한 실천사업
	2008	주민자치위원들 대상 주민자치 아카데미 시행
		주민자치 아카데미 통한 마을의계 작성 현장 지원 사업
성평등	2007	여성 관련 공공기관에 대한 성평등 교육실태 모니터링
	2008	성평등 교육 실태조사 모니터링
보육	2007	지역 보육운동 주체 세우기라는 주제의 교육 실시
	2008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평가지표 개발 위한 설문조사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관련 교육내용 및 방법에 관한 모듈 개발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교육 지원팀 구성과 권역별 교육 진행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운영사례 모집
농업	2007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생산자 의식조사와 유통조직 실태조사 등 모니터링
	2008	친환경 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한 학교급식 유통과정 조사 모니터링 및 심포지움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2007	녹색구매 관련 조례만들기 사업
	2008	31개 시군 녹색구매 정책 및 실태 모니터링
에너지	2007	수송부문 에너지 수송관리 위한 지자체 전략 모니터링과 기후변화방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환경협약 표준안 마련 및 제안 운동
		기후변화 대응 역량강화 위한 권역별 순회 워크숍
	2008	경기지역 신재생 에너지 지도 제작
사회복지	2007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모니터링
	2008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모니터링 및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및 연찬회, 모니터링 결과 보고 및 토론회
문화의제	2007	문화관광 해설사와 미술공예분야, 풍물분야에서 활동하는 소모임 중 우수사례 조사 및 보고서 작성·배포
	2008	소모임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사업

○ 의제실천위원회 별 활동현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시기의 의제 실천활동은 이전 시기에 비해 양과 질 모든 측면에서 매우 활성화·정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2) 공개모집을 통한 실천사업

○ 이 시기에도 정기적 공개모집 사업인 학교실천사업(학교 공모사업, 환경교육 기획사업)과 친환경 마을만들기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됨. 그러나 민간단체 실천사업은 폐지됨

- 민간단체 실천사업을 폐지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 민간단체의 지원을 통해 기존에 작성된 의제를 직·간접적으로 실천하고자 하였으나, 이 시기부터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내 조직체계에 의제실천위원회를 둬으로써 공모를 통한 의제실천사업의 필요성이 약화됨
 - 민간단체의 지원을 통해 민간단체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 목표도 있었으나, 경기도 환경보전 기금을 비롯한 각종 기금들을 통한 공모가 많아짐. 이에 경기도 환경정책과에서도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가 별도로 이러한 지원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제안이 들어왔고, 실천협의회 내부에서도 이에 공감하여 폐지하기로 결정

○ 이 시기 두 유형의 공모사업 현황은 <표 II-12>와 같음

<표 II-12> 정착기 공모사업 현황

연도	종류		지원 단체 및 학교 수	총 지원금액
2007	학교	공모사업	10개	2,900만원
		환경교육 기획사업	6개 단체	3,064만원
	친환경 마을만들기 사업		4개 지역	6,000만원*
2008	환경교육공모사업	공모사업	10개	3,000만원
		환경교육 지정공모	2개	2,000만원
		기초의제 공모사업	3개	1,450만원
	친환경 마을만들기 사업		4개	7,000만원*

* 친환경마을만들기 사업의 경우 2006년 이후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차원의 기획사업인 도시대학과 연계하여 진행하므로, 주어진 예산은 도시대학 진행 예산이 포함된 금액임

○ 기존의 학교공모사업과 학교환경교육 기획사업은 2008년 이후 환경교육 공모사업으로 통합되어 학교공모사업과 기초의제 공모사업으로 진행하였고, 환경

교육 지정공모사업이 별도로 신설

○ 학교 환경교육 기획사업의 경우, 원래는 민간단체에 지원하여 학교·기초의제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였으나, 그러한 공동사업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아 2008년부터는 기초의제 공모사업으로 사업 명칭 및 진행방식을 변경하였고, 기초의제에서 학교와 연계하여 환경교육 사업을 시행토록 함

○ 친환경마을만들기 사업은 분과사업으로 진행되던 도시대학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사업임. 즉, 도시대학에 참여한 지역이 자신들의 지역을 디자인하는 교육과정을 거쳐, 이 중 선정된 지역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기 때문. 그런 점에서 이 시기의 특징은 지난 시기와 달리 도시대학 프로그램이 일개 분과의 사업이 아닌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차원의 사업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이며, 개별 사업은 기초의제와 시민단체, 지역 주민 등이 함께 참여하여 추진토록 함

<표 II-13> 정착기 친환경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현황

구분	친환경 마을만들기 사업 내용
200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성: 마을 안내 조형물 설치 ▶ 이천: 이천시민 도시대학 및 시민토론회 ▶ 부천: 생태연못 만들기 ▶ 남양주: 공원 조성을 위한 시민토론회 및 사진·그리기 대회, 국제토론회 등 ▶ 화성 물곶마을: 생태학습장 조성공사
200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 한테우물창작촌과 상징 건물 만들기 ▶ 안성: 걸어가는 영동-아름다운 보행로 만들기 ▶ 구리: 한다리 액계문화 마을만들기 ▶ 평택: 소통하는 농촌복지 공동체 만들기

○ 친환경 마을만들기 사업은 완전 개방된 공모사업이 아니라 도시대학에 참여한 지역 중에서 선정하여 지원하는 제한 공모 사업이라 할 수 있음. 2008년에는 도시대학을 지역에 보다 밀착시킨다는 취지로 경기남부와 북부로 나누어 두 차례에 걸쳐 실시. 그러나 2008년 친환경 마을만들기 사업 현황에서 알 수 있는 바

와 같이, 경기 북부지역에서는 이 사업이 추진되지 않음. 이는 도시대학을 지역에 보다 밀착해 실시한다는 취지에 비추어 아쉬운 점이라 할 수 있음

○ 이 시기 공모를 통한 실천사업의 성과를 요약하면, ‘학교 환경교육 기획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보다 실질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의 주체를 변경하였다는 것과 다양한 기관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민간단체에 대한 공모사업 대신 보다 기획된 사업들에 대한 공모를 추진하였다는 점. 이는 공모사업이 의제 추진기구로서의 합목적성을 추구하는 변화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3) 교육 및 토론회 등의 사업

○ 환경교육과 관련해서는 많은 사업이 정기성을 갖고 매년 개최되고 있는데, 앞서 공개모집을 통한 실천사업에서 소개한 학교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학교 공모사업과 학교환경기획사업 또는 기초의제 공모사업)과 ‘청소년 환경대탐사’, ‘환경교육 한마당 등이 그것

○ 이 시기 청소년 환경대탐사는 주로 강 탐사를 주제로 이루어 짐
- 2007년에는 7월31일~8월3일까지 남한강 200리를 도보로 탐사하며 습지 모니터링과 환경정화운동을 전개하는 등의 프로그램 진행. 도내 청소년 156명 참여
- 2008년도에는 7월30일~8월2일까지 도내 학생 120여 명이 참여하여 한강하구 민통선 습지 탐방을 주제로 진행. 저녁에는 생명평화캠프 프로그램 진행

○ 이 시기 환경교육 한마당은 정기 사업으로 매년 개최되었는데,
- 2007년도에 개최된 제4회 환경교육 한마당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주제로 10월4일~6일까지 남한강연수원에서 52개 기관이 43개 주제로 참여하여 진행되

었으며, 학생을 포함한 3,000여명 참여

- 2008년에는 6월27일부터 28일까지 안산 시화호 갈대습지에서 활동가 마당(첫째날)과 시민참여 마당(둘째날)으로 진행
 - ▶ 활동가 마당에는 경기지역 NGO 활동가 100여 명이 참여하여 습지보전과 신재생 에너지 보급 관련 환경교육 사례와 방안 토론, 지역환경교육 특성화 사례 나눔
 - ▶ 시민참여마당은 3개의 전시마당과 13개의 체험마당 등 18개의 부스를 설치·운영하였으며, 총 700여명이 참여

○ 그밖에도 이 시기 환경교육과 관련한 사업으로는,

- 2007년: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사업 중심으로 진행
 - ▶ 에너지 교육교재 개발
 - ▶ 환경교육 포럼: 지속가능발전 교육 개념 정리 및 인식 확산과 지속가능발전교육틀 마련을 목적으로 네 차례에 걸쳐 진행
 - ▶ 환경교육활동가 공동연수: 8월29일~31일, 2박3일 동안 환경교육 교재와 교구 개발 능력 향상과 환경교육 활동가의 자기 비전 마련, 환경교육 활동가간의 교류의 장 마련을 목적으로 실시
- 2008: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사업이 전년도에 이어 지속
 -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생활·활동 지침서 제작 예정
 - ▶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과 관련하여 지역단위 교육정보센터의 기능강화와 기존 환경교육사업을 지속가능발전 교육 추진체계로 확대·개편하기 위한 토대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시민단체, 전문가, 교사, 행정 등을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교육포럼’을 구성하는 사업을 계획하였으나, 2008년도에는 추진되지 않음. 하지만, UN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2002년도에 선포하여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중점적으로 추진키로 함) 활동을 고려하여 향후 환경교육을 지속가능발전 교육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
- 이 시기에는 그 동안 경기도의 각종 현안에 대해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등으로 활성화 되어 온 ‘경기정책포럼’이 ‘경기환경정책포럼’으로 변경되어 다

양한 환경정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으나, 2008년도에는 이를 폐지. 이는 '경기환경정책포럼'을 상설화 함으로써 실질적인 내용을 다루기보다는 형식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 따라서 보다 실질적인 정책대안 모색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협의회 차원 또는 의제실천위원회 차원에서 필요하고 적절한 주제를 선택하여 소규모 워크숍·토론회 등을 개최하기로 함

- 2007년에는 환경정책포럼을 분기별 각 1회 이상씩 총 6차례의 포럼과 워크숍 및 연찬회 등 형식으로 개최

- ▶ 제1차 환경정책포럼(3월22일): 지속가능한 경기도 발전과 물, 경기도 맑은 물 관리정책의 방향과 과제
- ▶ 2007 경기환경정책포럼 준비 워크숍(4월17일): 경기지역 에너지운동 전략수립을 위한 정책워크숍으로 개최되었으며, 경기지역 에너지 정책 및 운동 흐름 등 점검
- ▶ 제2차 환경정책포럼(6월26일): 기후변화 대응 관련 세계 동향과 경기도의 대응정책
- ▶ 제3차 환경정책포럼(9월7일): DMZ 합리적 활용을 위한 정책제안
- ▶ 2007 경기환경정책 포럼 재활용 워크숍(11월9일): 경기 고속도로 휴게소의 분리수거와 쓰레기 성상 실태조사를 통한 재활용 정책
- ▶ 제4차 환경정책포럼 및 송년 연찬회(12월27일): 강변 숲의 의의와 조성방안 모색, 경기도 지속가능발전체계 구축을 위한 특강

- 2008년도에는

- ▶ 지역하천 모니터링 워크숍(5월1일)과 모니터링 결과분석 워크숍(6월13일) - 수질·하천의제실천위원회 주관)
- ▶ 도시계획에서의 친환경성 지표 작성 및 적용사례에 관한 도시계획 1차 워크숍(3월28일) - 도시계획의제실천위원회
- ▶ 학교급식 관련 정책 간담회 4회 개최 - 농업의제실천위원회 주관
- ▶ 시민참여 문화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4월28일) - 문화의제실천위원회
- ▶ 지역 기후변화 대응 순회 토론회 5회 개최 - 에너지의제실천위원회

○ 지방의제21 관계자와 NGO 관계자, 공무원, 기업인 등 지방의제 실천의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여 어울리는 어울 한마당은 점차로 교육적 효과보다는 함께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문화적 행사로 발전함

- 2007년 제7회 어울 한마당 행사는 10월4일~6일까지 남한강 연수원에서 개최되었으며, 주로 체육대회와 어울림마당으로 구성되어 지속가능발전 및 지방의제21 관계자들의 화합증진과 친밀성 강화, 위원들 간의 교류 확대를 도모. 기존과 다른 내용 변화의 이유는,

- ▶ 전국대회를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에서 유치·주관하였기 때문에 토론회 등의 내용은 전국대회에서 진행하고, 경기도 차원의 어울 한마당은 전국대회에 참여한 전국의 의제 관계자들의 어울림과 상호 화합을 위한 성격으로 전환하여 문화제와 체육대회 등으로 수행

- 2008년 제8회 어울 한마당 행사는 폐지됨. 그 이유는,

- ▶ 2008년 람사르 총회가 한국에서 개최되는 것과 관련한 예산 투입으로 우선 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이며,
- ▶ 행정으로부터 행사성 사업이라는 지적이 있었음

○ 어울 한마당이 폐지되었으나, 실천협의회에서는 이후 전국 지속가능발전 관련 활동 내용의 충분한 교류와 공유를 확산하고 관계자들의 어울림 마당을 겸하는 경기지속가능발전대회 형식으로 확대·발전시키고자 하는 계획 가지고 있음

○ 지난 시기 정기적으로 진행되어 오던 '양성평등 워크숍'이 '양성평등위원회' 체계의 신설과 함께 다양한 형태로 분화·발전하였는데, 2007년에는 '의도하지 않은 치우침의 발견'이란 주제로 성인지적 관점에서 본 푸른경기21 조사·연구 보고서를 발간하였고, 2008년에도 양성평등 세미나와 지방의제21과 여성정책을 주제로 한 포럼 개최 예정

○ 지난 시기 이후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차원에서 매년 실시되던 '도시대학'이 이 시기에도 매년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친환경마을만들기 사업과

연계된다는 차원에서 단순한 교육을 넘어 실천사업으로 발전하는 모범적로 평가됨. 이로 인해 2007년에는 이 프로그램이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함

- 2007년의 경우에는 기초의제 실무자 및 NGO, 공무원들이 참여하여 마을만들기의 개념 및 조사방법 등에 관한 프로그램 진행
- 2008에는 지역에 밀착한 프로그램을 위해 경기 북부와 남부로 나누어 진행
 - ▶ 경기남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의 5대 과제 등의 강의와 현장조사, 과제별 실습, 과제발표/평가 등의 프로그램으로 4월19일부터 5월17일까지 총5회 실시
 - ▶ 경기북부: 경기남부와 같은 주제로 5월3일부터 31일까지 총 5회 실시

○ 경기시민사회 아카데미는 지난 시기까지는 도시사회분과 사업으로 진행하였는데, 이 시기에는 분과들이 해체되었기 때문에 실천협의회 사무처에서 직접 주관하여 2008년 1월에 실시.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 시기에는 의제실천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계획하면서,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들은 줄어들었고, 대신 의제실천위원회 차원에서 의제실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등의 사업으로 분화됨

- 2008년 1월10일~11일,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및 기초의제 실무자 40여 명이 참여하여 일반교양 강좌 및 실습과 조직 진단 및 과제도출 워크숍 등을 진행

○ 국제교류사업과 관련해서는 이 시기에 이를 보다 체계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시도되었는데, 그것이 가시적으로 드러난 것은 2007년 총회를 통해 <푸른경기 21실천협의회> 내에 특별사업위원회 형식의 '국제사업위원회'를 두기로 결의한 것. 따라서 이 시기의 국제교류 사업은 주로 국제사업위원회 중심으로 기획·진행

○ 이러한 외적 변화를 통해 드러나는 가장 큰 내용적 변화는 국제교류사업을 크게 '일' 중심의 사업과 '충전과 학습' 중심의 사업으로 분류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다는 것

○ 일 중심의 사업으로는 2007년 11월, 영국에서 개최된 생태발자국 국제 워크숍에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에서 담당자 1인을 파견하였고, 2008년에 중국 난징에서 열리는 세계도시포럼에 참여단을 조직하여 파견기로 함

○ 그러나 '일' 중심의 국제교류사업은 이전 시기와 달리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변화되었는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국제적 이슈와 관계된 활동을 단순히 외국 연수나 회의 등에 참여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이와 관련한 주제에 대한 국내 실천을 조직하고 실행하였다는 것.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생태 발자국 관련 국내 세미나와 생태예산 관련 국내 세미나가 진행되었고, 생태발자국과 관련해서는 「생태발자국 안내서」 발간

- 생태 발자국 관련 국내 세미나는 2007년 8월과 9월에 2회 진행되었고, 지역단위 지속가능성 관리 도구(tool)를 소개하고 학습하는 기회 제공과 지역단위 지속가능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 및 도입방안 모색을 주제로 진행
 - ▶ 1차 세미나: 생태발자국 개념과 측정하기
 - ▶ 2차 세미나: 생태발자국 추정방식과 의미 -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 생태예산 관련 국내 세미나는 2007년 6월14일~7월21일까지 5차례에 걸쳐 진행되었고, 생태 발자국 관련 국내 세미나와 같은 목적으로 진행
 - ▶ 1차 세미나: 생태예산의 개념과 적용가능한 방식
 - ▶ 2차 세미나: 생태예산 시행을 위한 단계별 지침 I(도입을 위한 준비)
 - ▶ 3차 세미나: 생태예산 시행을 위한 단계별 지침II(도입, 이행, 평가)
 - ▶ 4차 세미나: 생태예산과 지방의제21 등 Tool 간 통합가능성 모색
 - ▶ 5차 세미나: 생태예산 실습
- 2008년 난징 세계도시포럼 참여와 관련해서는 '미리 보는 세계도시포럼' 세미나 준비 중
- 또한 2007년 생태발자국 관련 사업을 2008년에도 지속하고 있는 바, 2008년에는 생태발자국을 측정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전국지속가능발전센터와 도내 기초의제들이 협력하여 '(가칭)생태발자국 사업단' 발족 예정

○ 충전과 학습 중심의 국제교류 사업에 있어서도, 이전에는 주로 선진 사례를 탐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던 데에 반해, 이 시기에는 참가자들에 대한 충전 및 상호 이해뿐만이 아니라 국제 교류 또는 연대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

- 2007년에는 태국의 치앙마이와 골든트라이앵글, 매솟(버마 난민촌) 지역을 8월 19일~27일까지 16명의 위원 및 도의원, 공무원, 언론이 등이 방문하였으며,

- 2008년에도 작년과 같은 지역들을 방문. 그 이유는,

▶ 작년에 방문한 지역들이 지구 전체의 지속가능발전 이슈가 가장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현장이라고 판단되어 참여자들이 만족도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2008년에도 다른 연수 참여자들에게 같은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

▶ 물가가 비싼 나라들에 대한 연수에 비해 비용 대비 보다 많은 이들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

▶ 단순히 외국에서 배운다기보다는 상호 교류를 통해 연대와 협력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보다 지속적인 교류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

- 따라서 2009년도에도 같은 지역을 방문할 계획이며, 현지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우리의 활동을 소개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더 나아가 공동사업으로까지 발전시킬 계획

○ 또한 국제교류사업과 관련하여 2007년 국내에서 '중앙선 폐철도부지 활용 방안 국제 토론회'를 개최하였는데, 이 사업은 '도시대학'을 통해 마련된 '해질모루 십리길 공원만들기 조성안'이 친환경적으로 남양주시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폐철도 부지를 친환경적인 시민공간으로 재창조해 온 세계적인 사례를 소개하기 위해 유럽과 일본의 관계자를 초청하여 개최

○ 이 시기도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정기·부정기 사업을 포함하여 다양한 교육 및 토론회, 워크숍 등이 실시되었는데,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내용은 '경기정책포럼'이 '경기환경정책포럼'으로 개편되면서 환경교육 및 환경정책에 대한 프로그램이 대폭 증가하였다는 점. 이는 역으로 환경 이외의 지역 현안에 대

한 대응은 그만큼 축소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의제실천위원회별로 다양한 현안이 다루어짐으로써 이 부분을 보완. 또한 국제교류사업에 있어서도 내부 조직체계를 구성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무엇보다도 관련된 주제를 국내에서도 환기·전파하기 위한 세미나 등을 개최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변화라 할 수 있음

4) 기초의제 추진기구와의 네트워크(기초의제협력위원회 사업)

○ 이 시기는 '양성평등위원회' 이외에도 기존의 '교류협력위원회'가 '기초의제협력위원회'로 재편되면서 그 역할을 보다 구체화 함. 이렇듯 또 다시 기초의제와의 협력사업 전담 조직의 명칭을 바꾼 이유는,

- 애초 교류협력위원회로 명칭을 바꾼 이유는 국제교류 및 전국 지방의제 추진기구들과의 공동사업 등을 모두 포괄하려는 의도였으나, 실제로 기초의제 추진기구 관계자들이 참여함으로써 기초의제와의 관계를 주요한 활동으로 삼았고, 국제교류위원회가 신설되는 등으로 세부 역할에 따른 위원회 위상이 재정립될 필요가 제기

- 기초의제가 실천협의회의 실질적인 주체이자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기초의제 추진기구 관계자들로부터 제안

○ 2007년에는 크게 세 가지 사업을 진행

- 경기지역 지방의제21 실무자 연수: 6월27일~29일까지 '유쾌한 가능성의 발견'이란 주제로, 감마모텔을 통한 조직진단과 vision-making, 조직 내 의사소통, UCC 제작과정 등의 프로그램 진행

- 경기지역 지방의제21 진단 및 협력체계 구축방안 연구

- 권역별 공동사업:

▶ 동부권역: 경기·강원·충북- 삼도 접경유역 물 공동체 기반구축 사업

▶ 서부권역: 각 기초지역 탄소발자국 시민 측정단 구성 및 배출량 측정, 시범

도시 추진

▶ 남부권역: 기후변화에 대한 지역적 대응방향 모색을 통한 경기 남부권역 의 제 협력 강화를 위한 워크숍

▶ 북부권역: 경기북부 의제 합동 워크숍

○ 2008년에도 기초의제 사무국장단 연수와 더불어 기초의제 간사단 연수도 수행하였으며, 구체적 실천사업으로 기초의제 권역별 사업을 전년도에 이어 진행

- 동부권역: 경기·강원·충북 삼도접경 유역공동체 기반구축사업(지속사업)

- 서부권역: EM 정보 및 활용 가이드북 및 리플렛 제작과 홍보캠페인, 가정 내 EM 활용 모니터링 전개 등

- 남부권역과 북부권역은 사업내용 기획 중

○ 이 시기 기초의제와의 협력사업 역시 지난 시기 이후부터 활성화된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기초의제 추진기구 실무자 연수와 공동사업이 정착되고 있다는 특징을 보여줌

5) 조직체계 개편

○ 이 시기를 지난 시기와 구분하는 가장 큰 특징은 2007년 총회를 통해 <푸른 경기21실천협의회> 활동추진체계가 크게 개편되었다는 것

○ 가장 큰 변화는 의제실천 및 각종 사업들을 주관하던 분과위원회가 해체되고, 대신 재작성된 13개 의제를 실천하기 위한 13개 의제실천위원회가 신설되었다는 것

- 이 변화는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의 활동이 작성된 의제를 실천하는 데에 가장 큰 활동역량을 배치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만큼 의제추진기구로서의 위상을 실천적이고 조직적으로 정비하였음을 의미

○ 이 시기는 각 분과위원회가 해체하면서 특별히 기존의 '여성분과위원회'를 대체할 '양성평등위원회'를 신설

- 이는 양성평등에 대한 관점이 의제실천위원회로는 포괄하기 힘든 영역이기 때문이며, 또한 각 의제 전체를 관통해야 할 중요한 관점임을 강조하기 위함

- 이 위원회는 기존의 '교류협력위원회'와 같은 위상으로, 기존의 양성평등 관련 사업들이 이 위원회 주관사업으로 귀속되었고,

- 의제지표에 구애 받지 않고 다양한 양성평등 관련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조직체계의 개편 내용 중 기존의 '교류협력위원회'가 '기초의제협력위원회'로 개편되었는데, 이는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에 있어 교류협력사업의 핵심이 기초의제 추진기구와의 긴밀한 관계형성 및 공동사업에 있음을 강조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

○ 또한 기존의 '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정책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기존의 자문위원회가 그 위상에 비추어 활성화되지 못한 점을 개선하여 전문가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

- 새로이 구성된 정책위원회는 의제사업에 대한 평가와 경기도의 정책평가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을 주로 다루는 것을 주요한 목표로 설정

○ 사무처 내에서도 사무처장의 임기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는데, 이는 사무처장의 임기를 1년 더 연장해 사무처의 활동을 안정화함으로써,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시도임

○ 이 시기 조직개편의 특징을 요약하면, 작성된 의제 지표에 근거하여 지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의제실천사업을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의 주요사업으로 설정하였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 각 분과위원회를 해체함으로써 드러나는 문

제들을 위원회 신설과 사무처의 권한 강화를 통해 보완하였다는 것

6) 홍보사업

○ 이 시기에도 웹진이 꾸준히 발간되어 관계자들에게 발송되었으며, on-line 상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소식지 「푸른경기21」을 하반기부터 분기별로 제작하여 발송하기 시작

7) 기타 사업

○ 2008년에는 제10차 랍사르 총회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것에 맞추어(10월 28일~11월4일) 경기도 습지홍보책자 제작과 총회 참여활동 수행 중
- 습지홍보 책자는 2007년 12월부터 제작 시작하여 2008년 10월 발간 예정
- 3개 국어로 발간(국어, 영어, 중국어)

○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보호 관련 실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내용으로는 2008년 기후학교와 기후보호 실천사업, 경기도와 함께 하는 실천사업, 자료집 번역 등

- 기후학교는 2008년 4월~5월 사이 4주 동안 매주 한 차례씩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각 모임에서는 2~3회의 강의와 1~2회의 워크숍으로 진행. 교육생으로는 경기도 및 기초자치단체 관련 공무원과 지방의제21 추진기구 관계자, 민간단체 관계자 및 관련 분야 연구자 등 총 85명이 등록·참여
- 기후보호 네트워크 워크숍: 기초의제협력위원회 함께 9월 추석 이후 토론회를 개최기로 하였으며, 정부와 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 기반구축사업과 효과적인 탄소 포인트(마일리지)제 운영방향, 고유가 위기, 교통수요관리 정책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경기지역 지방의제21 기후보호 공동사업 모색 등의 주제로 진행될 예정으로, 2008년 9월 현재 2회의 기후포럼 개최하였으며 지속사업 관

련하여 행정과 협의 중에 있음

▶ 1차 기후포럼: 9월17일 80여명이 참여하여 '탄소포인제도의 의미와 전망'이란 주제로 진행

▶ 2차 기후포럼: 9월24일 60여명이 참여하여 '자전거가 대안이다'라는 주제로 진행

- 경기도 차원에서 시민들에 대한 CO2 감축 캠페인 전용 사이트를 개발 중인데, 실천협의회가 협력사업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이루어질 실천사업의 주관을 요청받고 있음

- 기후보호 관련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산화탄소 억제(reduction)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으나, 세계적으로는 이와 함께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adoption)도 중요한 관심사. 따라서 이와 관련한 자료 번역 중

○ 또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의제실천위원회로부터 녹색구매 관련 국제동향 자료집을 요청하여 번역작업 진행 중

○ 이 시기에도 지난 시기에서와 마찬가지로 <전국지속가능발전협회>, <경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의 사업에 활발히 참여하였으며, <경기녹지재단>에 사무처장이 이사로 참여하고 경기도 <아름다운 가게>의 시민단체에 대한 수익배분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

8) 정착기 종합

○ 이 시기는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10주년을 맞이하는 2008년이 포함된 시기로, 그 이전 시기와 비교해 의제실천사업과 기초의제와의 협력사업, 교육 및 토론회 등의 사업과 국제교류 사업 등 전 분야의 사업들이 일정 정도 발전·정착해 있는 상태를 보이고 있음

○ 또한 지난 시기까지는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의 사업이 경기도 중앙에서의 정책을 모색하는 활동에 많은 역량이 투입된 데에 비해, 지난 과도기를 거쳐 이 시기에는 의제실천사업을 중심으로 각 지역에서의 실천을 추동하는 사업이 보다 강화된 변화를 보이는 점도 광역의제 추진기구로의 위상을 확립하고 도민들의 실천 참여를 촉진하는 방향으로의 변화라 볼 수 있음

- 예를 들면, 2008년 기후학교와 주민자치실천위원회 주관의 주민자치 아카데미, 친환경마을만들기 사업의 정착 등은 모두 경기도 차원이 아닌 구체적인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 할 수 있음

- 이는 도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사업 실천이라는 방향성을 갖는 변화이며, 이는 실천협의회의 활동이 도민들의 참여를 경기도 차원이 아닌 구체적인 생활의 현장에서 구체적인 의제실천을 통해 활성화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음을 의미

○ 따라서 이 시기는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가 도민들의 참여 폭이나 내용적인 면 모두에서, 즉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발전하고 그러한 사업 및 활동방식이 정착되어 가는 시기라 볼 수 있음

○ 정착기에 해당하는 이 시기의 대표적인 활동성과를 중요한 몇 가지만 추려서 요약하면,

- ① 무엇보다도 가장 큰 성과는 분과 체계를 13개 의제별 실천위원회 체계로 개편함으로써, 작성한 의제의 지표를 개선하기 위한 실천사업과 모니터링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꼽을 수 있음. 이는 기존의 민간단체 지원사업과 환경정책포럼 등의 사업을 폐지하고 의제실천사업으로 관련 예산을 대폭 배정한 것에서도 잘 드러나며, 각 의제실천위원회에 대해 사무처에서 지원이 필요한 내용을 제출토록 해 녹색구매사례집을 번역하는 등 의제실천위원회의 지원요청에 대한 적극적 대처 역시 이러한 변화를 잘 보여줌.
- ② 각종 공모사업 및 교육, 토론회 등의 사업에 있어 다른 기관에서도 지원하는 등으로 중복되거나 형식적 운영이라 판단되는 것들을 과감하게 정리하였고,

대신 의제실천사업에 많은 역량을 투입함.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민간단체 지원사업이 폐지되고 그 예산이 대폭 의제실천사업으로 배정되었으며, 경기(환경)정책포럼이 폐지되고 의제실천사업위원회를 중심으로 의제실천 및 모니터링과 관련된 사업으로 추진됨

- ③ 교육 및 현안대응을 통한 정책대안 모색도 이전 시기에서부터 활성화된 모습을 이 시기에도 이어오고 있는데, 이 시기의 특징은 대부분의 주제가 작성된 의제의 내용을 실천하는 것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것. 이는 그만큼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가 의제추진기구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정착시켜 나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음
- ④ 도시대학은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에서 개발한, 교육을 통해 그 결과물로서 실천활동을 연결하는 매우 모범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2007년 대통령 상을 수상하기도 함. 2008년에는 지역사회와 보다 밀접한 이슈와 교육내용을 담기 위하여 경기 북부와 남부로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마찬가지로 그 결과물로 친환경 마을만들기 사업을 도출하고 있음. 이는 도시대학이 계속해서 진화·발전하고 있음을 의미
- ⑤ 기초의제와의 긴밀한 연계와 관련해서, 기초의제 추진기구가 경기의제 추진기구의 중요한 파트너이자 주체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존의 '교류협력위원회'를 '기초의제협력위원회'로 변화시켜 활동 위상 및 역할을 명확히 하였으며, 기초의제 추진기구 실무자들의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 또한 지난 시기에 한 차례 시도되었던 권역별 기초의제 추진기구 간 협동실천사업을 정착화시킴. 이는 기초의제 추진기구와의 관계에서 경기의제 추진기구의 역할 및 위상이 점차로 정착되어 가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⑥ 이 시기에는 의제실천사업 등에 대한 도민들의 참여가 대폭 확대됨. 이는 여러 지역에서 추진된 직접적 의제실천사업과 의제실천에 초점을 맞춘 각종 공모사업, 의제실천과 연계된 각종 교육사업 및 현안대응 활동, 도시대학을 통해 각 지역에서 실천하고 있는 친환경마을만들기 사업 등이 모두 경기도민들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잘 알 수 있음. 그밖에도 의제실천위원회 모니터링 결과의 지역별 보고회 개최, 도민들과 직접적인 접점을 확

보하고 있는 기초의제와의 협력사업 활성화 등도 모두 도민들의 참여를 전제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 시기 도민들의 참여는 이전의 어느 시기보다 활성화되고 있음. 하지만 도민들의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과 고려는 보다 더 강화될 필요가 있음

- ⑦ 지방의제21이 국제적 연대와 과제를 토대로 작성되고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기의제21 추진기구에 있어 국제교류 사업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음. 그런 점에서 이 시기에 ‘국제사업위원회’를 상설 위원회로 신설하여, 기존의 단순한 연수 차원을 벗어나 ‘일’ 중심 사업과 ‘충진과 학습’ 사업으로 분류하였을 뿐 아니라, ‘충진과 학습’의 경우 연수 그 자체가 아닌 지속가능발전의 필요성과 방향 등 체험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고 지속적인 교류와 연대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 발전한 모습이라 할 수 있음
- ⑧ 국제교류 사업과 관련하여 또 다른 성과를 지적하자면, 단순히 몇 명이 해외의 각종 회의나 워크숍에 참여하거나 학습기회를 가진다는 차원을 넘어, 국제적 이슈를 국내에 전파·확산하고 그 이슈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모색하기 위한 국내 활동이 병행되었다는 점 역시 기존 시기와 비교해 질적인 발전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음
- ⑨ 이 시기는 또한 각 활동체계들이 명확히 자신들의 역할과 위상을 갖도록 함으로써 활동내용의 활성화를 꾀하기도 했는데, 교류협력위원회를 ‘기초의제협력위원회’와 ‘국제사업위원회’ 등으로 세분화하여 조직체계 정비한 것도 조직체계별로 사업의 내용을 명확화 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으며, 사무처장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사무처의 역할을 강화·안정시키기도 함. 또한 그동안 활성화되지 못하였던 ‘자문위원회’를 ‘정책위원회’로 개편하여 모임의 정기성과 활동내용 및 위상을 명확히 한 것도 긍정적 변화라 평가됨
- ⑩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가게>와 함께 하는 ‘경기 그물코 센터’나 <경기문화재단>의 문화 모니터링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등 여러 기관들의 활동 중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관련 사업에

단순 참여하는 것을 넘어 실천 주관단체로 요청받는 등은 그동안 <푸른경기 21실천협의회>가 지속적 발전과정을 통해 경기도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음을 의미

- 이렇듯, 이 시기는 지난 시기의 성과를 계승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의제를 실천하기 위한 활동의 발전을 보여주고 있음. 그러나 2008년은 외적인 환경의 변화로 인해 그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후 발전을 모색할 필요가 절실한 전환기로서의 성격도 지님
 - 즉,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의 통과에 따른 법적 위상의 변화와 경기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의 위상 및 역할의 분담 등을 통한 새로운 활동 방향과 모델이 개발될 필요가 있음
 - 이에 관해서는 이 보고서의 4장에서 다룰 것임

제 3 장 10년 활동 평가 - 활동내용을 중심으로

1. 평가 기준

○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10년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 하나는 실천협의회의 10년 활동을 평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10년의 활동이 우리 사회 특히 경기도의 지속가능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 즉, 실천협의회 내적 활동에 대한 평가와 외적 환경의 변화에 대한 기여도가 중요한 평가의 기준이라 할 수 있음

○ 하지만, 지방의제21은 그 성격상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의 지난 10년 평가 역시 그러한 관점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음. 따라서 이 장에서는 실천협의회의 지난 10년을 경기도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대내외적 기여도를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하고자 함

○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의 10년 활동역사가 우리 사회, 특히 경기도 지역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에 대한 이해와 합의가 먼저 전제될 필요가 있음

○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란 인구증가와 경제성장 속에 파생되는 전 지구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자연과 공존하면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비롯된 개념으로, 제 2장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1987년 UN에 의해 구성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CED)>의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 보고서에서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

능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라고 개념 정의됨

○ 또한 1992년의 리우에서 개최된 'UN환경개발회의(UNCED)'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넘어 자연자원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의 지속가능성으로 발전시킴

- 이 회의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할 구체적인 노력으로 2개의 선언, 1개의 성명, 그리고 2개의 협약을 채택하였고, 보다 효과적인 지구환경보전 전략 수립을 위하여 <유엔지속개발위원회(UNCSD)>를 설치하기로 결정
- 선언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원칙적인 내용의 '리우선언'과 리우선언 이행을 위한 21세기 지구환경보전 실천 강령으로 정책목표와 지침을 제시한 '의제21(Agenda 21)'이 있음

○ 2002년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f Sustainable Development)'는 리우 회의 이후 10년 간의 지속가능발전 이행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향후 추진계획 마련을 목적으로 개최

- 이 회의에서 채택된 「WSSD 이행계획」 제1장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의 세 가지 요소인 경제개발, 사회발전 및 환경보호와의 통합을 강조하고, 빈곤퇴치, 지속불가능한 생산 및 소비 패턴의 변화, 경제 및 사회발전의 기반인 자연자원의 보호와 관리를 지속가능발전의 최고 목표이며 필수적인 요건으로 제시

○ 우리나라 역시 1996년 '의제 21'을 국가실천계획으로 수립하여 UN에 제출하였고, 관계 부처 간 협의와 조정을 수행할 범정부·범국가적 기구로서 2000년 9월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PCSD)>를 설치, '의제 21'의 국가실천계획의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2007년 8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제정하기에 이룸

○ 또한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는 지속가능 지표를 3개 분야,

14개 영역, 33개 항목, 77개 지표로 확정·발표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의 구체적 운용 및 평가체계를 구축

<표 III-1> 국가 지속가능발전 지표

분야	영역	항목	지표	
사회	1. 형평성	1-1. 빈곤	1) 빈곤인구비율 2) 소득불평등에 관한 지니계수 3) 실업률	
		1-2. 노동	4) 근로시간 5)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비율	
		1-3. 남녀평등	6) 남성 대비 여성 임금비율 7)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2. 건강	2-1. 영양상태	8) 유소년 영양 상태	
		2-2. 사망률	9) 영아 사망률	
		2-3. 수명	10) 기대여명	
		2-4. 식수	11)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2-5. 건강관리	12) 건강보험 보장률 13) 사회복지지출 14) 유소년 전염병 예방주사	
	3. 교육	3-1. 교육수준	15) 중등학교 순졸업률 16)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17) 공교육비 지출	
	4. 주택	4-1. 생활환경	18)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수 19) 주택 수(인구 1천 명당) 20)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5. 재해·안전	5-1. 범죄, 재해	21) 범죄발생률 22) 자연재해 피해	
	6. 인구	6-1. 인구변화	23) 인구 증가율 24) 인구 밀도 25) 고령인구비율	
	환경	1. 대기	1-1. 기후변화	26) 온실가스 배출량 27)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28) GDP당 온실가스 배출량
			1-2. 오존층	29) 오존층 파괴물질 소비량
			1-3. 대기질	30) 광역도시권별 대기오염도
		2. 토지	2-1. 농업	31) 농지면적 비율
				32) 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비율
				33) 식량자급률
				34) 화학비료 사용량
				35) 농약 사용량
	2-2. 산림	36) 국토면적 중 산림지역 비율 37) 1인당 도시면적 비율 38) 목재 벌채 정도		

경제	3. 해양/연안	2-3. 도시화	39) 도시화율 40) 수도권 인구 집중도		
		3-1. 연안지역	41) 연안 오염도 42) 폐기물 해양 투기량 43) 갯벌 면적 증감		
			3-2. 어업	44) 수산 자원량 45) 어업 양식량	
	4. 담수	4-1. 수량	46) 취수율 47) 1인당 1일 물소비량		
		4-2. 수질	48) 4대강 수질오염도 49) 하수도 보급율		
	5. 생물 다양성	5-1. 생태계	50) 자연보호지역비율 51) 국가생물종 수 52) 멸종위기종 수		
	경제	1. 경제구조	1-1. 경제이행	53) 국내총생산(GDP) 54) 1인당 GDP 55) 경제 성장률 56) GDP 대비 순 투자율 57) 소비자물가지수	
				1-2. 무역	58) 무역수지
				1-3. 재정상태	59) 국민 1인당 조세부담률 60) GDP 대비 대외채무 비율
				1-4. 대외원조	61) GNI 대비 공적개발원조(ODA) 비율
2. 소비/생산		2-1. 물질소비	62) 자원생산성		
		2-2. 에너지 사용	63) 1인당 연간 에너지 소비량 64) 총에너지 공급량 65) 재생가능에너지자원 소비 비중 66) 에너지 원단위		
			2-3. 폐기물 관리	67) 생활 및 일반폐기물 발생량 68) 지정폐기물 발생량 69) 방사성 폐기물 발생량 70) 폐기물 재활용 및 재이용	
		2-4. 교통		71)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 72) 자전거 도로 총연장 73) 자동차 사고건수	
		3. 정보화 등	3-1. 정보접근	74)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 75) PC 보유 가구비율	
			3-2. 정보인프라	76) 온라인 신청가능 민원종류	
			3-3. 과학기술	77) GDP 대비 R&D 지출 비율	

○ 그러나 이 지표는 기본적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통해 그 실천 여부가 모니터링 되고 또한 행정에 있어서 실천계획의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지방의제21이 이 모든 지표의 달성에 책임을 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음
- 지방의제21의 경우에는 위의 지속가능발전 지표와 연관된 지방의제21작성, 특

히 실천 가능한 의제 작성과 작성된 의제의 실천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체계라 할 수 있음

○ 이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지방의제21 추진기구 간의 위상 및 역할 차이와 관계되어 있는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지표들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또한 각종 정책결정 과정에서 지속가능발전과의 연관성에 따라 정책자문을 수행하는 기구라 할 수 있음. 이는 지속가능발전의 정도를 평가하는 주체는 지방의제21 추진기구보다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더욱 적절하다는 것을 의미

○ 반면에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와 같은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의 경우, 시민사회의 각 주체들이 참여하여 지방의제21을 작성하고 이의 실천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가장 주요한 사업으로 삼는다는 위상을 지니고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총체적인 지속가능발전의 결과보다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주체들의 참여 증진, 실천사업을 통한 민관협력 증진, 작성된 의제의 실천사업 추진 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다양한 과정상의 노력과 그러한 노력이 지속가능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가를 중심으로 평가의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또한 평가에 있어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 첫 번째는 실천협의회의 지난 10년 활동 내용을 지속가능발전에 지방의제21 추진기구가 기여할 수 있는 또는 해야 할 몇 가지 기준 정해 이를 바탕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며(활동내용을 통한 평가),
- 두 번째는 실천협의회 의사결정과 실천 활동에 핵심적으로 참여하는 관련 주체들이 지난 10년의 활동을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몇 가지 지표를 통해 그 정도를 측정하고자 함(활동 내용에 대한 핵심 주체들의 평가 정도 측정)

○ 이 장에서는 위의 두 가지 평가방법 중 첫 번째를 다루고자 함. 즉, <푸른경

기21실천협의회>의 활동방향이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의 고유한 역할의 활성화 정도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다루고자 함. 두 번째 평가방법이라 할 수 있는 실천협의회 핵심 참여그룹들의 주관적 평가에 대해서는 다음 장인 제4장에서 다룰 예정임

○ 따라서 이 장에서는 평가의 기준을,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가 광역의제라는 위상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채택함
- 민간파트너십을 위한 활동 정도
- 기초의제와의 협력 정도
- 의제지표 수립의 적절성과 실천 정도

○ 지방의제21 추진기구는 그 자체로도 민관협력기구라는 위상을 지니고 있으며, 그 실천 과정에서 민관 간의 협력관계를 매개하고 증진시키는 것을 고유한 역할의 하나로 가지고 있다 볼 수 있음. 이는 지방의제21 추진기구들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기여 정도 평가에 있어 민관협력이라는 원칙이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함을 의미. 특히, 이 분야에 대한 이 보고서의 평가 기준 중에는 ‘시민사회 역량강화’라는 세부 기준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민관협력이 원활히 기능하기 위해 행정과 평등·대등한 파트너로서의 시민사회가 존재해야 하기 때문. 그러나 아직 시민사회의 역량이 충분히 강화되지 않은 현실적인 점을 고려한다면, 민관협력의 질적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사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과정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 기초의제와의 협력 정도는 광역의제로서의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고유 위상 및 실천 형태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한 기준임. 즉, 광역의제로서의 실천협의회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활동의 주체를 조직하는 차원에서나 경기도 내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도 구체적인 지역실천의 매개가 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집단은 기초의제라 할 수 있음. 이는 기초의제와의 협력관계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느냐에 따라 광역의제 추진기구

의 실천역량이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따라서 기초의제 작성과 추진 과정에 대한 지원(의제 내용의 연관성 포함)과 경기의제 작성 및 추진과정에서의 협력 및 실천 과정에서의 역할분담 등은 향후 실천협의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활동에 있어서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는 기준이라 하겠음

○ 지방의제21 추진기구가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가장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은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내용 중 실천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몇 가지를 지방의제21로 작성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에서 작성한 지방의제21의 내용이 실천 가능한 것인지, 실천사업이 해당 의제의 지표를 달성하는 데 적절한 것인지, 그 과정에 시민들의 참여가 활성화되었는지 하는 것은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의 중요한 기준이라 할 수 있음

- 물론, 지방의제21과 지속가능발전의 연관성은 지방의제21 세부내용과 지표가 지속가능발전 지표와 어느 정도 연관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해야겠으나,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발표한 지표가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거니와 기본적으로 작성된 '경기 의제21'이 지속가능발전 지표와 별개의 것이라 볼 수 없어 그러한 연관성 평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았음. 대신 작성·선포된 의제의 실천가능성 및 적절한 실천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이 더욱 의미가 있다고 보았음

2. 민관파트너십(민간협력)을 증진을 위한 기여

○ 지방의제21의 작성과 실천원리 중 중요한 한 가지는 민과 관의 협력적 관계를 통해 이 모든 과정을 수행한다는 것. 그리고 이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기여 정도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기준이라 할 수 있음

○ 민간협력에 대한 기여는 첫째 민과 관이 상호를 파트너로 인식하고 신뢰하도

록 기여하는 것과 더불어 공동사업의 실천, 그리고 민과 관이 특정 정책 및 실천의 과정에서 공동논의 및 공동실천 하도록 대개하는 역할, 대안적 세력으로서의 민간 역량을 제고시키는 사업 등으로 나타날 수 있음

- WSSD의 이행계획에서도 지방의제21을 비롯한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이해당사자의 역할과 능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음4)

○ 그러나 이러한 역할은 별도의 사업을 통해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일상적 사업 속에서도 그러한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루어짐. 따라서 본 절에서는 민관협력에 기여하는 형태보다는 그러한 효과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민간협력 사업형태별로 분류하여,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가 지난 10년간 수행해 온 민관협력 증진 노력과 그 성과를 평가하고자 함

○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는 그 위상 자체가 민관협력기구이므로, 모든 사업이 민관협력이라는 형태를 띠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이는 실천협의회 10년 전체를 민간협력이라는 관점에서 재정리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을 수 있음. 하지만, 일상적으로 행정의 지원에 의해 민간단체들과 함께 실천활동을 수행한 것은 이 장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고자 함. 다만, 민간과 행정이 점점을 형성하는 사업들만을 고려하여 그 과정이 민간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 및 성과로서 적절한 기여를 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자 함

1) 활동 유형별 민관협력 강화 노력 및 성과 평가

○ 민간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의 기여 및 성과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본 보고서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사업유형들은 크게 아래와 같음

4) 경기개발연구원, 2007.11, 47쪽에서 재인용

- 의제 작성 과정에서의 민관협력 정도 및 위원 구성을 통한 협력적 관계
- 의제 실천 및 모니터링 사업에 있어서의 협력적 관계
- 공동교육 및 연수 등을 통한 공감대 형성
- 현안 대응 토론회 및 대응책 공동 모색, 공동사업 등을 통한 상호 신뢰 증진과 협력적 관계 증진 등

(1) 의제 작성 과정 및 위원 구성

○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가 처음 <경기의제21 추진협의회>로 출발하는 과정에서부터 민관협력은 중요한 동력이 되었음. 즉, 1998년의 의제작성 과정이 민간의 제안과 경기도 행정의 동의와 재정 지원을 통해 추진. 이는 많은 자치단체의 지방의제21이 연구용역을 통해 최초의 지방의제21을 작성·발표한 점에 비추어볼 때, 실천협의회의 지방의제21 작성 과정은 비교적 민관협력의 원칙에 충실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물론, 최초의 의제작성 과정만을 놓고 볼 때 민관협력이라는 기준에 충실하였다는 것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님은 사실. 무엇보다도 이 과정은 지속적인 민관협력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지방의제21을 작성할 필요가 있었던 행정이 이를 민간에 위탁한 것과 같은 성격으로 사업이 추진되었기 때문. 하지만 ‘푸른경기21’의 작성과 발표 이후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가 구성되었고 행정에서도 이를 민관협력을 위한 파트너로 여기고 행·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한 데에는 ‘푸른경기21’ 작성과정을 통해 행정이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일정한 신뢰가 생겼기 때문. 그러한 이유를 몇 가지로 간추려 보면,

- 1998년의 의제작성과정에서 경기도의 시민단체들이 경기도라는 지역적 공감대를 가지고 활동을 기획·실천하기 시작했고, 그 참여의 양과 질이 지속적으로 증가했기 때문
- 의제가 작성되기 이전에는 행정이 필요할 때 주로 자기들의 입장을 지지해주는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자 또는 전문가들을 불러 의견을 참고하는 등의 관행

으로 민과 관의 관계가 설정되었으나, 의제작성과 추진기구 설립 이후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에서 관련 공무원을 불러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시작. 이는 민관파트너십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었던 당시 공무원들에게는 매우 이례적인 경험이었으며, 그 효용성에 대한 인정이 생기기 시작한 계기가 됨

- 1998년 의제작성을 위해 마련한 예산이 1억 정도였는데, 초기에 의제작성 과정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해 예산 역시 잘 집행되지 못함. 이는 공무원들에게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 그러나 경기도의 시민단체와 활동가들이 개입하면서 의제작성 이후 영수증 등의 제반 행정적 과정을 말끔히 처리하자, 의제 작성에 개입했던 시민단체들에 대한 신뢰가 생기기 시작

-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구성 후 자율적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 행정 중심의 사업추진방식에 비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일처리를 목격하게 됨으로써, 민간의 시민단체들이 자신들보다 잘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음을 인지하고 그에 대한 신뢰가 생기기 시작. 가장 대표적으로는 공모대상 단체와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 대한 객관성 유지와, 애초 계획을 실천하지 못하는 대상 단체에 대해 사업 예산을 환수하는 등의 일을 말끔하게 처리하는 등으로, 이러한 사업추진 방식은 행정에서 그간 처리하지 못했던 사업방식이었음

○ 지난 2004년과 2005년의 의제 재작성과정에서는 초기 의제작성 과정에서 미흡했던 담당 공무원과의 협의를 진행. 당시의 의제 재작성은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가 주도하여 민간과 행정의 공동으로 작성토록도 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의제의 내용에 담긴 실천과제 역시 그러한 공동작업의 결과라 할 수 있음

- 의제 재작성 추진과정에서 고려된 원칙 중 하나는 경기도 ‘관련 부서의 행정 계획이 반영된 행정계획과 달성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고
- 재작성 총괄위원회와 의제별 작성팀에 경기도 관련 부서 과장 등이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 의제 초안이 작성된 이후 경기도 관련부서 공무원과 함께 워크숍을 개최하여 그 내용을 조정함

○ 의제작성 및 재작성 과정을 이렇듯 행정의 지원 또는 직접적인 공무원의 참여와 협의를 통해 진행함으로써 외형적으로는 민관협력의 원칙하에 의제가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행정의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라는 질적인 면에서는 다소 미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최초의 의제작성 과정은 단순한 행정의 지원이라는 측면이 강하였고, 의제 재작성 과정에서는 민간의 주도적 작성에 행정의 의견을 수렴하는 정도라고 볼 수 있음

○ 실천협의회 위원들의 구성에 있어서도 일상적인 공동논의와 공동실천을 위한 기반으로 민과 행정공무원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 지난 10년간 관련 부서의 공무원 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음. 특히, 2007년부터 분과체계가 해소되고 대신 의제별 실천위원회 체계가 구축되면서 환경 관련 공무원들이 주로 위원으로 참여하던 것에서 의제실천위원회 별로 다양한 부서의 관련 공무원들이 참여함으로써 공무원과 민간단체 상호간의 관계 증진에 기여하여 옴

-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가 설립된 초기인 1999년 위원들 수는 105명(2000년 정기총회 자료집)이었고 이 중 공무원의 수는 7명에 불과하였으나, 위원 수가 150명으로 늘어난 후 여성분과와 기초의제협의회가 신설되어 실질 위원 수가 그 이상으로 늘어난 2002년도 위원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위원 197명 중 공무원의 수는 공동대표인 정무부지사를 포함하여 16명으로 늘어남. 또한 2006년 총회를 통해 위원의 수가 300명으로 확충된 이후 2007년 의제별 실천위원회 체계로 개편이 되면서 전체 위원 307명 중 19명으로 늘어남

- 물론, 위원 중 공무원 참여 수가 늘어난 것은 전체 위원의 수가 늘어난 것과 관련이 있으며, 전체 위원 중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9년 6.7%에서 2002년 8.1%, 2007년 6.2%로 증가한다고 보기 힘든 측면도 있음. 그러나 이는 공무원들의 경우 관련 업무부서의 과장들이 참여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즉, 경기도 행정의 차원에서는 관련 업무부서의 과장들이 실천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전체 위원 수의 증가에 맞추어 공무원 위원 수가 증가하지 못하는 구조임

- 따라서 공무원들의 참여 정도는 전체 위원 중의 비율보다는 참여자 수의 증감 현황에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며, 그런 점에서 공무원의 참여 정도는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했다고 볼 수 있음

- 그리고 양적인 증가와 더불어 더욱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점은 참여 공무원의 관련 업무 분야가 점차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임. 기존에는 주로 환경 관련 부서 과장들이 참여하였으나, 보다 다양한 분야로 구성된 의제별 실천위원회에는 그만큼 다양한 업무부서의 공무원들이 참여하고 있음

<표 III-2> 시기별 위원 참여 공무원 현황 추이

구분	1999년	2002년	2007년
환경	환경정책과장 환경보전과장 상하수도관리과장 해양수산과장	정무부지사 환경국장 환경정책과장 환경보전과장 환경자원과장 산림복지과장 환경관리과장(2청) 상하수도관리과장	정무부지사 환경국장 환경정책과장 재활용과장 산림복지과장 팔당수질관리본부 수질관리과장 해양수산과장 하천과장 대기관리과장
도시	도시계획과장 교통과장	지역정책과장 지역개발과장(2청)	지역정책과장 도시계획 과장
주민 자치		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산업/ 경제		공업지원과장	산업정책과장
여성/ 복지	가정복지과장	여성정책과장 여성복지과장(2청) 사회복지과장	가족여성정책과장 보육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문화			문화관광과장 문화정책과장
기타		기획관리실정책기획관	농산유통과장
계	7명	16명	19명

* 시기 구분별로 행정조직이 개편되어 부서명과 담당과장의 수만으로는 직접 비교하기 어렵으나, 실천협의회에서는 위원으로 참여토록 위촉한 부서(과장)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 위촉에서 배제한 경우가 없으므로 계속해서 새로운 업무부서의 과장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음

○ 물론, 2007년 이후 이전보다 다양한 부서의 공무원들이 실천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였음에도 아직은 경기도 전체 부서 중 일부 부서의 공무원만이 참여하고 있어, 전반적인 행정의 인식제고에는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하지만, 이는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가 자체적으로 실천가능하다고 판단한 분야와 내용의 의제와 지표를 중심으로 '경기의제21'을 작성한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

- 오히려 문제는 위원으로 참여하는 공무원의 다양성보다는 전체 공무원들의 지속가능발전과 지방의제21에 대한 인식의 정도에서 찾을 수 있음

- 지난 2005년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환경정책과 등의 관련 공무원들은 실천협의회를 도정의 적극적인 파트너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⁵⁾

○ 또한 일상적으로 민과 행정이 공동의 논의를 수행하는 장이라 할 수 있는 위원 참여가 과장으로 국한됨으로써 그 상하 공무원들의 인식제고에도 영향을 끼쳤는지 확인하기 힘들다는 점도 민관협력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미흡한 점으로 꼽을 수 있음

○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천협의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공무원들이 의제작성 및 재작성과 일상적 실천사업에 활성화된 참여를 보이지 않아왔다는 점은 민관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과정과 조직체계가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함

- 이는 실천협의회에 참여하는 위원들 다수가 활성화된 참여를 보이지 못하는 문제와도 상관이 있는데, 대체로 일부 위원들을 중심으로 사업들이 진행되는 문제가 실천협의회 초기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 문제는 공무원으로 참여하는 위원들의 비율이 민간 위원보다 적음에도 핵심적 활동에는 공무원들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것임

5)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2005.12, 54-55쪽 참조

(2) 의제 실천 및 모니터링 사업

○ 지방의제21이 작성된 이후에 의제추진기구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해당 의제의 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사업과 해당 의제의 지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는가를 모니터링 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음

○ 이는 의제작성 과정과 위원으로 참여하는 공무원의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는 앞서의 문제점과 연관됨. 즉, 의제 위원으로 참여하는 공무원들의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위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의제실천 사업 및 모니터링 사업에 행정의 참여가 미흡하다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음

○ 의제 실천 및 모니터링 사업은 크게 두 가지 분야로 실천되었는데, 그 한 가지는 학교 공모 등의 공모사업을 통한 것과 분과위원회 및 의제실천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

- 학교공모 등의 공모사업은 작성된 의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었다고 보기 힘들며, 다만 지속가능한 경기도를 만든다는 광의적 개념으로는 실천협의회의 중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이 사업유형은 직접적인 민관협력을 통한 사업이 아니라는 점에서 민관협력에 기여한 바를 평가할만한 사업 유형이라 보기 힘들

- 분과위원회 및 의제실천위원회에서 수행한 의제실천 및 모니터링 사업의 경우에도 주로 민간위원들을 통해 수행되었고, 행정의 참여는 미약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의제 실천과 모니터링 사업에 있어 공무원들의 참여 형태는 주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남

▶ 의제 지표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

▶ 기초지자체 공무원들의 참여 및 협조를 요청할 필요가 있을 때 경기도 관련 부서에서 각 기초지자체 관련 부서 담당 공무원들에게 사업 협조 또는 홍보

를 위한 공문 발송

▶ 모니터링 분석 등을 위한 논의의 장에 참여 등

○ 하지만, 의제실천사업과 모니터링 사업이 필연적으로 경기도 및 각 기초지자체 공무원의 업무와 연관되어 있고, 또한 기초지자체의 민간단체 또는 기초의제추진기구를 통해 수행됨으로써, 관련 공무원들의 민간단체에 대한 신뢰 등을 제고시키는 데에는 일정 정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전반적으로 의제 실천사업 및 모니터링 사업에 있어서의 민관협력은 그리 긴밀하게 진행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며, 다만 행정에서도 관심을 갖는 분야를 민간이 중심이 되어 실천하는 사업을 통해 민간에 대한 행정의 긍정적 인식이 제고되는 데에는 일정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음

(3) 공동교육 및 연수

○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가 민과 행정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교육 및 연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민관 공동의 논의 장을 마련하는 사업은 매우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실천협의회 초기에서부터 중요한 사업으로 자리 잡아 왔음. 그러한 것 중 정기성을 띤 가장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어울 한마당과 해외연수를 들 수 있음

○ 어울 한마당은 그 목적 자체가 GO와 NGO가 함께 참여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공동실천을 모색하는 장으로 기획되었으며, 2001년 ‘경기 NGO·GO 환경 한마당’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이래 2007년까지 7회가 진행됨. 지금까지 매년 약 200~300명 정도의 경기도 내 시민단체 관계자와 공무원들이 참여

- 어울 한마당 행사는 2008년 제8회 대회가 열리지 못했는데, 이는 2008년 람사르 총회가 한국에서 개최되는 것과 관련하여 이 사업에 예산이 대거 투입됨으로써 어울 한마당을 위한 예산이 우선 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이며, 이 행사가

점차 행사성 사업으로 변한다고 하는 경기도의 문제제기도 있었기 때문
- 하지만, 어울한마당과 같은 시민단체 관계자와 공무원 간의 공동인식과 상호 이해를 위한 장의 마련은 지방의제21 추진기구로서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행사라고 할 수 있음. 이에 실천협의회에서는 시민단체 관계자와 공무원들의 어울림 마당을 겸하는 ‘경기지속가능발전대회’를 계획하여 어울한마당의 의의를 보다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음

<표 III-3> 어울 한마당 개최 현황

시기	참여자 현황	주요 프로그램
1회(01.10.12~13)	약 300명	기조강연, 분과토의, 대동놀이, 평가모임 등
2회(02.11.15~16)	약 160명	여성·폐기물·공단·주민자치 세션 진행, 민관공동선언 발표
3회(03.11.25~26)	약 200명	의제지표 모니터링 발표 및 분석, 경기환경 및 사회정책 비전 제시
4회(04.12.02~03)	약 200명	2004 환경정책 워크숍: 경기도 환경정책 방향 설명, 기업의 지역협력 우수사례 소개, 자연체험활동, 갈등구조 개선 관련 특강, 건강 및 먹거리 강좌, 어울마당 등
5회(06.01.19~20)	약 200명	경기도 환경정책 공유, 민관협력과 환경정책 토론
6회(06.11.10~11)	약 200명	어울림 한마당, 의제 모니터링 워크숍, 지역탐방 등
7회(07.10.04~06)	-	체육대회와 어울림 마당 중심으로 진행. 그러나 지방의제21 전국대회와 동시에 개최되어 전국대회를 통해 토론회 등이 함께 진행

○ 해외연수 사업의 경우에는 실천협의회 창립 초기부터 공무원과 민간위원 등이 함께 참여하였으며, 이를 통해 공무원과 민간단체 관계자 간의 공동의 이해와 학습기회를 가짐으로써 상호간 이해와 공동의 문제인식을 가질 수 있는 계기로 작용

<표 III-4> 공무원과 함께 참여한 해외연수 및 국제회의 현황

시기		방문 지역	연수 내용	참여 인원
연도	월			
1999.12		일본 가나가와현	지방의제 선진지 연수	6명
2000	05	일본 가나가와현, 가마쿠라시 등	지방의제 선진지 연수	19명
	06	영국, 독일	지방의제 선진지 연수	-
2001	06	호주, 뉴질랜드	지방의제 관련 기구 및 국제환경지자체협의회 등 방문, 친환경적 우수 및 우수관리체계·도시계획 등 견학	17
	07	호주, 뉴질랜드	//	17
	09	필리핀	필리핀 환경단체 방문, 토양과 물 보호재단 및 환경구조센터 등 방문	19
2002		남아프리카 공화국 WSSD 참가	지속가능발전 위한 지방의제21 역할 논의, 세계 NGO 주최 각종 포럼 및 워크숍 참가, 정부대표정상회의의 참관 등	25명
2003		인도, 태국	인도 환경단체 및 지역 풀뿌리 조직 방문 및 견학	34
2004	06~07	호주(여성분과 주관)	바이센타리얼 공원, 북시드니 자치정부 및 커뮤니티 센터, 성폭력 센터 및 이주여성 인권단체, 복지재단 및 보육시설 등 견학	17명
	07	일본 동경, 교토, 오사카	강의 날 대회 참가 및 공원 및 하천 탐사 및 관련 기관 및 단체 탐방	21명
2005	06	독일, 오스트리아 (도시사회분과 주관)	도시계획 및 주민자치, 문화관광 분야 견학	26
	07	러시아 바이칼호수 (자연생태분과 주관)	자연생태계 보전 정책에 대한 이해 및 도내 관련 정책 벤치마킹	21
2006	02~03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	ICLEI 참가: 경기지역 참가단 운영, 지방의제21의 세계 동향 파악, ICLEI 프로그램 도입방안 모색 등	19명
	06	쿠바 아바나와 바라데로, 캐나다 밴쿠버	▶ 쿠바 - 도시 및 생태농업 연수 ▶ 캐나다 - 제3회 세계도시포럼 참여: 지속가능한 도시만들기 선진사례 벤치마킹	17명
	12	일본 동경	'ECO PRODUCTS 2006 JAPAN' 참관, 친환경 생산기술 및 소비자 동향 파악, 지속가능경영 기업 방문 등	4명
2007	08	태국 치앙마이, 골든 트라이앵글, 매솟	메콩강 탐사 및 환경 관련 기관 및 단체 방문, 미얀마 난민촌 방문·교류	16명

* 해외연수 참여인원은 실천협의회에서 지원한 참가자, 행정(자부담), 기초의제에서 지원한 참가자, 실천협의회와 기초의제에서 약간씩 지원한 참가자를 모두 합한 숫자임.

○ 이러한 사업유형들은 모두 민과 행정을 연결시켜주는 민관협력 또는 거버넌스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적절한 사업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이를 통해

민과 행정이 함께 공동의 논의 장을 형성하고 공동교육 및 연수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상호 이해와 공동의 인식을 높이는 데에 분명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음

○ 하지만, 어울 한마당이 예산우선순위에 의해 2008년도부터 폐지된 점은 행정에서 민과 행정이 만나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사업의 중요성을 잘 인지하지 못한 결과라 볼 수도 있겠고, 다른 한 편으로는 실천협의회가 점차로 민과 행정이 만나 상호 이해의 수준을 증진시킨다는 원래의 사업목적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음

○ 또한 해외연수 등의 공동연수 프로그램은 상호 이해증진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이후 지속적인 공동논의 및 공동실천의 장과 결합되는 구체적 관계맺기라는 점에서는 아직 미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음

(4) 현안 대응 토론 및 대응책 마련을 위한 사업

○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를 통한 경기도 현안문제에 대한 대응은 전통적으로 민과 관이 상호 상반된 입장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강함. 하지만, 몇 가지 사업에 있어서는 실천협의회를 중심으로 민과 관이 공동으로 대안적 방향을 모색한 경험들이 있음. 특히, 2003년부터 지속된 '경기정책포럼'(2007년 이후 '경기환경정책포럼')의 경우에는 경기도 지역의 현안들에 대한 대응방안을 행정과 민간단체 관계자,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논의하는 장으로 기능하기도 함

○ 경기도 현안에 대한 대응책 모색을 위해 실천협의회 주관으로 민간단체 관계자와 전문가 및 행정, 즉 민과 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대응책을 모색한 모임들을 주요한 것만 추려 열거해 보면,

<표 III-5> 현안에 대한 민관 공동논의 주요 사례 현황

구분	시기	참여현황	내용 및 성과
철보산 습지 현장방문과 보전방안 간담회	2000. 11	경기도·수원시·화성군·안산시 담당 공무원, 경기개발연구원, 언론인 등 / 16명	철보산 습지 보전방안 모색
채석허가지 및 간선입도 설치예정지 민관합동 실태조사 및 간담회	2000. 12	안산, 화성 등 도내 7개 지자체 담당 공무원 및 민간 환경단체 관계자	-
화옹호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투어 및 워크숍	2001. 4.18	지역주민, 농업기반공사 관계자, 민간환경단체 관계자, 환경담당 공무원 등 / 50여 명	경기도가 환경부에 방조제 축조공사 중단토록 요구
지방의제21과 WSSD 정책포럼	2002. 7.12~13	경기지사 포함 전국 지방의제 추진기구 관계자 / 18명	WSSD 관련 세계 동향 및 주요 이슈에 대한 의견교환
지역순회 여성포럼 '지방의제21과 여성'	2002. 12.11	포천, 연천, 파주의제 위원과 여성복지과장 참석 / 50명	여성참여현실과 개선방안 논의
경기 CSD 구성과 푸른경기21 활성화 워크숍	2002. 5.21	경기지역 기초의제 추진기구 관계자, 도내 NGO, 환경담당 공무원 / 40명	경기 CSD 구성 합의, 경기CSD와 푸른경기21 관계성 정립
팔당지역 오염총량제 도입과 주민지원사업 개선안 토론회	2002. 11.11	NGO·공무원 등 / 130명	팔당지역 오염총량제 제도·기술적 문제점, 주민지원사업의 절차 개선안 토의
통합적 하천관리방안과 주민참여 활성화 토론회	2002. 11.21	NGO·공무원 등 / 100명	도내 하천관리 문제점 및 개선방안, 논의, 유럽 및 도내 하천 관련 정책 및 시민운동 사례 발표
경기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위한 1·2차 간담회	2003. 3.11/3.21	환경국장 비롯 12명 참석	▶ 1차: 위원회 성격, 역할, 구성, 운영방안 등과 푸른경기21과의 관계 등 논의 ▶ 2차: 경기도 환경국의 경기 CSD 운영방안 논의
공모사업 정책 간담회	2003. 12.19	NGO, 공무원, 기초의제 관계자 / 10여 명	푸른경기21 및 환경보전기금 공모사업 통합 관리방안 논의
광고산 도립공원 추진과 수도권 남부 교통난 해소를 위한 토론회	2004. 12.28	-	각종 개발정책의 문제점과 광고산 보전방안 논의 및 개선방안 모색
경기2020 도시기본계획 상수도권 인구계획의 현황과 문제점 토론회	2005. 6.8	행정, 시민단체·기초의제 관계자 등 / 100여 명	문제점과 개선방안, 시민사회 영역에서의 정책대안 제시
버스교통 이용 개선 위한 경기도민 토론회	2006. 4.6	-	버스교통체계 현황 및 문제점, 개선안 논의
문화도시 조성의 지역특성화 위한 심포지엄	2006. 12.18	-	국내외 문화도시 사례발표, 도내 지역별 특성화된 문화도시 비전 제시

환경교육 포럼	2007. 6·7·9·11	시민단체·기초의제 관련자 및 교사, 공무원 등	지속가능발전교육
1차 환경정책 포럼	2007. 3.22	200여 명	물의 날 기념
2007경기환경정책포럼 준비 워크숍	2007. 4.17	50여 명	경기지역 에너지운동 전략수립을 위한 정책 워크숍
2차 환경정책포럼	2007. 6.26	43명	기후변화 대응 관련 세계 공황과 경기도의 대응정책
3차 환경정책포럼	2007. 9.7	35명	DMZ 합리적 활용을 위한 정책제안
2007경기환경정책포럼 재활용 정책 워크숍	2007. 11.9	40명	경기고속도로 휴게소의 분리수거와 쓰레기 성상 실태조사를 통한 재활용정책 워크숍
4차 환경정책포럼	2007. 12.27	50명	▶ 강변숲 의의와 조성방안 모색 ▶ 경기도 지속가능발전체계 구축을 위한 특강
기후학교	2008. 4~5. (5회)	80명 × 5회	▶ 담당공무원-민간단체 연계 ▶ 관련 업무역량 제고 ▶ 지방의제21과 행정연계 강화 기반 제공
탄소마일리지 사이트 개발	2008	-	행정 사업에 심층 자문
람사르 총회 기념 협력사업	2008. 1~11.	공동기획위원회 구성(10명)	▶ 경기도 습지 홍보책자 발행 ▶ 총회 공동 홍보부스 운영

○ 이렇듯 다양한 주제의 현안 및 주제에 관한 토론을 행정과 민간단체 관계자가 함께 모여 수행했다고 하는 것은 실천협의회가 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민간협력의 통로로 기능하고자 하는 역할에 충실했음을 보여주는 것들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행정의 민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외적 참여 현상이 질적인 내용까지 담보하느냐는 별개의 문제로 볼 수 있는데, 행정의 참여가 그리 적극적이지 않았고 주로 민간단체 및 전문가들의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민관협력에 대한 기여가 외적 활동의 내용만큼 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

(5) 공동사업

○ 또한 2007년 이전까지 실천협의회 활동의 핵심체제였던 각 분과의 일상적 활동에도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들이 다수 있었으며, 대표적으로는 여성분과가 2003년에 「경기도 영유아 및 아동보육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 담당 공무원과 긴밀히 협조하여 공동작업으로 진행시킨 것도 좋은 민관협력의 사례라 볼 수 있음

- 이 조례안을 만들기 위한 두 차례의 모니터링과 세 차례의 워크숍에 담당 과장이 적극 결합
- 이 과정을 통해 마련된 조례안은 의원발의를 통해 경기도 의회에 제안되었으나, <경기도 보육시설연합회>의 로비와 담당 공무원들 간의 소통 부재로 인하여 결국 무산되고 대신 보육시설연합회에서 주장한 조례안이 통과되었음

○ 또한 2004년과 2005년에는 경기도 환경 관련 부서에서 경기도 내 환경 관련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환경정책 워크숍을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와 공동으로 기획하였는데, 어울한마당의 자리를 활용하여 개최됨

- 이는 실천협의회가 행정과 민간단체 사이에서 행정에게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단체들에게는 자신들의 의견을 경기도 환경 관련 행정에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민관협력을 통한 공동사업의 대표적 사례 중 하나라 할 수 있음

○ 공동사업의 대표적 사례 중 또 한 가지는 2008년 람사르 총회를 맞이하여, 경기도 행정에서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에 요청하여 경기도 내 습지 홍보를 위한 책자를 공동으로 제작하는 것을 꼽을 수 있음

○ 그밖에도 행정의 업무 중 일부를 실천협의회에 위탁하는 사업 형태도 몇 가지 있는데, 이 역시 공동사업의 한 범주로 포함할 수 있음. 경기도 행정 업무 중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사업은 크게 환경보존기금의 민간단체 지원사업과 경기문화재단의 문화예술 모니터링단의 구성 및 운영사업을 들 수 있음

○ 환경보존기금을 통한 민간단체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운용하던 약 5~6억 원의 환경보존기금을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가 위탁하여 운용하는 것인데, 기존에는 주로 관변단체라 불리우는 직능단체들을 대상으로 지원됨. 문제는 직능단체 중심 지원이 아니라 지원의 적절성 등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으로 지원의 공정성 시비가 불거져 왔었다는 것임. 이에 실천협의회가 문제를 지적하며 실천협의회 위탁사업으로 경기도 환경보존기금 지원사업을 위탁하여 수행함으로써, 보다 객관적 기준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정착하게 됨

○ 위탁사업의 또 한 가지는 경기문화재단의 문화예술모니터링 사업 관리에 관한 것으로, 지난 4~5년간 운영하던 시민모니터링단의 운영을 2008년부터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에 위탁

- 경기문화재단에서는 운영하던 문화예술 활동 시민 모니터링단의 활동에 대해 자체적으로 외부의 객관적 시각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하고 적절한 위탁기관을 찾던 중 각 기초지자체의 의제추진기구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맺고 있는 등으로 각 지역의 문화예술활동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에 실천협의회가 적임자라고 판단하여 위탁을 제안
- 이 모니터링단은 크게 시민 모니터링단과 전문가 모니터링 단으로 구성·운영되는데, 시민 모니터링단은 거의 모든 경기도 내 시·군의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그 인원은 150여 명으로 지역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전문가 모니터링단은 50여 명으로 구성되어 우수작품 창작·발표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음

○ 이러한 위탁사업의 확대는 행정이 실천협의회에 대해 민간의 참여를 통한 효

울적 활동을 주동하는 역할에 적임자임을 인정하였다는 것이고, 이는 행정과 민간의 활동을 중재하는 실천협의회 위상과 역할이 행정으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함

○ 전반적으로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의 사업은 민과 관의 공동참여를 원칙으로 한다는 점에서 많은 사업들이 민관협력을 통한 공동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음. 그러나 실천협의회 사업에 대해 행정은 주로 자신들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실제 주도적이고 주체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는 사업의 내용은 그리 다양하고 많지 않음. 따라서 민관협력을 통한 구체적 공동사업은 지난 10년 간 그리 활발하게 진행되었다고 보기는 힘들. 그러나 한 편으로는 행정의 입장에서 민간 특히 시민단체와 공동사업을 위한 필요가 제기될 때에는 실천협의회라는 통로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실천협의회가 행정 및 민간단체 간 협력의 연결자로서 적절히 활동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음

(6) 기타

○ 민관협력과 관련한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의 기여와 성과는 여타 일상사업들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가시적인 것 또 한 가지는 1999년 실천협의회 창립 이후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시민사회단체 간의 간담회가 연례행사로 자리 잡았다는 것

- 이 만남은 경기도 주선으로 이루어지는데, 실천협의회 회장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하며, 주로 경기도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건의나 이에 대한 도지사의 반응 등이 교류되는 장으로 기능하고 있음. 특히, 시민사회단체들의 입장에서는 실무선에서 처리하기 힘든 일들을 도지사와의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기회로 많이 활용하고 있음

2) 시민사회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한 정도

(1) 경기도라는 지역적 정체성 강화

○ 민관협력에 있어 민과 관이 대등한 파트너로서 그 관계가 설정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동원리이자 원칙이라 볼 수 있음. 그러나 행정이 정책의 기획과 집행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행정과 민간이 대등한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갖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 따라서 민간의 역할이 행정의 기획·결정과 집행에 대해 일정한 영향력을 미치는 정도는 진정한 민관협력의 틀이라 보기 어려움. 특히, 거버넌스라는 협치(協治)체제를 고려한다면, 이는 평등한 권한 분점과 역할구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행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위상과 권한을 갖고 있는 민간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

○ 민관협력에 있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은 민간의 위상과 역할을 행정과 대등한 파트너라는 위상에 걸맞게 상승시켜야 한다는 것인데, 그러한 민간역량의 강화가 이루어질 때 일부분에서나마 진정한 민관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그런 점에서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것은 민관협력의 기본적인 기반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음

○ 기본적으로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가 행정의 지원에 의해 설립되고 운영되며, 그 운영과정이 민간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그 자체로도 민간의 역량강화와 더불어 민관협력이 실천되고 있는 증거라 볼 수 있겠지만, 특별히 여기에서는 실천협의회를 통해 민관협력의 한 주체인 민간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여 및 성과의 정도를 평가해 봄으로써 실천협의회의 민관협력에 대한 기여와 성과를 평가해 보고자 함

○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는 창립 과정에서부터 민간의 주도적인 노력과 역할을 통해 창립되고 그 활동을 이어갔는데, 역대 사무처장을 비롯한 주요 실무

자 및 공동대표, 운영위원 등이 주로 민간단체 관계자로 이루어져 왔음. 따라서 이들은 민간단체와 직접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민간단체들이 실천협의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해 옴

○ 또한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의 민간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은 1998년 '푸른경기21'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의제를 8개 분야로 나누어 시범추진지역을 정하고 해당 지역의 민간단체로 하여금 의제를 작성토록 함으로써 지방의제21에 대한 실천을 도모한 것도 민간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볼 수 있음

○ 무엇보다도,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설립 과정을 통해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경기도'라는 지역적 정체성을 갖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실천협의회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라 볼 수 있음

○ 창립초기부터 현재까지 민간위원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의 수를 파악해 보아도 이를 잘 알 수 있는데, 창립초기인 1999년에는 민간단체의 수가 50개, 기업수가 11개, 전문가가 13명, 교사가 1명 참여. 그리고 최근인 2007년의 경우에는 민간단체 수가 105개, 기업수가 28개, 전문가가 25명, 교수가 6명. 이 현황 중 민간단체와 기업은 참여자로 계산한 것이 아니라 참여 단체와 기업 수로 한 것이고 실제 동일 단체나 기업에서 1인 이상이 위원으로 참여한 경우도 여럿 있으므로, 실제 참여한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하지만, 이들 단체 및 기업의 수를 하나의 위원으로 계산한다 하여도 전체 위원 중 차지하는 비율은 항상 50%를 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으며, 그 참여 범위 또한 해를 거듭할수록 다양하게 증가하고 있음

<표 III-6> 민간위원 현황

시기	민간단체 수(a)	기업 수(b)	전문가 수(c)	교사 수(d)	(a+b+c+d)	총 위원 수
1999년	50개	11개	13명	1명	75	105
2002년	78개	5개	7명	7명	97	197명
2007년	105개	28개	25명	6명	164	307명

* 위원 중 기초의제를 대표단체로 참여하는 위원들의 경우에는 위의 민간위원 참여 통계에서 배제하였음

- 이 같은 현황은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민간단체 관계자들에게 경기도라는 공통의 지역적 정체성을 갖게 하는 데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라 볼 수 있음

(2) 재정 지원

○ 학교공모사업을 비롯한 각종 공모사업 그리고 경기도 환경보존기금을 통한 민간단체 실천사업 지원도 민간단체의 활동 역량 강화를 통해 경기도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실천되었고, 또한 그러한 효과를 일정 정도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이러한 민간·환경단체 및 학교를 대상으로 실천사업을 공모하여 그 활동을 지원한 현황은, 아래의 <표 III-7>과 같음

<표 III-7>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환경단체 실천사업 주요 현황

연도	지원 대상	지원 단체 개수	지원 비용
1999	민간단체 지원	17개	1억4천여만 원
2000	민간단체 지원	29개	2억5천여만 원
	학교 지원	11개	2천6백여만 원
2001	민간단체 지원	32개 단체	2억3천여 만원
	학교 지원	12개 학교	2천7백여 만원
2002	민간단체 지원	19개 단체	1억3천만원
	학교 지원	15개 학교	4천5백만원
2003	민간단체 지원	23개 단체	1억7천만원
	학교 지원	19개 학교	6천만원
2004	민간단체 지원	24개 단체	2억원
	학교 지원	21개 학교	6천여만 원
2005	민간단체 지원	17개 단체	2억7십만 원
	학교지원	21개	5,840만원
2006	민간단체 지원	15개 단체	1억4천6백여만 원
	학교지원	18개	6천만 원
2007	민간단체 지원	4개 지역	6,000만원*
	학교 지원	16개	5,964만원
2008	민간단체 지원	4개	7,000만원*
	학교지원	15개	6,450만원

* 민간단체 지원은 '민간단체지원사업'과 2005년 이후 '친환경마을만들기사업'을 포함한 규모이며, 2007년 이후에는 '민간단체지원사업'이 폐지되고 '친환경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한 것만 포함
 ** 학교지원은 '학교공모사업'과 '학교환경교육기획사업'으로 진행되었으나, 2008년에는 '학교공모사업'과 '환경교육 지정공모사업', 그리고 기초의제를 통한 학교환경교육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기초의제 공모사업'으로 나누어 지원
 *** '친환경마을만들기사업'의 경우 지원 대상이 개별 단체가 아니라 사업대상 지역의 기초의제와 시민단체, 주민들이 함께 구성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지원

○ 이외에도 환경보존기금을 통한 민간단체 지원사업도 민간단체의 활성화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볼 수 있음. 물론, 이사업의 경우 경기도의 행정적 업무를 대행한 것이므로 실천협의회 교유의 기여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실천협의회 주관 이후 지원단체 선정과정의 적절성을 확보한 성과는 일반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이 없었던 상황에서 지원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며, 이는 이후 시민

사회단체의 양·질적 확대와 활성화를 가져오는 데에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3) 민간단체에 대한 교육

○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는 민간단체 및 일반 시민들에 대한 교육과 정책 지원 등의 사업도 지금까지 중요한 사업의 하나로 실천해 왔는데, 환경교육사업과 '시민사회 아카데미' 같은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각종 현안 정책에 대한 정보제공 및 공동대응 등의 활동이 가장 대표적인 사업 유형이라 볼 수 있음

○ 지난 10년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사업으로는 앞서 소개한 학교 지원사업 중 다수가 이에 해당되며, 그밖에도 정기적 사업으로는 '환경 대탐사', '환경교육 한마당', 2005년과 2006년에 실시된 환경교육 포럼 등이 있음

<표 III-8> 환경대탐사 현황

구분	시기	탐사내용	참여 인원
1회	2000.8.7~11	경기도 내 주요 환경 현안지 탐사	100여 명
2회	2001.7.23~27	한탄강부터 수원까지 경기도 일대 강·하천·호수 탐사	100여 명
3회	2002.7.23~26	명지산에서 팔당댐 및 경안습지 등 탐사	100여 명
4회	2003.7.22~25	연천, 성남, 평택, 군포, 안산 등 거처며 환경체험	350여 명
5회	2004.8.19~21	평택호, 안양천, 남한강, 경기연안 갯벌 등 탐사	200여 명
6회	2005.7.26~30	가평, 포천, 연천지역 탐사	280여 명
7회	2006.7.25~28	안성천 유역 탐사	160여 명
8회	2007.7.31~8.3	남한강 200리 도보탐사	156명
9회	2008.7.30~8.2	한강 하구 민통선 습지 탐방	120여 명

<표 III-9> 환경교육 한마당 현황

구분	시기	탐사내용	참관 인원
1회	2004.12.4	환경교육단체 및 학교 등 33개 단체 홍보부스 설치	500여 명
2회	2005.6.17~19	민·관·기업 간 환경교육프로그램 공유, 부스 100여개	1,500여 명
3회	2006.10.27~28	환경교육 관련 민·관·기업 40여 곳 참여, 60여개 부스 운영 및 환경교육 활동 공유	3,000여 명
4회	2007.10.4~6	52개 기관이 43개 주제로 참여	3,000여 명
5회	2008.6.27~28	시화호 갈대습지에서 활동가마당과 시민참여 마당 개최 ▶ 활동가마당: 환경교육 사례와 방안 토론 등 ▶ 시민참여마당: 18개 부스 설치 및 운영	▶ 100여 명 ▶ 700여 명

<표 III-10> 환경교육포럼 현황

구분	시기	탐사내용	참가 대상
1회	2005.8.~12.	생태여성주의 등 생태교육 관련	교사, 전문가, 환경교육 관련 시민단체 활동가, 관계공무원 등
2회	2006.2.~12.	환경철학, 물, 기후변화, 쓰레기 등	//
3회	2007.6.~11.	지속가능발전 교육	//

○ 이러한 정기적 환경교육 이외에도 실천협의회 전체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각 분과위원회에서도 다양한 주제의 환경교육을 실시하였는데, 그러한 사업들 중 중요한 것만 간추려 소개하면, <표 III-11>과 같음

<표 III-11> 비정기적으로 개최한 대표적 환경교육 실천 현황

시기	내 용
1999	▶ 어린이 환경노래극 '이슬이' 부천시와 용인시에서 어린이 대상 상영
2001	▶ 경기도 환경 주요지역 투어링 워크숍 ▶ 경기지역 환경기초시설 실태 점검을 위한 투어링 워크숍
2003	▶ 경안천 생태탐사
2004	▶ 생태안대자 육성사업 및 공동연수 ▶ 환경교육 교재 제작·배포
2005	▶ 환경교육교재 증보판 발간 ▶ 환경 교육활동가 공동연수
2007	▶ 에너지 교육교재 개발 ▶ 환경교육활동가 공동연수 ▶ 생태발자국 관련 두 차례의 세미나 ▶ 생태예산 관련 다섯 차례 세미나
2008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생활·활동 지침서 제작(진행중)

○ 그밖에도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차원 또는 각 분과 및 의제별 실천위원회에서도 관련 주제를 통한 정책토론회 및 워크숍 등 시행하였는데, 이는 시민단체들에 대한 교육적 효과를 통해 그 정책적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

- 대표적으로는 '경기정책포럼' 및 '경기환경정책포럼'도 이에 해당하며, 그 이외에도 다양한 현안 토론회가 개최됨

○ 이러한 교육사업을 통한 민간 역량강화의 노력은 단지 환경이라는 주제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내용으로 시민사회 역량강화에 기여. 도시대학과 해외연수 및 시민사회 아카데미 등이 정기성을 띤 시민사회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음

- 도시대학은 2004년 도시사회분과에서 처음 시작하여 2007년 의제실천위원회 체계로 개편 후 실천협의회 전체 차원의 사업으로 확대

- 시민사회아카데미는 2001년부터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워크숍으로 시작되어 2007년 의제실천위원회 체계로 개편 후 실천협의회 전체 차원의 사업으로 확대

○ 또한 시민사회분과와 여성분과 및 성평등위원회 등의 고유 활동에는 민간단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정책토론회가 일상적으로 배치되어 왔으며, 의제별 실천위원회의 모니터링과 실천사업 역시 지역의 민간단체와 파트너를 이뤄 모니터링 및 실천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결국,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의 모든 사업은 민간의 참여를 전제로 한 것이고, 그 사업들은 단순한 실천 이외에도 교육과 정책논의,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등이 결합된 형태로 진행된 것이 대부분이므로, 지난 10년간의 활동 전체를 시민사회 역량 강화의 과정이었다고도 평가할 수 있음

3) 민간협력사업에 대한 평가 종합

○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는 그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도 민과 행정이 함께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구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실천협의회가 민과 관을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

○ 이렇듯 민과 관이 만나 공동의 관심사를 논의하고 그 실천을 기획한다고 하는 것은 민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실천을 경기도의 정책으로 실현하고 또한 그 실천 과정에 행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고, 행정의 입장에서는 민간의 전문가 및 현장 실천을 추동할 주체들을 통해 자신들이 직접 수행하기 힘든 사업을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각각 있음

○ 그런 점에서 민과 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교육 및 연수, 현안 정책에 대한 공동 논의와 대응, 공동사업 등 민간협력을 위한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의 활동이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음

○ 그리고 민간협력이 실질적인 내용을 갖기 위해서는 행정의 시민사회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더불어 시민사회의 대안적 역량이 강화되는 과정이 병행되어야 함. 그런 점에서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의 활동 노력은 창립 초기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경주됨

- 실천협의회에 참여하는 민간단체의 양이 대단히 많고, 또 이들이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함으로써 전반적인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행정의 민간에 대한 인식 제고에 기여하고, 민간단체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는 등 그 기반 조성에는 기여했으나, 아직은 민간협력과 거버넌스에 대해 사회적으로 그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크다고 평가하기는 미흡함.

즉, 민간협력을 위한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의 노력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겠으나, 그러한 활동이 실질적으로 경기도 지역사회에서 민간협력을 강화시킨 효과를 크게 발생시켰다고 평가할 수만은 없음.

○ 그러나 이는 실천협의회 활동에 대한 부정적 평가의 근거라기보다는 아직은 우리 행정이 실질적인 민간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 제고가 미흡하다는 우리 사회 전반의 경향에 근거한 것이라 볼 수 있음. 이는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을 조사한 지난 2005년 조사결과에서도 잘 나타남

- 이 조사결과에 의하면, 경기도 공무원들은 실천협의를 공공기관 주도로 한계가 있는 환경실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도움을 주는 단체로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도정의 연장선에서 협력을 제공해야 할 단체로 인식. 이는 행정이 실천협의회를 도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는 적극적인 파트너로 인식하기보다는 행정업무를 보조 또는 대행하는 역할자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임⁶⁾

6)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2005.12, 54-55쪽에서 재인용

○ 하지만, 이 정도의 역할과 기여라 할지라도 경기도에서 이러한 정도로 민관 협력을 위해 노력한 기관은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음

○ 종합하면,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는 지난 10년의 활동을 통해 민관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왔으며,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첫째, 각종 대회나 토론회, 정책간담회, 워크숍 등을 주관하여 공무원들과 민간단체 관계자들이 공동의 논의를 하도록 함으로써 협력적 관계를 형성토록 증명한 것
- 둘째, 민간단체의 역량강화에 기여함으로써, 민간단체들로 하여금 적절한 정책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유도하고 이를 공무원들에게 제시함으로써 민간의 전문성 등을 인식토록 한 점
- 셋째, 민간의 참여를 통한 실천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시민참여를 통한 실천 능력을 인정받은 점 등

○ 하지만, 아직은 전반적으로 민관협력과 거버넌스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강화되는 추세에 발맞추어 민관협력을 넘어 거버넌스의 흐름을 강화시켰다고 평가할 만한 근거는 매우 미흡

○ 따라서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의 민관협력 증진을 위한 노력에 있어서도 다음과 같은 미흡한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존재

- 첫째, 민관협력의 양 날개인 행정과 민간단체의 신뢰가 아직은 많이 부족
- 둘째, 민간의 대안적 역량이 아직은 미흡한 점
- 셋째, 민간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이 주로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다수 민간단체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이 미흡한 점 등

3. 기초의제와의 협력 관계

○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는 광역자치단체의 의제 추진기구라는 점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의 의제 추진기구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

○ 이 점에 있어서 실천협의회 위원들 간에는 크게 두 가지의 상반된 입장이 있는데,

- 광역자치단체 자체가 기초자치단체들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광역의제 추진기구 역시 기초의제 추진기구를 통해 구체적 실천이 드러나야 한다는 입장
- 지역 현장에서의 실천은 기초의제 추진기구의 몫이고, 기초의제 추진기구들의 자율성 역시 중요한 과제이므로, 광역의제는 주로 경기도 정책에 대한 개입과 지원 등을 주업무로 해야 한다는 입장

○ 전자의 경우에는,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의 위상 및 역할에 있어 기초의제와의 상호 긴밀한 연계와 역할분담 등을 매우 중요하게 설정해야 할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에 반하여 후자의 경우에는 기초의제와의 관계보다는 경기도 또는 경기도정과의 접점을 통해 그 역할 및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이야기 하고 있음

○ 이러한 입장의 차이는 광역의제 추진기구로서의 성과에 대한 기대치에 있어서도 차별성을 드러내는 바, 전자의 경우에는 작성된 의제의 실천체계 강화 및 도민들의 참여를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경기도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입 및 지원은 약화된다는 단점이 있음. 후자의 경우에는 이와는 반대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 둘은 결국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가 모두 중요한 활동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지만,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향후 법적 근거에 의해 재구성되는 경기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의 역할분담 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 볼 수 있음

- 이에 관하여는 4장에서 보다 자세히 다룰 예정

○ 따라서 이 장에서는 이러한 상이한 관점을 조정하기보다는, 광역의체인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에 있어 구체적 현장이라 할 수 있는 지역 및 시민들의 참여를 가능케 할 수 있는 통로인 기초의제와의 긴밀한 역할분담 등 관계를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하고자 함

1) 기초의제 작성 및 추진기구 설립에 기여한 정도

○ 1999년에 선포된 '푸른경기21'은 그 작성과정과 실천체계 구축 과정이 의제 자체로서의 적절성을 지닌 것이라 평가하기는 힘들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지방의제21을 작성하도록 민간단체들을 지원하는 것에는 일정한 성과를 드러냄. 즉, 이 당시에는 경기도 내 의제 특히 기초의제를 확대하는 작업이 주요한 관심사였음

- 8개 분야에 대해 시범추진지역과 해당 지역의 시민단체를 주관단체로 선정함으로써 해당 지역에 지방의제21 작성과 추진기구 설립을 자극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한 점에 있어서는 일정한 성과를 거둠

- 8개 분야 시범추진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모두 경기도 기초의제 내에서는 비교적 초기에 의제작성 및 추진기구 설립이 이루어졌으며, 대부분 초기에는 시민단체 주도형으로 추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표 II-1>과 <표 II-2> 참조)

○ 이외에도 경기지역 기초의제를 작성하고 그 추진을 촉구하기 위한 노력이 다

양한 차원으로 이루어졌는데, 예를 들면 실천협의회 제1기인 도입기에는 주로 시민단체 등 대표자들에게 의제설명회 개최, 기초자치단체에서 지방의제21 작성하고 실천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경기도 내 시·군의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 및 연찬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거나 관련 모임에 참여하여 이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 그런 점에서 1999년 개최된 전국지방의제21대회를 제주도 의제 추진기구와 함께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가 주최하면서 환경부로 하여금 각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참여 공문을 발송토록 한 것도 지방의제21 작성과 추진기구 설립의 공신력을 전달하는 데에 많은 기여를 함

○ 이러한 노력은 제2기인 모색기에서도 지속되었는데, 당시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사무처장의 일상활동 중 기초의제 작성과 추진기구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강의, 교육, 토론회 참여 등이 비중이 상당히 높았다는 것도 이를 잘 설명해 줌

○ 이렇듯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초기의 활동 중에는 기초의제를 작성하고 추진기구를 제대로 설립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활동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경기도 내 기초의제가 작성되고 추진기구가 설립된 시기가 주로 이 시기에 집중되었다는 것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음

- 모색기인 2003년까지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의제21이 작성된 곳은 22개 자치단체로, 현재 총 29개 기초의제21의 75.9%에 이르고

- 2003년까지 의제추진기구가 설립된 수는 28개로 현 30곳 중 93.3%에 이룸

○ 그 이후에 작성된 지방의제21과 의제추진기구 설립에 있어서도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는 간접적으로나마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데, 대표적인 예를 들면, 안산의제가 지방의제21을 작성하는 과정에 실천협의회 의제재작성 과정을 벤치마킹한 것 등을 들 수 있음

○ 결국,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는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의제21 작성과 그 추진기구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특히 초기에 매우 많은 역량을 투여해 지원하였으며, 그러한 활동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2003년까지 대다수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지방의제21의 작성과 추진기구가 설립되는 성과를 거둬

2) 기초의제 간의 네트워크 구성에 기여한 정도

○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와 기초의제 간, 기초의제들 상호 간의 긴밀한 관계형성과 적절한 역할분담 등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 노력은 실천협의회 초기에 서부터 기초의제 핵심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조직체계를 실천협의회 내에 구성 하려는 시도를 통해 계속 되어 옴. 그러한 시도가 조직체계 내에 드러난 형태와 주요한 활동 내용 및 그 변천과정 및 이유 등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표 III -12>와 같음

○ 즉,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의 기초의제 간 또는 기초의제와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노력은 주로 실천협의회 내에 일상적인 조직체계를 두고 이를 운영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여 왔으며, 그 형태는 기초의제 추진기구의 사무국장 등 핵심적 관계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운영하는 형태를 띠. 즉, 기초의제 관계자를 실천협의회 활동의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기초의제 관계자들 을 실천협의회 활동의 주체로서 상정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기초의제와의 관계 및 네트워크 위상을 설정하여 왔음

○ 이러한 네트워크의 초기 관심은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의제21 작성 및 추진기 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강한 편이었고, 후반기로 갈수록 파트너로서의 위상 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발전되어 옴

<표 III-12> 기초의제 관련 조직체계 변천과정 및 이유, 주요 사업내용 등

연도	명칭	활동 및 사업	변화의 주요 목적 및 구성
2000	교류협력 특별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원, 시민단체 대표 등 참여하는 간담회 다수 개최 기초의제 간 네트워크 활성화 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제작성 및 추진기구 활동 지원
2001	교류협력 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의제간 연대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1천 만 원 지원 기초의제 추진기구 운영위원장과의 간담회 다수 개최 경기 기초의제 실무자 연수 및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상조직체계로의 전환 기초의제 국장단 참여를 통해 기초의제와의 일상적 사업 기획 등
2002	기초의제 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의제 추진기구 운영위원장과의 간담회 2회 개최 경기 지방의제21 활성화를 위한 광역·기초 의제 집행책임자 간담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칙에 별도 규정하여 실천협 의회 주체로서의 위상을 높임 기초의제 사무국장과 사무국 추천 일부 위원까지 구성원 범위 확대하여, 추진기구 대표자회의로서의 성격 지남 대표 2인을 당연직 운영위원 으로 위촉
2003	교류협력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의제 관계자 연수 기초의제 사무국장단 워크숍 등 기초의제 추진기구 운영위원장과의 간담회 2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의회'라는 명칭상 독자적 활동 추구하려는 문제 극복하고 기초의제와의 협력관계 강화하기 위한
200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서·남·북 권역별 공동사업 경기지역 지방의제21 실무자 연수 지방의제21 공동사업과 발전방향 토론회 기초의제 추진기구 운영위원장과의 간담회 1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시기부터는 광역·기초 간 교류 넘어 공동사업에 보다 많은 초점 맞춤
200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지역 지방의제21 실무자 연수 경기지역 지방의제21 백서 제작 기초의제 추진기구 운영위원장과의 간담회 1회 개최 	-
200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의제21 실무자 연수 	-
2007	기초의제 협력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의제21 실무자 연수 경기지역 지방의제21 진단 및 협력체계 구축방안 연구 동·서·남·북 권역별 공동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의제와(간)의 협력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함 의제별 실천위원회 체제로 변화 후 기초사무국장단 대부분 이 각 실천위원회에 참여
200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의제 사무국장단 연수 및 간사단 연수 동·서·남·북 권역별 공동사업 	-

○ 또한 실천협의회 의 분과위원회 체계가 의제 재작성 이후 의제별 실천위원회 체계로 개편되면서, 각 기초의제의 사무국장 등은 의제별 실천위원회에 참여하

여 일상적으로 실천협의회 활동에 참여하는 구조를 정착시킴

- 이러한 변화가 기초의제와의 평등한 파트너로서의 관계를 해치기보다 보다 강화시키는 데에 기여하는 이유는 일상 사업에 기초의제의 발언권을 강화한다는 의미보다는 각 의제별 실천사업을 기초의제와의 공동사업으로 진행하기 때문

○ 이는 기초의제와의 네트워크를 ‘기초의제협력위원회’라는 조직체계에 한정시키지 않고, 일상적인 의제 모니터링 및 실천사업을 통해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실천협의회의 조직체계 및 활동내용이 변화·발전되고 있음을 의미

○ 기초의제와의 네트워킹에 대한 평가를 지난 9월2일에 있었던 기초의제 사무국장단과의 집담회 내용을 정리하여 종합하면,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의 지난 10년 활동은 기초의제 전체를 잘 모아내고 아우르는 역할을 하였으며, 그 네트워킹을 통해 기초의제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것임

3) 기초의제와의 적절한 역할분담의 정도

○ 광역의제인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와 기초의제 간의 역할분담은 의제의 작성 과정과 그 의제의 모니터링 및 실천과정에서 적절히 이루어지는지 평가할 수 있음

○ 의제작성 과정에서의 역할분담이란 광역의제인 ‘경기의제21’과 기초의제 간 내용적 연계성을 갖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의제에 대한 모니터링과 실천사업에 대한 연계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 즉, 의제의 내용적 연계를 통해 광역의제의 모니터링 및 실천사업이 기초의제의 사업과 원활하고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음

○ 최초의 의제작성 과정은 기초의제와의 역할분담에 대한 고려는 전혀 이루어

지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다만, 8개 분야별로 시범추진지역을 선정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기초의제 작성을 자극하는 역할은 수행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의제 재작성 과정에서는 도민의 실천 등을 고려하여 기초의제와의 연계를 중요한 목표 및 고려사항으로 확정

- 의제 재작성사업의 목표 중에는 ‘도민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 토대 확보’ 차원에서 ‘모니터링과 실천사업을 31개 시·군 기초의제와 협력하는 도민참여 체계 구축’이 포함되었으며,

- 의제 재작성 자문단에 기초의제 위원들을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재작성 과정에 실천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기초의제 사무국장 등의 관계자로부터 자문 받는 기회를 여러 차례 가짐

○ 하지만, ‘경기의제21’의 구체적 내용을 기초의제21과 연계성을 갖도록 하는 데에까지 나아가지는 못함. 이는 이미 작성·선포되어 있는 기초의제21이 처음부터 ‘경기의제21’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 또한 실천가능한 의제를 측정가능한 지표로 작성한다는 의제 재작성 기본 원칙이 기초의제 별로 다양한 내용으로 이미 작성되어 있는 의제의 내용과 연계하기에는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었음

○ 따라서 의제 재작성 과정에서도 ‘경기의제21’의 내용 자체를 기초의제21의 내용과 연계한다는 차원에서는 그리 적절한 역할분담 등이 고려되지는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이는 실천협의회와 기초의제와의 관계, 기초의제 활성화를 위한 실천협의회의 역할 등에 있어 향후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음. 즉, ‘경기의제21’의 내용과 기초의제21의 내용 간 연계성을 강화하여 실천협의회가 기초의제의 모니터링과 실천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기초의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실천협의회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향후 실천협의회와 경기도 내 기초의제 추진기구의 주요한 발전 방안 중 하나라 할

수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실천협의회가 기초의제 재작성 과정에서 그 내용을 '경기의제 21'과 연동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과제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

○ 의제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실천사업에서는 의제 작성과정보다는 원활한 역할 분담과 공동사업들이 나타나는데, 그러한 추세는 2004년 이후 즉 과도기 이후에 두드러짐. 이 시기는 의제가 재작성되고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의 활동이 작성된 의제의 모니터링과 의제실천사업 위주로 재편되던 시기와 맞물려 있음

○ 의제의 재작성과 의제실천위원회 체계로의 변화를 통해 의제모니터링과 실천사업이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의 핵심사업으로 정착되었고, 그 사업들은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들이 주를 이루기 시작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초의제의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됨. 즉, 각 지역의 모니터링 및 실천사업에 있어 이를 구체적으로 수행할 주체들을 각 기초의제에 의뢰하여 구성하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이는 의제 모니터링 및 실천사업들이 주로 기초의제에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

<표 III-13> 의제실천위원회별 사업 참여(대상) 시·군 및
시민단체·기초의제 현황('06~'08)

실천위원회	연도	기초 지자체 대상 현황	기초의제 포함하여 참여한 지역 시민단체 수(기초의제 수)
산림·녹지	2006	-	실천위원회가 직접 주관
	2007	7개 시·군 대상 모니터링	해당 지역 시민단체 7(1)
	2008	16개 시·군	해당 지역 시민단체 15(9)
습지	2006	-	실천위원회가 직접 주관
	2007	-	실천위원회가 직접 주관
	2008	27개 시·군	해당 지역 시민단체 23(9) + 경기개발연구원
수질·하천	2006	7개 하천 14개 시·군 대상	해당 지역 시민단체 6(3)
	2007	5개 하천 대상 모니터링	해당 지역 시민단체(1)
	2008	7개 시·군 8개 하천	해당 지역 시민단체 7(4)
폐기물	2006	31개 시·군 / 5개 시·군	31개 시·군 기초의제 / 5개 시·군 기초의제
	2007	4개 시·군 대상 실천사업	해당 지역 시민단체 4(2)

	1개 지역 대상 시범 모니터링	해당지역 기초의제	
도시계획	2008	10개 시·군(40개 사업장)	모니터링 요원 모집하여 실시
	2006	-	실천위원회가 직접 주관
	2007	-	실천위원회가 직접 주관
	2008	-	실천위원회가 직접 주관
주민자치	2006	2개 시·군	기초의제 협조 통해 실천위원회 직접 주관
	2007	4개 시·군 대상 실천사업	해당 지역 기초의제
	2008	4개 시·군	4개 시·군 기초의제
성평등	2006	-	실천위원회가 직접 주관
	2007	30개 시·군 대상 모니터링	해당 지역 시민단체(17)
	2008	31개 시·군 (약 800여개 기관)	31개 시·군 시민단체(19)
보육	2006	-	실천위원회가 직접 주관
	2007	2개 시·군 대상 실천사업	기초의제 협조 얻어 실천위원회가 직접 주관
	2008	31개 시·군 (국공립 시설 354개소)	실천위원회에서 각 지자체 행정 도움 얻어 직접 주관
농업	2006	15개 시·군 / 8개 시·군	9개 시·군 시민단체(2) / 8개 시·군 시민단체(1)
	2007	7개 시·군 대상 모니터링	해당 지역 시민단체(3)
	2008	-	실천위원회가 직접 주관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2006	31개 시·군 및 8개 지역 업체	5개 시·군 시민단체(5)
	2007	7개 시·군 대상 실천사업	해당지역 시민단체(4)
	2008	31개 시·군	29개 시·군 시민단체(24)
에너지	2006	7개 시·군	7개 시·군 시민단체(0)
	2007	7개 시·군 대상 모니터링 및 7개 시·군 대상 설문조사	기초의제 협조 얻어 실천위원회가 직접 주관
	2008	6개 시·군	기초의제 협조 얻어 실천위원회가 직접 주관
사회복지	2006	31개 시·군	25개 시·군 시민단체(14)
	2007	31개 시·군 대상 모니터링 및 설문조사	기초의제 협조 얻어 실천위원회가 직접 주관
	2008	31개 시·군	10여 개 지역 복지협의체 간사 및 공무원 등
문화	2006	31개 시·군	기초의제 협조 얻어 실천위원회 직접 주관
	2007	-	기초의제 협조 얻어 실천위원회가 직접 주관
	2008	-	실천위원회가 직접 주관

* 사업대상(참여) 지역 수와 참여한 지역 시민단체 수에 차이가 있는 것은 한 단체가 2개 이상 지역사업에 참여한 경우가 있기 때문임

**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시된 것은 의제실천 또는 모니터링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초지자체를 대상 또는 참여주체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음을 의미

○ 이러한 긴밀한 연계와 역할분담은 단지 기초의제와의 교류협력사업이라는 이름이나 ‘기초의제협력위원회’라는 조직 체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없음. 각 기초의제 사무국장 등이 의제실천위원회 체계로의 개편 후 각 의제별 실천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함으로써 일상활동 속에서 보다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음

○ 이는 광역의제 추진기구로서의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와 기초의제 간의 역할분담이 의제 모니터링 및 실천사업에 있어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당 지역의 시민단체 또는 직접 기초의제들을 주체로 참여시키려는 사업실천 체계의 정착과 함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

- 실상, 모니터링 및 실천사업에 있어 지역의 시민단체 참여도 기초의제의 중개를 통한 경우가 많음. 따라서 앞의 <표 III-13>에서 드러나는 기초의제 참여 현황은 직접적인 참여만을 나타낸 것이고, 그 이외에 간접적 참여도 상당한 정도라 볼 수 있음

○ 이러한 평가 내용은 역시 지난 9월2일 기초의제 사무국장단과의 토론에서도 잘 확인되었는데, 그 내용을 토대로 기초의제와의 역할분담에 대한 평가를 종합하면,

- 기초의제의 내용과 연동되는 방향으로 의제가 작성되지 않아 향후 의제실천사업 등에 있어 긴밀한 연계가 부족할 수 있는 아쉬움이 남지만, 이는 향후 기초의제의 재작성 지원을 통해 의제의 내용을 ‘경기의제21’과 연동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고,

- 반면, ‘경기의제21’의 모니터링 및 실천사업에 있어 기초의제를 통해 수행한 것은 특히 도민들의 참여라는 점에서 매우 적절하였고, 기초의제의 입장에서도 행정 및 주민들과의 관계를 잘 풀 수 있는 실마리로도 작용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사업방식은 때때로 기초의제의 사업에 대한 과부하를 안겨주는 경향도 있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연동된 지방의제21의 재작성 등이 필요

- 따라서 향후 10년의 활동에 있어서도 기초의제에 대한 지원과 그 관계를 중심으로 실천협의회의 방향이 잡혀져야 할 필요가 있음

4) 기초의제 역량강화에 기여한 정도

○ 기초의제의 역량강화를 위한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의 기여에 있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앞서의 기초의제와(간)의 네트워킹 주도와 활성화, 그리고 기초의제와의 일상적이고 실천적 역할분담이라고 할 수 있음. 즉, 이 과정 자체가 기초의제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 가장 크게 기여하였다는 것임

- 예를 들면, 실천협의회의 의제 재작성 및 의제 모니터링 등의 사업은 기초의제가 자체적으로 의제를 재작성하고 의제를 모니터링 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물론, 이러한 관계는 실천협회가 기초의제 역량강화를 지원했다는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역으로 기초의제가 실천협의회 역량강화에 기여한 것으로도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됨

- 실제, 실천협의회의 사업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룹은 각 기초의제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지난 2005년에 실시한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의 조사결과에서도 잘 드러남. 이 조사결과에 의하면 운영위원의 소속집단별 출석현황에서 기초의제 참여자들의 출석률이 타 집단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파악됨⁷⁾

○ 하지만, 이러한 일상적 관계와 역할분담 이외에도 재정과 전문적 정책개발 능력 그리고 실무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초의제에 대한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의 지원 역시 점차로 더욱 활성화되고 있음

7)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2005.12, 41쪽 참조

○ 재정적 지원이라 함은 기초의제의 독자적 사업비용이나 운영비용에 대한 지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의 사업 중 기초의제에 재정을 지원하여 기초의제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장 대표적으로는 <기초의제협력위원회>를 통한 권역별 기초의제 공동사업을 들 수 있음(앞의 <표 III-12> 참조)

○ 그리고 기초의제 사무국장 및 간사 등을 대상으로 한 연수 프로그램 역시 2001년 이후 거의 매년 실시되고 있음(앞의 <표 III-12> 참조)

○ 또한 정책적 지원은 전문가 그룹들을 활용하여 현안이 되고 있는 이슈에 대한 정보제공과 이에 대한 홍보, 공동 사업 기획 등을 들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및 역할과 관련한 토론회 등을 주최·주관한 것과 생태발자국, 기후변화 관련한 대응, 성인지적 관점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등을 들 수 있음. 이들 사업들은 기초의제 자체의 역량만으로는 그 정보 습득 및 자체적 대응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라는 점에서, <푸른경기21 실천협의회>가 이들 이슈들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그에 관한 공동대응을 모색하는 과정 자체가 기초의제의 역량강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경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관련 논의는 지난 2001년부터 실천협의회 주관으로 여러 차례 이루어졌으며, 특히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 이후의 논의 역시 기초의제가 이에 관한 정보 등을 교류하고 자체적인 입장을 갖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경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관련한 지방의제21 추진기구들의 향후 역할 등과 관련한 논의는 이 보고서 4장에서 다룰 예정

○ 2007년에는 생태발자국과 관련하여 두 차례의 세미나 개최, 2008년에는 전국 지속가능발전센터와 도내 기초의제들이 협력하여 '(가칭)생태발자국 사업단'을 발족하여 생태발자국 측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기후변화는 최근 환경 관련 이슈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슈로 여겨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경기도 지역에서는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기초의제에 그에 관한 정보 및 공동의 실천사업 등을 추진 중. 물론, 이 사업은 특별히 기초의제 지원만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기초의제의 기후변화 관련 대응활동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가 기초의제 관련자로부터도 주를 이룸 - 이와 관련하여, 실천협의회가 그동안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주요하게 시행한 사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표 III-14> 기후변화 관련 주요 활동 현황

연도	사업명	내용	비고
2005	에너지 워크숍	지구 온난화 극복 위한 NGO 실천사례 점검 및 기후변화협약 관련 경기지역 활동사례 모색	생활환경분과 주관
	2005 경기지역 에너지 전국 투어 워크숍	기후변화 관련 워크숍 및 에너지 관련 시설 견학	
2006	환경교육 포럼	9회 중 기후변화 관련 내용 포함	
	2006 경기에너지 워크숍 / 청소년 에너지 체험마당	기후변화 관련 내용이 주요하게 포함됨	
	제2차 환경정책포럼	기후변화 대응 관련 세계 동향과 경기도의 대응정책	
2007	에너지 워크숍과 청소년 에너지 체험마당	기후변화 관련 내용이 주요하게 포함	
	에너지 의제실천위원회 사업	기후변화방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환경협약 표준안 마련 및 제안 운동	
	기초의제 남부권역 공동사업 지원	기후변화에 대한 지역대응방안 모색	기초의제협력위원회 주관
2008	에너지 의제실천위원회 사업	기후변화 대응 역량강화 위한 권역별 순회 워크숍(5회) 및 경기지역 신재생 에너지 지도 제작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생활·활동 지침서 제작(예정)	
	기후학교	4월부터 5월까지 4회, 회당 1~2개의 강의와 토론 및 워크숍 진행	
	기후보호 네트워크 워크숍	기후변화 대응 기반구축사업, 경기지역 지방의제21 기후보호 공동사업 모색 등	기초의제협력위원회와 공동주관
	경기도의 CO2 감축 전용 사이트 개발사업 참여	2009년 이후 실천사업 주관 요청 받음	
	자료번역사업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adoption)에 관한 국제 자료	

○ 기초의제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또 다른 사례로는 성인지 예산 등의 성인지적 관점에 대한 지원을 꼽을 수 있음. 대표적으로는 2005년에 실천협의회 차원의 양성평등워크숍이 진행되었는데, 이 중에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내용이 중요하게 포함되었으며, 2006년부터는 성별영향평가 아카데미를 34시간 11장으로 진행하였으며, 2007년에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본 푸른경기21 조사·연구 보고서인 「의도하지 않은 치우침의 발견」을 제작·배포

- 실제 경기지역 의제추진기구 중에서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가 가장 선도적으로 여성분과를 설치하고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면서 경기 지역 여성단체들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한 것도 기초의제의 관련 주제에 대한 관심 및 조직 체계, 사업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침

5) 기초의제와의 협력사업 평가 종합

○ 기초의제와의 협력사업은 크게 기초의제21 작성과 추진기구 설립에의 기여, 기초의제 간의 네트워크 구성 기여,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한 기초의제 활성화에 기여, 기초의제들 개별 역량으로는 수행하기 힘든 정책 및 정보제공과 공동사업의 기획·실천 등을 수행한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각각 한계와 미흡한 점 등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할 수 있음

○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제의 작성뿐 아니라 의제를 모니터링 하는 데에 있어서도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의 앞선 경험들이 기초의제로 하여금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준 것도 기초의제에 대한 지원이라 평가할 수 있음

○ 또한 생태발자국, 기후변화 관련, 성인지적 예산분석 등의 현안은 기초의제 단독으로는 대처가 힘든 사안들로, 이에 대한 발 빠른 정보제공과 공동사업 기획 등은 기초의제의 능력을 제고하는 데에 크게 기여

○ 보다 직접적으로는 교육 및 연수 등을 통해 기초의제의 역량강화에 기여한 점과 무엇보다도 기초의제 간의 네트워크를 주도적으로 형성하고 그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기초의제가 스스로 관련 사업들을 주도하도록 한 것은 기초의제의 실질적 활동범위를 확장하고 그 역량을 제고하는 데에 크게 기여

○ 그러나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의 제정과 <경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재편이라는 흐름 속에서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는 활동 위상 및 방향과 관련하여 새로운 전환이 필요한데, 그와 관련하여 기초의제와의 관계를 보다 긴밀하게 할 필요성 역시 제기됨

○ 기초의제와의 보다 긴밀한 관계 설정은 향후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의 방향과 관련하여 과제라 할 수 있는데, 그러한 내용으로는

- 경기도 내 기초의제 추진기구와 공동 사업을 낮은 단계에서나마 보다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고,

- 현재 상황이 열악하여 활성화되지 않은 기초의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며,

- 민-민, 민-관의 파트너십을 위한 각 주체에 대한 홍보 및 교육 강화를 통해 기초의제에서의 민-민·민-관 파트너십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반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고

-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시급한 현안대응을 위한 제도 또는 단체 등을 인큐베이팅하여 각 기초의제에서도 그에 관한 전문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 행정이 지방의제 사업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 등을 들 수 있음

4. 의제 지표 수립과 실천의 적절성

○ 의제 추진기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상사업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작성·선포된 지방의제21을 실천하고 의제별로 계획된 지표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음

○ 이와 관련한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의 활동내용은 의제를 제작성한 시기 전후로 크게 구분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1999년 선포된 ‘푸른경기21’과 2004년과 2005년에 걸쳐 제작성·선포된 ‘경기의제21’은 그 작성 과정이 상이하며 그 이후 의제를 실천하기 위한 과정 역시 많이 다르게 진행되어 옴

○ 의제 제작성 이전 시기에는 계획적으로 작성·선포된 의제의 지표를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은 상대적으로 많이 미흡한 편이었고, 의제 제작성 이후 특히 2007년 분과위원회 해소와 의제별 실천위원회 체계로의 개편 이후에는 작성·선포된 의제 지표를 상승시키기 위한 활동이 매우 활성화 됨

○ 이러한 차이는 크게 ① 분야별 의제 지표가 실천 가능한 것인지의 여부, ② 실천협의회의 실천사업이 의제지표 상승에 적절한 영향을 미쳤는지의 여부, ③ 마지막으로 실천사업에 시민들을 포함한 관련 주체들의 참여가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여부 등에 의해 평가될 수 있음

○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작성된 의제의 내용과 지표, 그리고 주관 주체의 실천 및 모니터링 사업 내용과 그 성과 등을 비교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

1) 의제 지표의 실천가능성(측정가능성)

○ 지방의제21은 단순한 선언적 규범을 넘어서는 구체적 실천을 전제로 한 것이어야 하며 그 실천의 성과가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 구체적 지표가 중요함. 즉, 지방의제21의 지표는 실천가능한 것으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그 실천가능성의 구체적 기준은 지표의 측정가능성을 통해서도 일정 부분 파악할 수 있음

○ <표 III-15>는 최초로 작성된 ‘푸른경기21’ 의제명과 지표의 내용, 그리고 의제지표의 측정가능성 및 그 달성도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는데, 측정가능성 및 달성도는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에서 지난 2002년 3월에 발간한 조사·연구 보고서의 결과를 인용하여 표기하였음. 의제 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의 내용 및 지표와 사업의 연관성 정도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당시 의제의 실천이 해당 지역의 주관단체에 일임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의제실천과 연관된 사업을 파악·분류하기 어려웠기 때문

○ <표 III-15>에서 볼 수 있듯이, 초기에 작성된 ‘푸른경기21’은 21개 의제 중 측정가능한 지표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전체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12개에 불과. 이는 당연히 그 실천가능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측정가능하지 않은 지표들은 그 달성 정도조차 파악할 수 없었음

- 물론, 측정가능하지 않은 지표라고 해서 그 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이 불가능한 것이라 볼 수는 없음. 하지만, 그 실천이 어떠한 성과를 내을 것인지에 대한 측정이 가능하지 않다면, 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표 III-15> '푸른경기21' 내용과 지표의 측정가능성 및 달성 정도

의제명	의제 지표	측정 가능성	달성 정도
◎ 대기와 에너지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인다	승용차 이용률	×	0
자전거 이용을 생활화 한다	자전거교통 분담률	×	0
건고 싶은 거리를 만든다	보행자 전용도로 수	○	1
◎ 폐기물			
주민이 참여하는 폐기물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폐기물 처리방식 (소각, 매립, 재활용)	○	3
포장재 쓰레기를 줄인다	장바구니 이용률	○	2
음식물 찌꺼기를 자원화 한다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율	○	3
◎ 시화호와 해양생태계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맑은 시화호를 만든다.	갯벌보존구역 수	×	0
생명의 보고 갯벌을 우리 손으로 지킨다	시화호 수질(COD)	○	3
해양 친수문화공간을 확대한다	해양친수문화공간 수	×	0
◎ 하천과 습지			
하천을 따라 생태문화 탐방로를 만든다	하천생태문화탐방 프로그램 수	○	0
하천과 호수의 수질을 개선한다	하수관거율	○	2
하천 및 습지생태계를 보전한다	자연형 하천 복원구간 길이	○	1
◎ 비무장지대와 광릉숲			
비무장 지대를 세계적인 생태학습장으로 만든다	생태교육 프로그램 수	×	0
광릉숲을 생물종다양성의 중심지로 만든다	생태교육 프로그램 수	×	0
◎ 팔당 상수원과 유기농업			
자연이 숨쉬는 팔당호 수변공간을 만든다	팔당호 수질(등급)	○	1
수질보전형 도시와 농촌을 만든다	유기농업 비율	○	1
◎ 생태도시			
자연이 살아 숨쉬는 생태도시를 만든다	신규공원(짜지공원, 생태공원) 조성 수	×	0
물 절약을 생활화한다	1인당 1일 급수량	○	2
조용한 주거환경을 만든다	주거지역 소음도(낮, 밤)	○	1
◎ 사회복지			
지역사회시설을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개방한다	지역사회시설의 청소년 문화공간 개방 수	×	0
청소년을 위한 지역정보망을 구축한다	정보망 네트워크 접속자 수	×	0

* '측정가능성' 및 '달성정도'에 대한 평가결과는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2002.3 조사·연구결과를 인용하였음

** '측정가능성'의 '○'는 측정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고, '×'는 낮다는 의미

*** '달성정도'의 측정은 의제 각 지표의 중간평가 시점인 2002년을 기준으로 함. 최종 목표 달성시점은 2007년이나, 그 이전에 의제가 제작성 되었으므로 2007년의 목표달성 정도는 측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그리고 각 수치의 의미는 '0'='측정가능치 없음', '1'='조사대상지역 모두가 목표치에 미달', '2'='일부 지역들에서 목표치 초과', '3'='조사대상 지역 모두가 목표치 초과달성'을 의미

○ <표 III-16>은 2004년과 2005년에 걸쳐 제작성한 '경기의제21'의 지표와 측정가능성, 그리고 지표와 실천사업의 연계성 정도를 평가하여 나타낸 것임

- 의제명을 따로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는 제2장의 내용을 참고
- 의제 지표와 실천사업의 연계성은 이 보고서의 연구진과 실천협의회 사무처 상근자들이 함께 평가한 결과를 표기하였음
- 또한 그 달성 정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의제들에서 초기 지표값 설정을 위한 모니터링 이후 주로 지표 값 상승을 위한 실천사업을 위주로 활동을 전개하였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지표 달성 정도를 파악하지 못하여 표기하지 않았고, 대신 지표와 사업의 연관성으로 대체하였음
- 연관성의 정도에 대한 평가는 실천사업 자체의 성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의제 지표 달성과의 직접적 연관성 정도에 관한 것이며,
- 보육분과의 경우, 2006년 7월에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모든 국공립 보육시설에 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였기 때문에 의제지표가 2006년에 이미 100% 달성됨. 따라서 그 이후에는 의제지표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실천사업보다는 국공립 보육시설 운영위원회의 올바른 운영과 운영위원들의 역량 강화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실천사업이 진행됨

○ <표 III-16>에서 알 수 있듯이, '경기의제21'의 경우에는 모든 지표에 있어 측정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측정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그 지표를 높이기 위한 실천의 적절성을 평가·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이는 의제 실천사업이 의제 지표와 적절한 연계성을 갖는다면 충분히 실천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 따라서 <표 III-16>의 분석은 '경기의제21' 지표들의 실천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이는 '경기의제21' 작성 과정에서 측정가능성과 실천가능성이 중요한 원칙으로 강조되었다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

<표 III-16> '경기의제21' 지표의 측정가능성과 실천활동 현황 대비

주요 의제 지표 (a)	측정 가능성	모니터링 및 실천사업 현황 (b)		(a)·(b) 간 연계성
◎ 산림녹지				
1인당 도시공원 면적	○	2005	도심숲(학교숲) 현황조사 모니터링	○
		2006	-	-
1인당 산림 면적	○	2007	도심공원 모니터링	○
		2008	도심공원 모니터링	○
◎ 습지				
습지 보존지역의 지정 수와 면적	○	2005	내륙습지 목록작성과 모니터링	○
		2006	습지관련 교재 제작, 내륙습지 모니터링 등	○
		2007	연안습지 교육교재 제작·배포	△
		2008	습지 대중인식 증진 활동 활성화 사업	○
◎ 수질·하천				
하천의 종다양성	○	2005	경안천, 황구지천 등 하천 모니터링	○
		2006	하천관리체계와 공무원 인식 조사 및 하천 관련 시민단체 현황 조사	△
		2007	자연형하천조성 실태조사 및 조성구간 생태계 복원실태조사	△
		2008	지역하천 모니터링	○
◎ 폐기물				
1인당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	2005	의제 지표 측정을 위한 모니터링	○
		2006	음식물 폐기물 배출 및 처리현황과 자원화 시설 현황 등 모니터링 / 가정 음식물 폐기물 발생량 모니터링	○
		2007	학교급식 쓰레기 줄이고 재사용하기 /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모니터링 시범사업	○
		2008	회사구내 식당 음식물쓰레기 모니터링 및 감소방안 모색	○
◎ 도시계획				
시민 참여 평가지수	○	2005	의제 지표 측정을 위한 모니터링	○
		2006	도시대학 진행	△
		2007	바람직한 경기 뉴타운 만들기 프로그램	△
		2008	도시계획 분야 의제지표 제작성 사업	○
◎ 주민자치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평가지수	○	2005	의제 지표 측정을 위한 모니터링	○
		2006	농촌지역 주민자치센터 현황 모니터링	△
		2007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	○
		2008	주민자치 아카데미	○
◎ 성평등				
성평등 교육 시행지수	○	2005	양성평등 교육실태 모니터링	○
		2006	성평등 의식확산 위한 실천사업	△
		2007	경기도 양성평등 교육현황 모니터링	○
		2008	성평등 교육 실태조사	○

◎ 보육				
국공립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설치율	○	2005	국공립시설운영위원회 실태조사와 인식조사 모니터링	○
		2006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관련 안내서 제작·배포	△
		2007	경기도내 지역 보육운동 주체 세우기 워크숍	×
		2008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실태조사	×
◎ 농업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	○	2006	친환경 농업정책 모니터링 / 도민의식조사	○
		2007	경기도 친환경 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한 생산 및 유통 모니터링	○
		2008	학교급식 친환경 농축산물 소비확대 위한 심포지움 및 도시 소비자 친환경농업 체험사업	○
◎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친환경상품 구매율	○	2006	녹색구매 활성화 위한 기초현황파악과 활성화 위한 활동제안	○
자치단체 녹색구매 조례 제(개)정 수	○	2007	경기도 내 기초지자체 녹색구매 관련 조례만들기 실천활동	○
		2008	녹색구매 정책 및 실태 모니터링	○
◎ 에너지				
인구 1인당 비산업용 에너지 사용량	○	2006	의제 지표 측정을 위한 모니터링	○
		2007	수송에너지 부문 모니터링 및 전략실천활동	△
		2008	기후변화 대응 역량강화 순회 토론회 및 신재생에너지 지도제작	○
◎ 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동 평가지수	○	2006	의제 지표 측정을 위한 모니터링	○
		2007	의제 지표 측정을 위한 모니터링	○
		2008	의제 지표 측정을 위한 모니터링	○
◎ 문화				
문화 예술 소모임 수	○	2006	의제 지표 측정을 위한 모니터링	○
		2007	우수 문화소모임 사례조사 및 문화의제 지표 평가 및 제조명	○
		2008	소모임 활성화 위한 조례 제정 사업	○

* '측정 가능성'과 '의제 지표와 모니터링 및 실천사업과의 연계성'에 있어서 '○'는 의제 지표와 실천사업의 연관성이 높다는 의미이고 '×'는 낮다는 의미, 그리고 '△'는 연관성이 중간 정도임을 의미

2) 의제별 지표 대비 실천사업의 적절성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99년에 작성·선포된 ‘푸른경기21’의 경우에는 지역별 주관단체에 그 실천 및 모니터링을 일임하였기에 직접적으로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차원에서 잘 기획된 의제 지표 값 개선을 위한 실천 및 모니터링 사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들며, 주관단체들 역시 개별적인 활동들 중 어떤 사업이 의제 지표와 어느 정도 연관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기 어려움. 따라서 의제별 지표와 실천사업의 적절성 정도를 평가할 만한 근거가 부족. 다만, 앞의 <표 III-15>를 통해 그 달성 정도를 알 수 있음

○ 이에 의하면, 전체 21개 의제 중 2002년 현재 모든 모니터링 대상 지역에서 지표의 목표를 달성한 것이 3개, 일부 모니터링 대상 지역에서만 달성한 것이 3개, 모든 모니터링 대상 지역에서 목표치에 미달한 것이 5개로 조사됨. 나머지 10개 의제는 지표 측정 자체가 불가능하여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음

○ 2004년과 2005년에 걸쳐 재작성된 ‘경기의제21’의 경우에는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내 각 분과위원회 또는 의제별 실천위원회가 의제 지표 달성을 위한 모니터링 및 실천사업을 주관하였기에 실천사업과 의제지표와의 연관성을 비교적 명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데, 이에 의하면 대부분의 실천사업이 의제 지표와 직·간접적인 연관성을 지니는 것으로 평가됨(<표 III- 16> 참조)

- 수질하천의제의 경우 2007년에 보조지표인 자연형 하천 복원실태조사를 수행하였듯이, 직접적으로 주지표 달성을 목표로 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조지표 등 지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 있는 사업들을 수행한 것은 의제지표와 연동된 실천사업의 적절성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하지만 이러한 연관성이 의제 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잘 의도된 실천사업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 할 수 있음. 대표적으로 의제 지표 값을

산출하기 위한 모니터링은 해당 지표 달성을 위한 노력 여부가 개입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적절한 실천사업의 유형으로 보아야 하는지 논란이 될 수 있음. 하지만, 모니터링은 단순히 현재의 지표 상태를 측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방법이나 결과 활용 정도에 따라 지표 값 개선을 위한 실천 활동과 직·간접적인 연관성을 가질 수 있음.

- 예를 들면, 모니터링 결과를 대내외에 발표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대안 등을 제시하거나 모니터링 방법에 있어 의제별 실천위원회의 일부 위원들이 직접 주관하기보다는 해당 지역의 시민단체나 기초의제가 주관하도록 하는 것 등은 모니터링을 통해 해당 지역의 주체들이 향후 실천 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근거와 실천 활동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해당 의제 지표 값 개선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임

○ 의제 지표별 달성 정도 또는 달성을 위한 노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의 <표 III-17>과 같음

○ <표 III-17>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의제가 지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모니터링 사업보다는 의제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사업들 위주로 진행되었으므로, 지표 달성 정도를 전체적으로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하지만, 성평등의제와 보육의제 이외에는 대부분이 중간 측정 연도의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성평등의제의 경우, 시행지수 자체는 초과달성한 것으로 파악되나, 매년 모니터링의 대상 및 기관수가 변화되고 있으므로, 객관적인 결과라 볼 수는 없음

○ 하지만 각 의제실천위원회별로 지표 값 개선과 관련한 실천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라 볼 수 있음

- 지표를 초과달성한 보육의제의 경우, 제도 변화가 가장 주요한 이유이나 제도 개선에 대한 실천협의회 관련 주체들의 노력도 제도개선 과정에서 계속된 문제제기와 토론회를 통한 대안제시 등으로 일정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표 III-17> '경기의제21' 지표 달성 정도

의제 분야	의제지표	목표치	달성치	달성 정도
산림녹지	1인당 도시공원 면적	6.0㎡('06)	3.0㎡('06)	미달
습지	습지 보존지역의 지정 수와 면적	10개('07)	1개('07)	미달
수질·하천	하천의 종다양성	실천사업 위주로 진행		
폐기물	1인당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부분적 모니터링과 실천사업 위주로 진행		
도시계획	도시계획에서의 시민 참여 평가지수	실천사업 위주로 진행		
주민자치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평가지수	실천사업 위주로 진행		
성평등	성평등 교육 시행지수	385('04)	933회('06)	초과달성
보육	국공립 보육시설 시설운영위원회 설치율	50%('07)	100%('07)	초과달성 ¹⁾
농업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	실천사업 위주로 진행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친환경상품 구매 및 자치단체 녹색구매 조례 제(개)정 수	실천사업 위주로 진행		
에너지	인구 1인당 비산업용 에너지 사용량	실천사업 위주로 진행		
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동 평가지수	60%('06)	2개 자치단체만 만족	미흡
문화	문화 예술 소모임 수	실천사업 위주로 진행		

1) 2007년 법 개정을 통해 국공립 보육시설에는 의무적으로 운영위원회 설치토록 함

○ 또한 의제실천위원회별로 의제의 주지표를 개선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음. 예를 들면,

- 도시계획의제에서는 시민참여 정도에 대한 측정을 다른 지표를 통해 수행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며,
- 문화의제의 경우에는 주지표보다는 보조지표를 달성하는 것이 주지표 달성을 위해서도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
- 보육의제의 경우에는 지표를 수정하려는 계획은 없으나 애초 제시된 지표인 국공립보육시설 운영위원회 설치가 제도개선을 통해 이미 100% 초과달성되었기 때문에, 향후 실천 활동의 방향을 보육시설 운영위원회의 역량강화와 활성화에 두고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의 '경기의제21' 의제지표 달성을 위한 실천사업 활성화 정도를 종합하여 평가해 보면, 지표 값 개선을 위한 실천사업의 활발한 전개와 모니터링 결과의 활용 등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그러나 그러한 정도에 있어서는 아직 미흡하다고도 평가할 수 있는데, 아직 모니터링 대상 지역별 토론회가 많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점, 모니터링 대상 지역의 후속 실천 활동을 추동하기 위한 의도된 노력이 미흡한 점, 모니터링 결과 및 향후 방향에 대한 제언 등을 민관으로 확산하려는 노력이 아직은 부족한 점 등은 지표상의 측정가능성과 실천가능성 여부와 상관없이 지표 값 개선을 위한 실천노력이 아직은 충분치 않다고 평가할 수 있음

3) 실천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 정도

○ 경기도 지방의제21 실천사업에 대한 시민 참여도는 '푸른경기21'을 거쳐 '경기의제21'로 넘어오는 과정을 통해 점차로 확산되는 추세라 볼 수 있음. 그것은 의제실천사업이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내에서 점차로 더 많은 비중을 갖게 되는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며, 의제별 실천위원회를 중심으로 조직체계가 재편되면서 더욱 그러함

○ 그러나 의제를 실천하기 위한 사업에 일반 시민들이 어느 정도 참여했는가를 평가함에 있어 단지 작성된 지방의제21의 분야별 실천사업으로 한정하는 것은 지방의제21 실천사업의 범주를 지나치게 협소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실상, 지방의제 추진기구인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의 제반 사업들은 모두 작성·선포된 지방의제21의 내용을 실천하는 사업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실천협의회 또한 그러한 차원에서 의제별 실천위원회의 사업 이외에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음. 따라서 의제 실천사업에 대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기준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의제별 실천위원회의 모니터링 및 실천사업 이외에도 보다 넓은 범주의 사업들, 즉 각종 교육과 토론회·워크숍 등의 활

동과 공모를 통한 실천사업, 홍보사업 등도 포함하는 것이 적절

○ 그러한 넓은 범주의 의제실천사업들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시민들의 참여 정도를 살펴보면, 그러한 참여는 비교적 제한된 분야에서 이루어짐. 그것은 각종 토론회와 워크숍 등의 경우 주로 공무원과 NGO, 즉 단체 관계자들의 참여를 전제로 기획·실행되었기 때문. 반면, 의제실천위원회의 모니터링 및 실천사업은 사업의 종류에 따라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경우도 다수 있으며, 학교공모를 비롯한 공모사업들은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전제로 한 것들이 대부분

○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의 사업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각 유형별 구체적 사업내용을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일반 시민들의 참여 정도를 평가하여 보면,

<표 III-18> 활동 및 사업 유형별 일반 시민 참여도 평가

사업 분야 구분	사업 주관 주체	주요 참여자(또는 대상)	일반시민 참여정도
의제작성 및 실천 기획	실천협의회 위원	단체 관계자 또는 전문가	×
의제실천 및 모니터링 사업	실천협의회 위원	위원 및 시민단체 관계자, 해당 의제 이해관계자	△
분과위원회 사업	실천협의회 위원	시민단체 관계자, 공무원	×
학교 공모사업	학교	교사 및 학생	○
환경교육 공모사업	학교, 기초의제	교사, 학생, 시민단체 및 기초의제 관계자	○
민간단체 지원사업	민간단체	활동가 및 시민	○
환경교육사업	실천협의회 위원	시민단체 관계자, 공무원, 일반 시민	△
경기(환경)정책포럼	실천협의회 위원	위원, 시민단체 및 관련 공무원	×
친환경마을만들기 사업	실천협의회 위원	위원, 시민단체 관계자, 이해관계 있는 시민	○
국제교류사업	실천협의회 위원	위원, 공무원 등	×
기타 교육, 토론회, 워크숍 등	실천협의회 위원	위원, 시민단체 관계자 및 관련 공무원	×
홍보사업	실천협의회 상근자	위원, 공무원	×

○ 지방의제21을 작성하는 과정에 일반 시민들이 참여한 정도는 낮은 것으로 평

가할 수 있는데, 초기의 ‘푸른경기21’은 시범추진 지역의 주관단체가 주로 담당하였고 이후 제작성된 ‘경기의제21’의 경우에는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위원들이 담당하여 작성하였기 때문. 물론, ‘경기의제21’ 작성 과정에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각 의제명에 대하여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가 진행되었으나, 이는 매우 소극적인 참여 정도라 할 수 있음

- 하지만 광역의제라는 특성을 고려하면, 지방의제21 작성과정에 일반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향후 이 문제는 계속된 과제라 할 수도 있음

○ ‘경기의제21’에 대한 실천사업은 의제작성 과정보다는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활성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홍보 등의 사업들도 다수 포함되었기 때문. 하지만 의제 지표 값의 정도를 모니터링 하는 사업은 기본적으로 해당 의제실천위원회의 위원들을 중심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일반 시민 참여라는 기준을 사용할 경우 그 정도가 낮을 수밖에 없음. 그럼에도 모니터링 결과를 모니터링 대상 지역에서 발표하는 등은 점차로 ‘경기의제21’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인식 증진과 실천사업 참여를 확대하려는 노력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분과위원회는 2007년 총회 이후 의제별 실천위원회 체계로 대체되었다는 점에서 과거의 활동에 대한 평가라 할 수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토론회 및 교육 등도 다수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일반 시민들의 참여 또는 그러한 노력이 없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음. 그러나, 기본적으로 분과위원회 자체가 시민단체들의 역량강화와 시민단체를 통한 실천사업 위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일반 시민들의 참여 정도는 낮다고 평가할 수 있음

○ 학교 공모사업과 환경교육 공모사업, 민간단체 지원사업 등은 모두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지역 단체들이 일반 시민들과 학생, 교사 등의 참여를 통해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이 사업들은 모두 일반 시민들의 참여 정도가

높은 사업이라 평가할 수 있음

○ 환경교육사업의 경우, 주로 시민단체와 공무원 등 단체 관련자들의 역량강화 등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만큼 일반 시민들의 참여도가 그리 높다고 볼 수는 없음. 그러나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교재의 개발, 그리고 환경교육한마당 등을 통한 일반시민들 참여 현황 등을 고려하면, 사업유형별로는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많은 사업들도 다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경기정책포럼(2007년 이후 경기환경정책포럼)의 경우 주로 현안이 되는 문제에 대한 대안적 정책을 모색하기 위한 장(場)으로 활용되어왔는데, 이러한 성격은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할 수 있음. 하지만, 향후에는 현안에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면 지방의 제 추진기구로서의 위상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짐

○ 친환경마을만들기 사업의 경우에는 도시대학과 연계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마을만들기의 특성상 지역주민들이 사업의 주체로 참여하도록 기획·실천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 시민들의 참여도가 높은 사업이라 볼 수 있음. 하지만 도시대학의 경우는 주로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바, 이 역시도 향후에는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내용과 형식 등 다양한 방식을 고려하면 좋을 듯

○ 국제교류사업과 기타 토론회 및 워크숍 등의 사업 역시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전제로 한 사업이라 볼 수 없음

○ 홍보사업은 크게 소식지 발간과 이메일을 통한 웹진 발송, 특정한 사업에 대한 홍보 등으로 나뉘는데, 정기적 성격을 갖는 소식지와 웹진은 주로 위원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발송되었음

○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의 사업유형별로 시민들의 참여도를 평가한 결과에 의하면, 시민들의 참여가 활성화된 사업보다는 그렇지 못한 사업유형이 더욱 많음을 확인할 수 있음. 그러나 일반 시민들의 참여 정도가 해당 사업유형의 사업성과 또는 활성화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음. 많은 사업유형의 경우 처음부터 일반 시민들의 참여보다는 위원, 공무원,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한 성과를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 다만, 시민들의 참여를 전제로 한 사업을 보다 많이 개발하고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은 실천협의회의 향후 계속되는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임

○ 시민들의 참여 정도를 평가함에 있어 또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 시민들의 참여 정도가 모두 수동적인 참여에 머무른다는 점으로, 수동적 참여를 넘어 주체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또한 향후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 볼 수 있겠음

- 이는 광역의제라는 특성을 고려하면, 기초의제와의 관계를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과제라 여겨짐

○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의 지난 10년 활동을 앞서와 같은 기준으로 평가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실천협의회는 그간 지방의제21 추진기구로서 경기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실천을 꾸준히 수행해 왔고, 그 정도 역시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그러나 노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는 별개로 그 노력이 실제 어떠한 성과를 거두고 있느냐 하는 점에 있어서는 아직은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즉, 노력에 있어서는 긍정적 평가를 할 수 있으나, 경기도의 전반적 지속가능발전의 정도가 그러한 노력에 상당하는 정도의 진전을 이루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것임. 그러나 이를 실천협의회의 책임이라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다만 보다 지속적으로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의 경주는 향후 10년의 과제로 여전히 남아있다 할 수 있음

제 4 장 10년 활동 평가 - 참여 주체들의 평가내용을 중심으로

1. 조사 개요

1) 조사목적 및 대상

○ 앞 장에서 시행한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10년 활동의 평가는 주로 경기도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한 실천협의회 활동 내용들을 토대로 한 것임. 따라서 이 평가는 실천협의회가 지난 10년 간 얼마나 다양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가를 분석한 것이라 볼 수 있음

○ 반면, 이 장에서는 현재 <푸른경기 21 실천협의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지난 10년간 실천협의회 활동에 대해 경기도 지속가능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를 주관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분석하여 정리함. 이는 실천 주체들이 실천협의회의 그간 노력의 정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자 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음

○ 이를 위해 일반 위원들을 조사대상으로 하지 않고, 위원들 중에서도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의 전반적인 상황을 비교적 잘 인지하고 있으며 각종 사업에 핵심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운영위원, 정책위원, 양성평등위원, 경기도 내 기초의제 사무국장으로 구성된 기초의제협력위원, 그리고 실천협의회 사무처 상근자,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

○ 이러한 주관적 조사를 위해 사용한 기준은 앞의 활동내용에 근거한 평가에서

사용한 세 개의 기준 이외에 ‘기타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한 정도’를 추가

2) 조사방법 및 시기

○ 조사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작성하여 조사대상자들에게 메일로 발송 후 회신을 받는 방식을 채택하였는데, 이는 조사대상자들이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와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이상의 회수율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 그리고 운영위원 중 이메일로 회신하지 않은 일부 위원들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회의 중에 서면으로 질문지를 작성토록 함. 또한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상근 직원들 역시 직접 서면으로 작성하여 수거하는 방식을 취함

○ 질문지는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5점은 가장 긍정적인 평가에 대한 값이고 1점은 가장 부정적 평가에 대한 값. 5점에서 1점 사이는 매우 긍정(5)에서부터 긍정(4), 보통(3), 부정(2), 매우 부정(1)으로 구성되어 있음. 따라서 3점에 미달하는 값은 부정적 평가로 분류할 수 있고, 3점을 초과하는 값은 긍정적 평가라 할 수 있음

○ 전체적인 평가 정도는 응답자들의 평가 점수에 대한 평균을 통해 살펴보고 있는데, 평균 점수가 갖는 함정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즉, 평균점수는 전체적인 경향을 볼 수는 있지만, 응답자들의 평가 내용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예를 들어,

- 대다수의 응답자가 가장 높은 점수를 선택하였다 하더라도 아주 적은 소수가 최저 점수를 선택한 경우에는 평균 점수가 많이 하락될 수밖에 없으며,
- 최고 점수는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함을 의미하는데, 모든 응답자가 최고 점수를 선택하지 않는 한 평균 점수가 최고 점수로 계산될 수 없음
- 중간치 점수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고 가장 낮은 점수와 가장 높은 점수가 소

수 응답자에 의해 비슷한 비율을 보여 평균점수가 중간치로 나온 것과 가장 낮은 점수에서부터 가장 높은 점수까지가 균등한 응답비율을 보여 중간치의 평균점수가 나온 것은 평가 내용에 있어 매우 차별적으로 해석해야 하지만, 평균 점수만으로는 그 차이를 규명할 수 없음

○ 따라서 이 장에서는 평균점수와 더불어 각 평가 점수의 분포 그래프를 함께 비교함으로써 평균점수에 대한 해석이 갖는 문제점을 보완하였음
 - 통계분석표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표본 수가 53개에 불과하므로, 통계 자체의 유의미성이 약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

○ 질문의 내용은 크게 ‘민관협력에 대한 기여 정도’, ‘기초의제와의 관계 및 지원 정도’, ‘의제와 실천사업의 적절성 정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기여 정도’로 구성

○ 조사는 9월29일부터 10월 6일까지 8일 동안 진행되었으며, 총 100여 명에게 질문지를 전달하여 이 중 53부가 최종적으로 수거. 수거율은 약 53.0%

3) 응답자 현황

○ 총 53명 응답자들이 소속된 집단의 유형을 살펴보면, 경기도 내 기초의제가 37.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시민단체가 28.3%로 그 뒤를 이어 많은 응답 비율을 보임. 그리고 학교와 연구소에 근무하는 전문가 집단이 17.3%로 그 뒤를 잇고 있으며, 실천협의회 상근자(11.3%)와 관련 공무원(3.8%) 등의 순으로 응답

<표 IV-1> 응답자 소속집단 현황

구분	시민단체	행정	기초의제	학교·연구소	실천협의회	개인	합계
빈도(%)	15(28.3)	2(3.8)	20(37.7)	9(17.0)	6(11.3)	1(1.9)	53(100.0)

○ 응답자들이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에서 활동한 기간을 살펴보면, 1년 미만은 7.7%에 불과하고 1년 이상 3년 미만이 가장 많은 30.8%, 3년 이상 5년 미만이 28.8%, 5년 이상이 32.7%. 즉, 3년 이상이 61.5%로 비교적 장기간 실천협의회 활동 경력을 가진 응답자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 소속집단 별 활동경력 평균은 시민단체 3.4년, 행정 2년, 기초의제 2.7년, 전문가 그룹 3.5년, 실천협의회 2.33년 등으로 나타남

<표 IV-2> 응답자의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활동 경력

구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7년 이상	합계
빈도(%)	4(7.7)	16(30.8)	15(28.8)	10(19.2)	7(13.5)	52(100.0)

2. 민관협력에 대한 기여도 평가

○ 민관협력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사용한 세부 기준은,
 - 행정이 시민단체를 파트너로 인식하는 데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한 정도
 - 다양한 시민사회 주체들이 행정의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정도
 - 시민사회의 역량강화에 기여한 정도
 - 시민사회 민간단체들 간의 협력관계(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한 정도
 - 행정과 시민사회 상호 간의 신뢰 증진에 기여한 정도
 - 기타 전반적인 민관협력 증진에 기여한 정도

○ 행정이 시민단체를 파트너로 인식하도록 기여한 정도에 대해서는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상근자 이외에는 4점 이상의 높은 기여도로 평가. 하지만 실천협의회 상근자들도 보통 이상의 기여를 하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 전체 평균 값은 4.06으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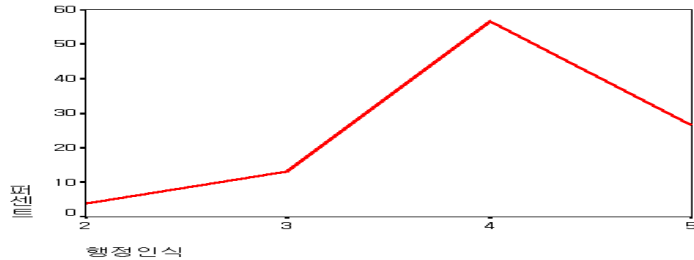
<표 IV-3> 행정이 시민단체를 파트너로 인식하도록 기여한 정도

소속집단	시민단체	행정	기초의제	학교/연구소	실천협의회	개인	전체 평균
평균 값	4.00	4.00	4.10	4.44	3.50	4.00	4.06

* 최대 값은 '5'이고 최소 값은 '1'이며, 5↔1 사이는 '매우 기여'↔'전혀 기여 못함'으로 구성

※ 이 장의 이하 모든 평가 값 도표는 위의 설명과 같음

○ 이러한 긍정적 평가 정도는 평가 값의 분포도에서도 잘 알 수 있는데, 50% 이상이 4점으로 긍정적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하였고, 30%에 달하는 응답자는 5점으로 매우 긍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함



* X축의 값은 5점 척도 상의 점수이고, Y축은 각 평가 값의 응답 비율

** X축의 값에서 표기되지 않는 점수는 응답 비율 0%를 의미

※ 이 장의 이하 모든 분포도 그래프는 위의 설명과 같이 적용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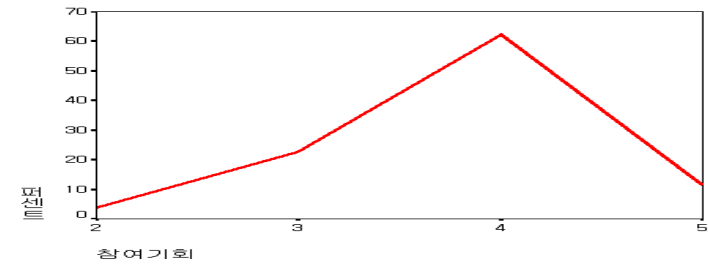
<그림 IV-1> <표 IV-3>의 측정 값 분포도

○ 시민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행정의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정도에 있어서는 평균 3.81점으로 비교적 높은 긍정적 평가를 함. 소속집단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행정과 전문가 등이 4점 이상의 긍정적 평가를 하였고, 그 외 시민단체 역시 4점에 근접한 3.93점으로 높은 평가를 함. 하지만 <푸른경기 21실천협의회> 상근자들과 기초의제 관계자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집단보다 그러한 역할에 대해 덜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모든 소속집단에서 보통 이상의 긍정적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IV-4> 시민사회 주체들의 행정 파트너 참여 기회 제공 정도

소속집단	시민단체	행정	기초의제	학교/연구소	실천협의회	개인	전체 평균
평균 값	3.93	4.00	3.55	4.33	3.50	4.00	3.81

○ 응답자들의 평가 점수별 점유 비율을 살펴보아도 4점의 긍정적 평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다음이 보통(3점) 정도로 평가하고 있음. 그리고 부정적 평가 전체(1~2점)보다도 많은 응답자들이 매우 긍정적인 기여(5점)를 했다고 평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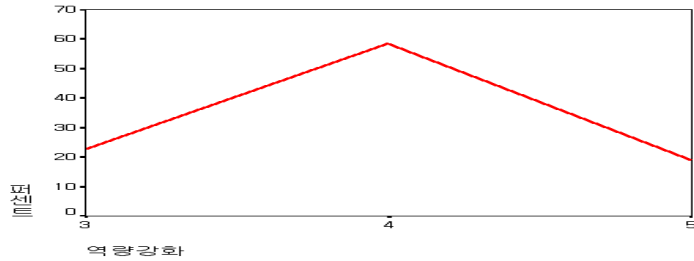
<그림 IV-2> <표 IV-4>의 측정 값 분포도

○ 시민사회의 역량강화에 기여한 정도에 있어서도 3.96점으로 역시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행정과 기초의제, 전문가 집단은 4점 이상의 매우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시민단체와 실천협의회 상근자들의 평가는 이들보다 비교적 덜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음. 주목할 점은 시민단체들의 긍정적 평가가 실천협의회 상근자 이외의 다른 집단들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보다 많은 노력을 해야 할 필요성을 요구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음. 하지만, 시민단체들 역시도 부정적 평가보다는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표 IV-5> 시민사회 역량강화에 기여한 정도

소속집단	시민단체	행정	기초의계	학교/연구소	실천협의회	개인	전체 평균
평균 값	3.87	4.50	4.05	4.11	3.67	3.00	3.96

○ 평가 점수의 분포를 살펴보면, 부정적 평가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모든 응답자가 보통 이상의 응답을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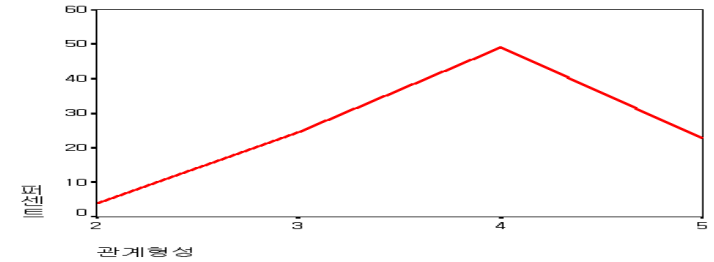
<그림 IV-3> <표 IV-5>의 측정 값 분포도

○ 시민사회 민간단체들 간의 협력관계(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있어서도 대체로 높은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전체 평가점수는 3.91점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행정과 전문가 집단이 높은 평가를 하고 있음

<표 IV-6> 민간단체들 간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한 정도

소속집단	시민단체	행정	기초의계	학교/연구소	실천협의회	개인	전체 평균
평균 값	3.87	4.50	3.80	4.33	3.50	4.00	3.91

○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4점)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뒤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5점)하는 응답이 높음. 부정적 평가도 일부 있었으나 매우 부정적인 평가(1점)는 없고 비교적 부정적이었다고 평가(2점)한 응답자의 비율은 5%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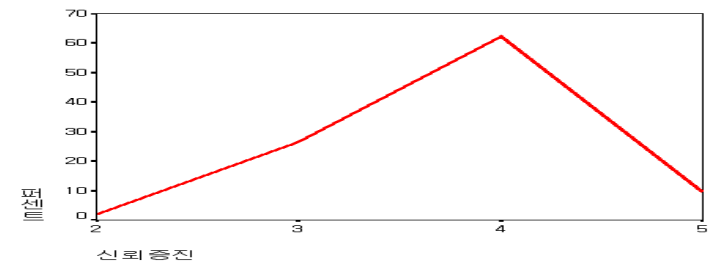
<그림 IV-4> <표 IV-6>의 측정 값 분포도

○ 행정과 시민사회 상호간의 신뢰 증진에 기여한 정도 평가 값은 3.79점으로,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시민사회의 대표성이 강한 시민단체들은 상대적으로 그 긍정적 평가의 정도가 낮은 편. 이는 <푸른경기21 실천협의회>의 노력과 이러한 신뢰가 아직 높게 형성되지 않은 현실 사이를 절충한 평가가 아닌가 여겨짐

<표 IV-7> 행정-시민사회 신뢰 증진에 기여한 정도

소속집단	시민단체	행정	기초의계	학교/연구소	실천협의회	개인	전체 평균
평균 값	3.60	4.00	3.95	3.78	3.67	4.00	3.79

○ 각 평가점수의 분포에 있어서도 70% 정도가 긍정적으로 기여하였다고 평가(4~5점)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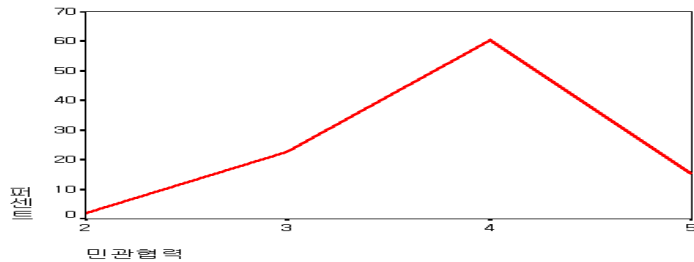
<그림 IV-5> <표 IV-7>의 측정 값 분포도

○ 전반적인 민관협력 증진에 기여한 정도는 3.89점으로 나타나, 이 역시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음을 확인

<표 IV-8> 전반적 민관협력에 기여한 정도

소속집단	시민단체	행정	기초의제	학교/연구소	실천협의회	개인	전체 평균
평균 값	3.87	4.00	3.80	4.11	3.83	4.00	3.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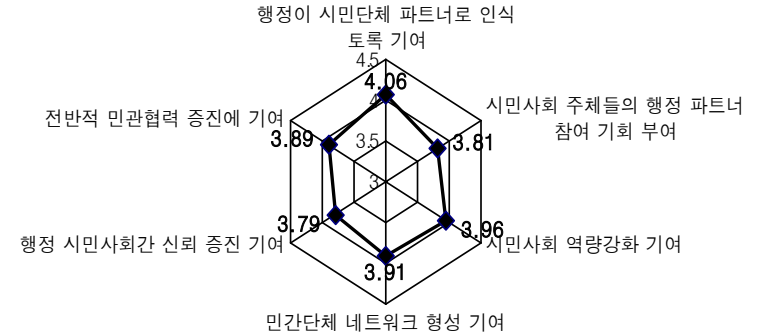
○ 평가 점수별 분포에 있어서도 응답자의 60% 정도가 긍정적 평가(4점)를 하였고, 매우 긍정적으로 기여하였다고 평가(5점)한 응답자의 비율도 1~2점으로 부정적 평가를 한 응답자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함. 마찬가지로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한 명도 없었음



<그림 IV-6> <표 IV-8>의 측정 값 분포도

○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의 지난 10년 활동이 민관협력 증진에 기여한 내용에 대하여 응답자들의 평가결과를 비교해서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행정이 시민단체를 파트너로 인식하도록 기여한 것이 4.06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 점수를 얻음. 이는 긍정과 매우 긍정 사이의 점수로, 이 점수가 평균 값이라는 것을 감안하며, 응답자들은 상당히 높은 기여도를 보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민관협력에 대한 세부 기준들에 대한 평가의 전체 평균 값을 계산해 보면, 3.90점으로 매우 높은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앞의 <표 IV-8>의

민관협력 전반에 대한 기여도 평가와 거의 일치하는 결과임



<그림 IV-7> 민관협력에 대한 기여도 평가 종합 분석도(평균 값=3.90)

○ 결국,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의 지난 10년 활동 중 민관협력에 대한 기여도는 응답자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매우 긍정적이라는 응답도 부정적 응답보다는 민관협력 관련 모든 세부 기준에서 항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그리고 이러한 긍정적 평가의 정도는 각 평가 값에 대한 분포도를 통해 더욱 확연히 드러남

○ 소속집단별로는 실천협의회 상근자들의 평가가 비교적 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보다 노력하고 발전할 필요가 있다는 아쉬움의 표현이라 해석할 수 있겠음. 그리고 시민단체들의 평가도 긍정적이긴 하지만 전문가 집단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긍정 점수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아직 민관협력이 크게 발전하지 못한 현실을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느끼는 때문으로 보임

3. 기초의제 지원 및 긴밀한 관계 형성에 대한 기여도 평가

○ 기초의제에 대한 지원 및 기초의제 간, 기초의제와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간 긴밀한 관계형성에 대한 평가는 다른 어떤 소속집단보다도 기초의제 사무국장으로 구성된 기초의제협력위원들의 평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하지만, 다른 소속집단의 평가도 평균 점수에 포함시킨 이유는 다른 소속집단에 속한 응답자들 중 상당수도 기초의제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평가는 기초의제 관계자들의 평가를 중심으로 살펴보되, 다른 집단의 평가 내용도 함께 살펴보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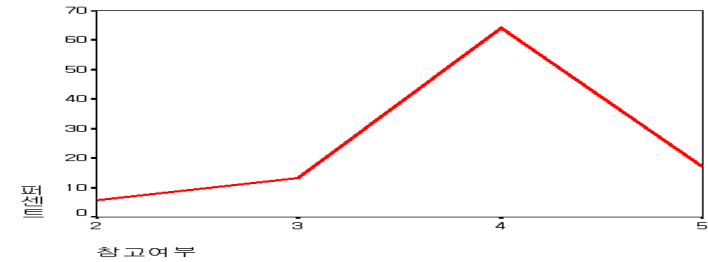
- 이 기준에 대한 평가를 위해 사용한 세부기준들은,
 - 기초의제의 활동에 참고가 된 정도
 - 기초의제 활성화 또는 역량강화에 기여한 정도
 - 기초의제 간 협력관계(네트워크)에 기여한 정도
 - 전반적으로 기초의제와 긴밀한 관계 정도

○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의 활동이 기초의제의 활동에 많은 참고가 되었는데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3.92점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소속집단에서 평균치에 근접한 평가를 하고 있음. 이는 실천협의회가 실질적으로 기초의제의 활동에 있어서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자체로도 간접적으로나마 기초의제에 대한 지원 역할을 한 것이라 분석할 수 있음. 특히, 이 평가 분야에 있어서 직접적 당사자인 기초의제 관계자들의 평균 평가 점수는 4점으로, 전체 평균보다 높은 긍정적 평가를 하였음

<표 IV-9> 기초의제의 활동에 참고가 된 정도

소속집단	시민단체	행정	기초의제	학교/연구소	실천협의회	개인	전체 평균
평균 값	3.80	4.00	4.00	3.89	4.17	3.00	3.92

○ 각 평가점수들의 분포를 살펴보면, 평균점수가 나타내는 수치보다 더욱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긍정적으로 평가(4~5점)한 응답자가 전체의 80%를 넘고,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5점)한 응답자도 20% 정도에 이르는 반면 부정적 평가(1~2점)와 보통 정도라는 평가(3점)를 합하여도 응답자의 20%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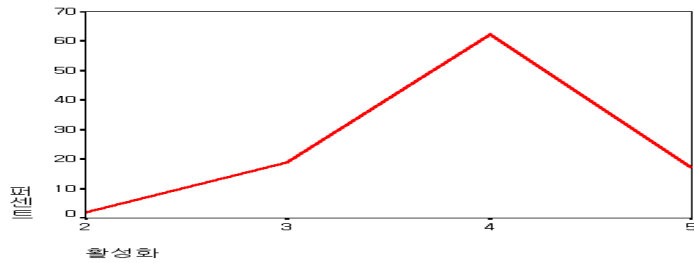
<그림 IV-8> <표 IV-9> 측정 값 분포도

○ 기초의제 활성화 또는 역량강화에 기여한 정도에 대한 평가 역시도 3.94점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특히 민관협력 분야 전반과 다르게 이 세부 기준에서는 실천협의회 상근자들이 가장 높은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 실천협의회에서 기초의제 지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제 많은 역량을 투여하려 노력하였음을 반영. 그리고 이 분야 평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기초의제 관계자의 평가도 전체 평균보다 높은 4점으로, 평균 이상의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음

<표 IV-10> 기초의제 활성화 또는 역량강화에 기여한 정도

소속집단	시민단체	행정	기초의제	학교/연구소	실천협의회	개인	전체 평균
평균 값	3.80	4.00	4.00	3.89	4.33	3.00	3.94

○ 이러한 긍정적 평가는 평가 점수별 응답자 비율을 살펴보아도 잘 알 수 있는데, 80% 정도의 응답자가 보통을 넘는 긍정적 평가(4~5점)를 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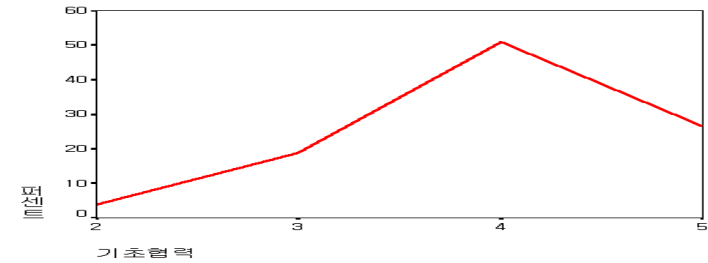


<그림 IV-9> <표 IV-10>의 측정 값 분포도

○ 기초의제 간 협력관계(네트워크)에 기여한 정도에 있어서는 평균 점수가 4점에 이를 만큼 높은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음. 이는 평가 점수별 분포도에서도 잘 알 수 있는데, 4점의 긍정적 평가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5점의 매우 높은 긍정적 평가임. 물론, 기초의제 관계자들의 평균 평가 점수인 3.90점도 평균 점수라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높은 긍정적 평가임을 알 수 있지만, 시민단체를 제외한 다른 집단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긍정적 평가의 정도가 덜한 것이라 할 수 있음. 이는 기본적으로 기초의제 간 네트워크에 있어 실천협의회와 기여를 긍정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관계의 주체는 실천협의회가 아닌 기초의제 당사자라는 의견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라 여겨짐

<표 IV-11> 기초의제 간 협력관계 형성에 기여한 정도

소속집단	시민단체	행정	기초의제	학교/연구소	실천협의회	개인	전체 평균
평균 값	3.87	4.00	3.90	4.22	4.33	4.00	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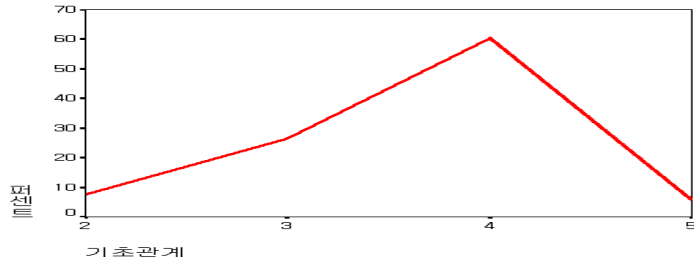


<그림 IV-10> <표 IV-11>의 측정 값 분포도

○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와 기초의제 간 전반적 관계의 긴밀성에 있어서는 3.64점으로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지만, 다른 세부 기준보다는 그 긍정의 정도가 약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시민단체와 기초의제 관계자의 평가 정도가 다른 소속집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또한 '관계 형성'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즉, 긴밀한 관계의 형성은 한 쪽 일방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양측의 공동 노력을 통해 가능한 것이기 때문. 따라서, 실천협의회와 기초의제 간 관계의 긴밀성에 있어 기초의제나 특정한 지역에 근거한 활동을 벌이는 시민단체들의 입장에서는 그 기여도에 있어 일방적으로 실천협의회를 선택하지 않은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할 수 있겠음. 다만, 실천협의회와 기여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은 조사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이는 평가 값의 분포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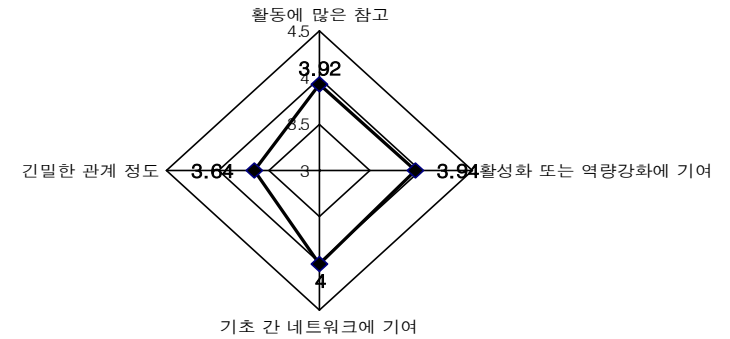
<표 IV-12> 기초의제와의 긴밀한 관계 형성에 기여한 정도

소속집단	시민단체	행정	기초의제	학교/연구소	실천협의회	개인	전체 평균
평균 값	3.40	4.00	3.65	3.78	3.83	4.00	3.64



<그림 IV-11> <표 IV-12>의 측정 값 분포도

○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의 지난 10년 활동이 기초의제의 역량강화 또는 활성화 등에 기여한 정도 및 기초의제 간, 기초의제와 실천협의회 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형성토록 기여한 내용에 대하여 응답자들의 평가결과를 비교해서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기초의제 간 네트워크에 기여했다는 평가(4.0)와 기초의제의 활성화 또는 역량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3.94), 그리고 기초의제의 활동에 있어 실천협의회 활동이 많은 참고가 되었다(3.92)는 평가가 비교적 골고루 높은 평가를 받음. 또한 이보다는 약간 낮게 평가되었지만, 광역의제로서 실천협의회가 기초의제와 긴밀한 관계 형성을 위해 기여한 정도에 있어서도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라 할 수 있는 3.64점을 얻음. 이는 전체적으로 기초의제에 대한 지원이나 관계형성에 있어 실천협의회가 비교적 많은 기여와 역할을 했다는 긍정적인 평가임. 이러한 기초의제 지원 또는 관계에 대한 세부 기준들 평가 값의 전체 평균을 계산해 보면, 3.88점으로 비교적 높은 점수를 얻어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그림 IV-12> 기초의제 활성화 및 긴밀한 관계 형성 기여도 평가 종합 분석도 (평균 값=3.88)

○ 기초의제에 대한 지원 및 관계 형성에 대한 기여도에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기초의제에 대한 지원 정도에 있어서는 기초의제 관계자들로부터 다른 소속집단보다도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이 분야에 있어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의 노력과 기여도를 당사자들이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의미

4. '경기의제21' 및 의제실천 사업의 적절성 평가

- 이 기준을 평가하기 위해 채택한 세부기준들은,
 - 분야별 의제 지표가 실천 가능한 것으로 채택된 정도
 - '경기의제21' 작성·선포 이후(2005년 이후)의 실천 및 모니터링 사업이 의제지표 상승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정도
 - 실천 및 모니터링 사업에 시민들을 포함한 관련 주체들의 참여가 확대된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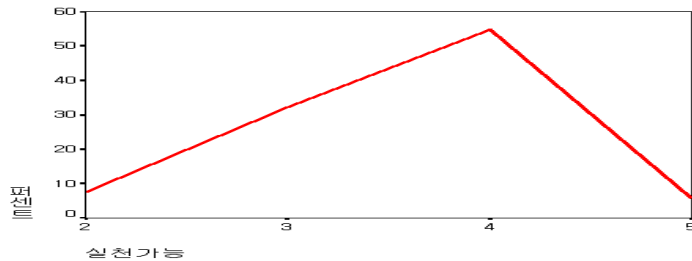
- '경기의제21' 지표에 따른 연도별 목표치가 원활히 달성되고 있는 정도

○ 분야별 의제 지표가 실천 가능한 것으로 채택된 정도에 있어서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값이 산출됨. 특이한 점은, 지방의제21 추진기구에서 상근하는 응답자들의 평가가 다른 소속집단보다 약간 더 긍정적이라는 것

<표 IV-13> '경기의제21' 지표의 실천 가능성 정도

소속집단	시민단체	행정	기초의계	학교/연구소	실천협의회	개인	전체 평균
평균 값	3.60	3.00	3.70	3.33	3.83	3.00	3.58

○ 의제 지표의 실천가능성에 대한 평가 값의 분포도를 살펴보아도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보통 정도라는 평가도 앞서의 다른 기준에 대한 평가에 비해 상당한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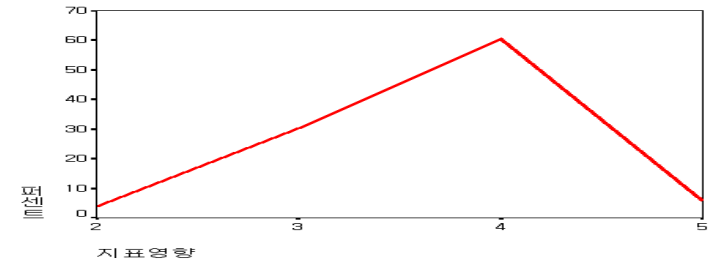


<그림 IV-13> <표 IV-13>의 측정 값 분포도

○ '경기의제21' 작성·선포 이후(2005년 이후)의 실천 및 모니터링 사업이 의제지표 상승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정도에 있어서는 비교적 긍정적 평가(3.68점)를 이루고 있으나, 분포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보통 정도라는 평가도 상당 정도 차지하고 있음

<표 IV-14> 의제실천사업이 지표 상승에 미친 영향 정도

소속집단	시민단체	행정	기초의계	학교/연구소	실천협의회	개인	전체 평균
평균 값	3.60	4.00	3.80	3.67	3.50	3.00	3.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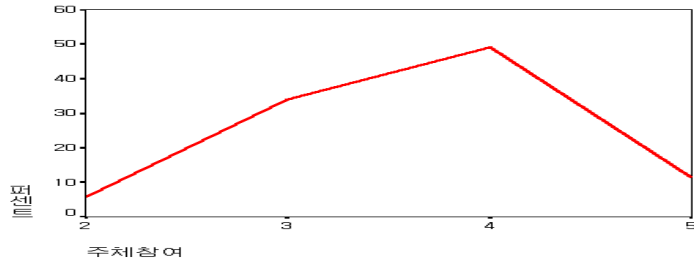
<그림 IV-14> <표 IV-14>의 측정 값 분포도

○ 실천 및 모니터링 사업에 시민들을 포함한 관련 주체들의 참여가 확대된 정도에 있어서는 비교적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특히, 행정과 전문가 집단에서 긍정적 평가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들은 지속가능발전 또는 지방의제21 실천사업을 현장에서 도민들과 함께 직접 수행하지 않는 집단이라는 특성이 있음. 이는 시민들의 참여 정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집단이라는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 해석할 수도 있지만, 현장에서 직접 도민들의 참여 유도를 힘들게 수행하고 있는 여타 응답자들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집단이라는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음

<표 IV-15> 실천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참여 확대 정도

소속집단	시민단체	행정	기초의계	학교/연구소	실천협의회	개인	전체 평균
평균 값	3.40	4.00	3.75	3.89	3.50	4.00	3.66

○ 응답자들의 평가 값 분포도에 의하면, 긍정적 평가가 주를 이루지만, 보통 정도라는 평가도 상당한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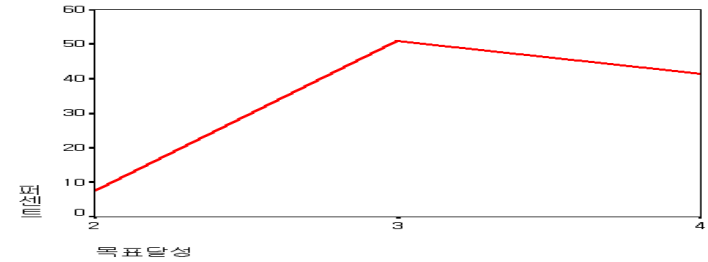


<그림 IV-15> <표 IV-15>의 측정 값 분포도

○ '경기의제21' 지표에 따른 연도별 목표치가 원활히 달성되고 있는 정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평가 값이 나오기는 했지만, 여타의 평가 분야보다는 많이 낮은 평가 값이 나옴. 이는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실제 목표 연도의 지표 값 달성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 이는 분포도를 살펴보면 더욱 확연히 드러나는데, 긍정적 평가보다는 보통 이하로 평가한 응답자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 다만, 그럼에도 전체적으로 긍정적 평가 값이 나온 이유는, 앞의 실천사업과 의제지표 상승과의 연관성 평가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객관적 달성 여부보다는 달성을 위한 실천사업의 유효성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라 여겨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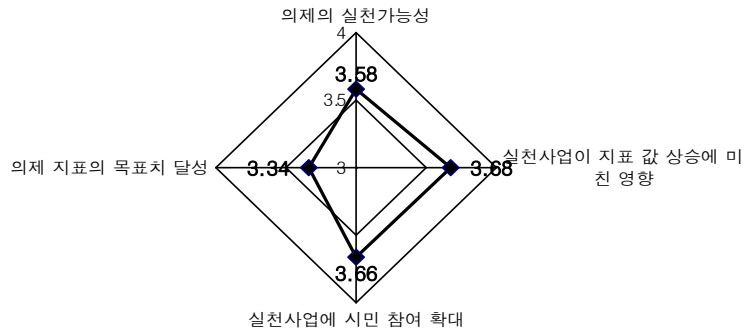
<표 IV-16> 의제 지표 값 달성 정도 평가

소속집단	시민단체	행정	기초의계	학교/연구소	실천협의회	개인	전체 평균
평균 값	3.27	4.00	3.35	3.22	3.50	3.00	3.34



<그림 IV-16> <표 IV-16>의 측정 값 분포도

○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에서 지난 2004년과 2005년에 걸쳐 재작성한 '경기의제21'의 지표가 지방의제21 취지에 걸맞게 실천 가능한 내용으로 작성되었는지 또한 그 실천사업이 지표의 상승에 기여하는 내용으로 잡혀있는지, 그리고 그 실천사업에 보다 많은 경기도민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에 대한 응답자들의 평가결과를 비교해서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대체로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다만, 긍정적 평가 속에서도 의제 지표의 목표치 달성 정도에 있어서는 비교적 낮은 3.34점의 평가 점수를 얻음. 하지만, 이 역시도 보통 이상의 긍정적 평가인데, 이는 구체적으로 해당 목표 연도의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거나 아직 목표 연도의 목표치를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이 실시되지 못한 것과 실천사업이 비교적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다소 반대되는 두 가지 평가가 혼합되어 내려진 평가라 여겨짐. 이러한 '경기의제21'의 실천 가능성과 실천사업의 적절성에 대한 세부 기준들 평가 값의 전체 평균을 계산해 보면, 3.57점으로 응답자들이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그림 IV-17> '경기의제21' 실천가능성과 실천사업의 적절성 평가 종합 분석도
(평균 값=3.57)

○ 이 분야에 대한 응답자들의 평가를 종합해 보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지만 다른 기준들에 비해서는 그 긍정적 평가의 정도가 낮음. 이는 지난 '푸른경기21'의 내용과 실천사업에 비해 '경기의제21'의 그것이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향후의 과제를 보여주는 결과라고도 할 수 있음

5. 기타 경기도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기여도 평가

- 위에서 채택한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의 고유한 역할에 따른 기준 이외에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사용한 세부 기준은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진 정도
 - 경기도민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을 높여준 정도
 -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경기도민의 참여를 이끌어 낸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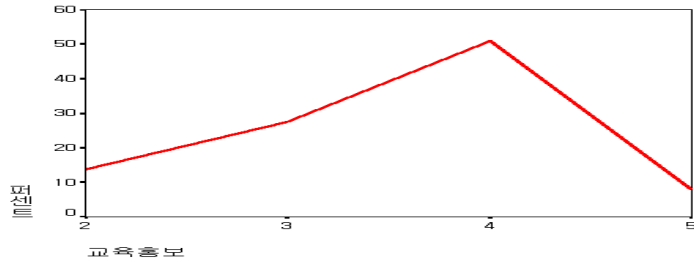
- 활동 영역에 있어 환경 중심에서 경제, 사회 영역으로 확장된 정도
- 의제 활동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 작업이 적절히 이루어진 정도
-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행정의 관심과 책임 있는 참여를 이끌어 낸 정도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기도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 낸 정도
- 경기도 내 기초지자체들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이끌어 낸 정도
- 지속가능발전조례 및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그 운영방향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도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진 정도에 있어서도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타남. 하지만 행정과 전문가 집단에서는 긍정적 평가의 정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시민단체 및 기초의제에서는 긍정적 평가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점은 특이 사항. 이는 일반 시민들과의 접촉면 정도의 차이에 근거한 것이라고 추측됨. 즉, 일반 시민들의 경우 아직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지도가 떨어진다는 현상에 대한 체감 정도 차이에 근거한 것이 아닌가 여겨짐

<표 IV-17> 지속가능발전 교육 및 홍보 정도

소속집단	시민단체	행정	기초의제	학교/연구소	실천협의회	개인	전체 평균
평균 값	3.21	4.00	3.47	4.00	3.67	3.00	3.53

○ 이러한 분석은 평가 값의 분포도를 통해 더 확연히 드러나는데, 긍정적 평가가 주를 이루기는 하지만 부정적 평가도 15% 정도에 이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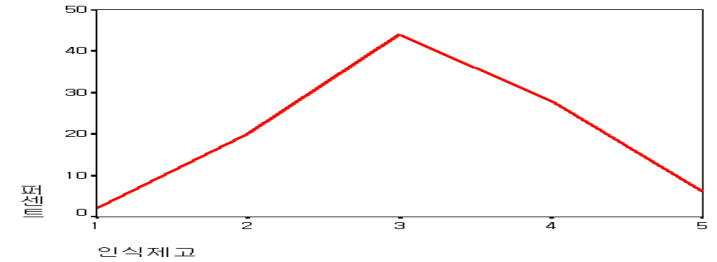
<그림 IV-18> <표 IV-17>의 측정 값 분포도

○ 경기도민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을 높여준 정도를 살펴보면, 앞서 교육 및 홍보 활성화 정도에 대한 소속집단별 차이에 대한 해석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음. 도민의 인식을 높여준 정도에 대한 평가결과가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그 긍정적 평가의 정도가 매우 낮은 3.16점으로 나타났기 때문. 그래도 긍정적 평가결과가 나온 이유는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의 활동을 통해 그나마 과거보다 인식이 높아지는 긍정적 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짐. 즉, 지금의 인지도 정도가 만족스럽지 않지만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평가결과라 할 수 있음

<표 IV-18> 경기도민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 높여준 정도

소속집단	시민단체	행정	기초의계	학교/연구소	실천협의회	개인	전체 평균
평균 값	2.79	3.50	3.37	3.62	2.83	2.00	3.16

○ 이러한 분석은 평가 값에 대한 분포도를 확인하면 더욱 확연해 짐. 40%를 넘는 응답자가 보통 정도라고 평가하는 것이 확인됨. 또한 긍정적 평가 못지 않게 부정적 평가도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됨. 따라서 전반적으로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가 경기도민들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에는 그리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고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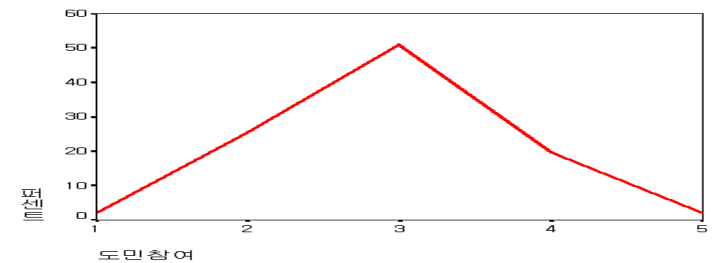


<그림 IV-19> <표 IV-18>의 측정 값 분포도

○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경기도민의 참여를 이끌어 낸 정도를 살펴보면, 다소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음. 전체 평균 점수가 보통 이하인 2.94점으로 계산되었기 때문. 이러한 평가 내용은 평가 값에 대한 분포도를 통해 더욱 확연히 드러남. 보통이라고 평가한 응답자들을 정점으로 긍정과 부정이 비교적 골고루 분포하고 있는데, 이는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의 비중이 보통 이하로 평가한 응답자보다 매우 적은 비율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 그래도 비교적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집단은 전문가 집단이 유일

<표 IV-19> 지속가능발전에 도민 참여 이끌어 낸 정도

소속집단	시민단체	행정	기초의계	학교/연구소	실천협의회	개인	전체 평균
평균 값	2.86	3.00	3.00	3.11	2.83	2.00	2.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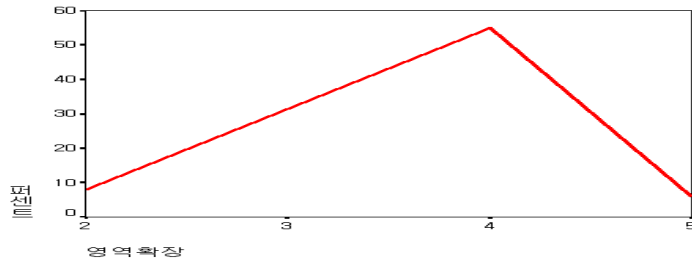


<그림 IV-20> <표 IV-19>의 측정 값 분포도

○ 활동 영역에 있어 환경 중심에서 경제, 사회 영역으로 확장된 정도에 있어서는 모든 소속집단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전체 평균 점수는 3.59점. 하지만, 평가 값의 분포도에서 보통 이하로 평가한 응답자가 상당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활동 영역의 확장이 충분하다고 평가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음

<표 IV-20> 활동 영역의 확대 정도

소속집단	시민단체	행정	기초의계	학교/연구소	실천협의회	개인	전체 평균
평균 값	3.50	3.50	3.37	4.11	3.83	3.00	3.59



<그림 IV-21> <표 IV-20>의 측정 값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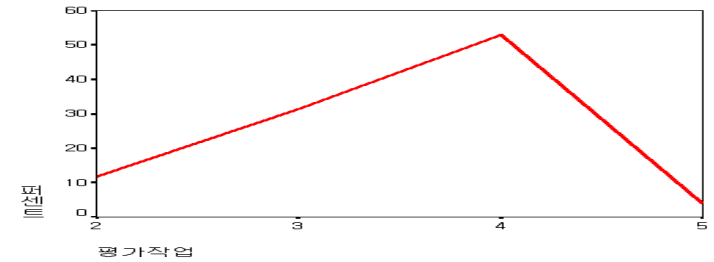
○ 물론, 응답자들의 이러한 평가 결과가 반드시 환경 분야 중심에서 보다 넓은 분야로 확대되어야 할 당위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음. 즉, 영역의 확대가 충분치 않다는 것과 그래서 영역이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은 필연적 귀결 관계가 아니라는 것임. 하지만, 지속가능발전의 각종 지표들은 환경 분야를 중요한 한 영역으로 다루지만 그 외 사회·경제적 영역도 그와 같은 비중으로 다루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평가결과는 응답자들이 의도한 바와 상관없이 활동 영역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줌

○ 의제 활동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 작업이 적절히 이루어진 정도에 있어서

는 비교적 긍정적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남(3.49점). 하지만 평가 값에 대한 분포도를 살펴보면, 이 역시 부정적 평가와 보통이라는 평가가 상당 정도의 응답자들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이는 많은 응답자들이 상반된 평가를 한다는 것을 의미. 따라서 의제활동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에 대한 적절한 이행은 계속해서 노력해야 할 과제 중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볼 수 있음

<표 IV-21> 의제 활동에 대한 평가 모니터링 수행이 적절히 이루어진 정도

소속집단	시민단체	행정	기초의계	학교/연구소	실천협의회	개인	전체 평균
평균 값	3.29	3.50	3.47	3.89	3.50	3.00	3.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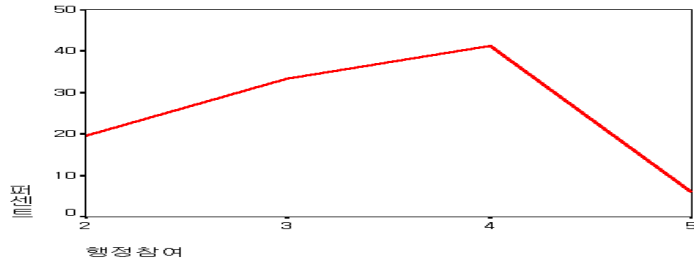


<그림 IV-22> <표 IV-21>의 측정 값 분포도

○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행정의 관심과 책임 있는 참여를 이끌어 낸 정도에 있어서는 평균값이 3.33점으로 다소 긍정적으로 나타나지만, 평가 값의 분포도를 살펴보면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보통 이하) 응답자의 비율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자의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럼에도 평균값이 보통 이상의 점수로 나타난 것은 부정적 평가를 한 응답자들 중에는 매우 부정적이라고 평가(1점)한 응답자가 없는 반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중의 일부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5점)한 응답자들이 일부 있기 때문. 이는 평균 값의 정도와 상관없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결과라 볼 수 없음

<표 IV-22> 지속가능발전에 행정 관심과 실천 이끌어 낸 정도

소속집단	시민단체	행정	기초의계	학교/연구소	실천협의회	개인	전체 평균
평균 값	3.00	4.00	3.53	3.33	3.33	3.00	3.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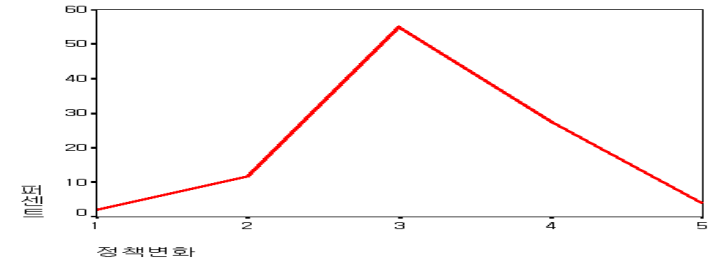


<그림 IV-23> <표 IV-22>의 측정 값 분포도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기도 정책 변화를 이끌어 낸 정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긍정적 평가 정도라 할 수 있는 3.20점이 나왔으나, 역시 평가 값의 분포도를 살펴보면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물론,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비율이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비율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기는 했으나, 전반적으로 긍정적 평가라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여겨짐

<표 IV-2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도정 변화 이끌어 낸 정도

소속집단	시민단체	행정	기초의계	학교/연구소	실천협의회	개인	전체 평균
평균 값	2.93	3.50	3.42	3.22	3.00	3.00	3.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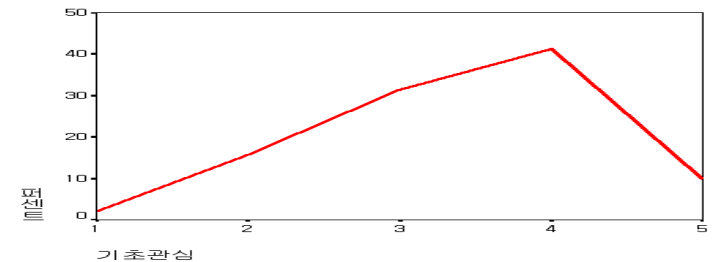


<그림 IV-24> <표 IV-23>의 측정 값 분포도

○ 경기도 내 기초지자체들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이끌어 낸 정도에 대한 평가 부분에서도 긍정적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평가 값 분포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보통 이하의 평가를 하고 있는 응답자의 비율도 일정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는 했으나 응답자에 따라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평가도 상당 정도 있음

<표 IV-24> 기초지자체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관심과 실천 이끌어 낸 정도

소속집단	시민단체	행정	기초의계	학교/연구소	실천협의회	개인	전체 평균
평균 값	3.07	3.00	3.47	4.11	3.33	2.00	3.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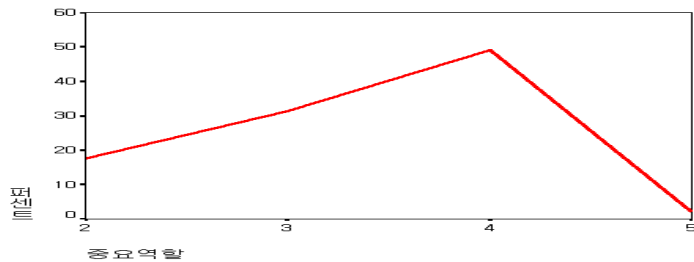
<그림 IV-25> <표 IV-24>의 측정 값 분포도

○ 지속가능발전조례 및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그 운영방향 결정에 중요

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정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는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평가 값 분포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보통 이하의 평가를 하고 있는 응답자의 비율도 상당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특히,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자의 비율도 거의 20%에 달하는 점은 주목할 부분이라 할 수 있음. 소속집단별 평균 값의 현황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긍정적이지 못한 평가를 주로 하고 있는 집단은 시민단체와 기초의제에서 특히 두드러지는데, 이는 경기도 행정의 흐름에 대한 실천협회의 영향력이 충분치 않다는 의사를 표출한 것이라 볼 수 있음

<표 IV-25> 지속가능발전 조례 및 위원회 설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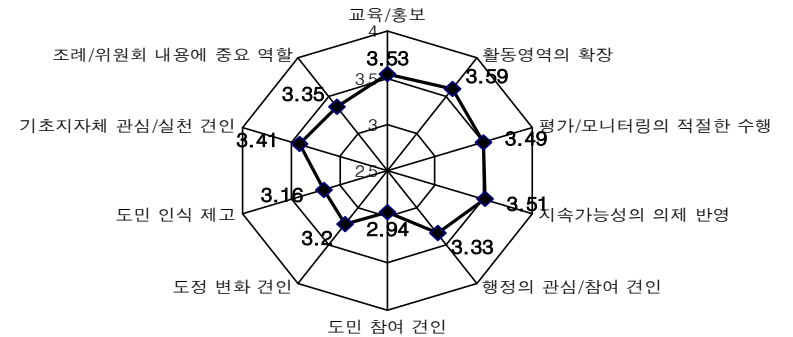
소속집단	시민단체	행정	기초의제	학교/연구소	실천협의회	개인	전체 평균
평균 값	3.07	3.50	3.16	4.00	3.50	4.00	3.35



<그림 IV-26> <표 IV-26>의 측정 값 분포도

○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의 활동 중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고유한 사업 영역이라 할 수 있는 민관협력과 ‘경기의제21’, 기초의제의 지원 및 관계 형성 등의 기준 이외에 기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역할 및 기여도에 대한 평가를 세부 기준들을 비교하여 분석해 보면, 교육·홍보의 평균 평가 점수는 3.53, 환경 영역을 넘어서는 활동 영역 확장 정도 3.59, 평가·모니터링의 적절한 수행 3.49, ‘경기의제21’ 작성 과정에서의 지속가능성 개념 반영 정도 3.51, 경기도

행정의 관심과 참여 유도 정도 3.33, 경기도민의 참여 유도 정도 2.94, 경기도정의 변화 유도 정도 3.2, 도민들의 인식 제고 정도 3.16, 경기도 내 기초지자체의 관심과 참여 유도 정도 3.41,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조례」 제정 및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립과 그 운영방향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도 3.35로 평가됨



<그림 IV-27> 기타 경기도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한 정도 평가 종합 분석도
(평균 값=3.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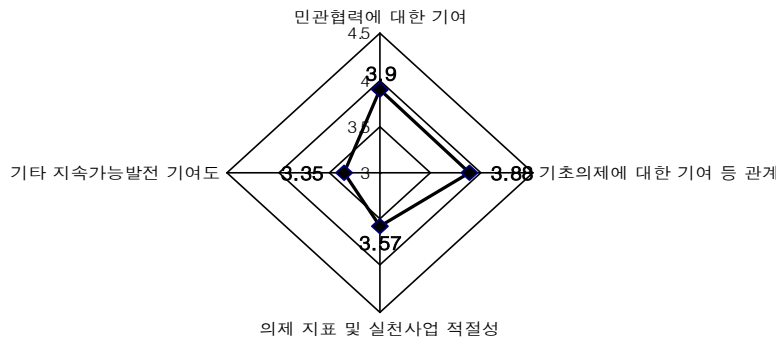
○ 전체적으로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경기도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평균 값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평가 값에 대한 분포도를 살펴보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 않은 응답자의 비율도 상당 정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이는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의 일상적 고유 사업 이외의 면에서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의 활동성과 및 기여도가 그리 크지 않은 것이라는 응답자들의 평가결과라 할 수 있음

○ 하지만,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를 총체적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관점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앞서의 전제를 고려한다면, 이러한 결과가 실천협회의 지난 10년 활동 및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기여도 자체에 대한 긍정적이

지 않은 평가 결과라 볼 수는 없음

○ 앞서 사용한 전체 평가 기준들 - 민관협력에 대한 기여도, 기초의제에 대한 기여도, '경기의제21'의 적절성, 기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기여도- 에 대한 평가 정도를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보면, 민관협력에 대한 기여도와 기초의제에 대한 기여도에 있어서는 긍정적 평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경기의제 21'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는 그보다 조금 낮은 긍정적 평가를 하였으며, 기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기여도는 긍정적 평가가 나오기는 했지만 여타 기준들에 비해서는 가장 낮게 나타남

○ 하지만 전체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수치는 3.68점으로,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에서 주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위원들은 실천협의회의 지난 10년 활동이 경기도의 지속가능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하고 있음



<그림 IV-28>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기여도 평가 종합 분석도
(평균 값=3.68)

○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가 경기도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한 앞의 전체 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 실천협의회 차원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그러나 그러한 노력들이 경기도의 지속가능발전을 실제로 발전시킨 성과, 즉 결과에 있어서는 다른 기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그러나 그것이 부정적 평가를 의미하지는 않고, 여타 기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긍정적 평가의 정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

제 5 장 향후 10년의 전망과 과제

1. 여건 변화와 새로운 모색의 필요성

1) 지속가능발전의 위기와 새로운 도전

○ 21세기를 맞아 세계화, 지방화, 디지털화의 흐름들이 더욱 가속화 되고, 국제적인 현상과 국내적, 지역적인 현상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면서, 당면하게 제기되는 문제들의 성격 또한 매우 복잡다양해지고 있음

○ 특히, 근래에 들어 위협사회적인 현상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동시에 표출되면서 삶의 양식과 조건, 토대 자체의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

- 자연의 위기 : 자연자원 고갈(식량, 에너지 위기), 환경문제의 심화(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생태계 파괴

- 경제의 위기 : 금융시스템의 교란, 중산층의 붕괴, 고용 없는 성장과 노동 양식의 변화, 환경규제 강화와 구산업체제의 위기 등

- 생활의 위기 : 먹을거리 위기(광우병, 멜라민 파동),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공동체 붕괴, 구조적 실업 확대, (가치, 이익)갈등의 심화 등

○ 결국, 현실의 문제들이 만들어 내는 부작용과 불확실성, 그리고 다가올 충격과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보다 전향적인 노력들이 요청되고 있음

- 21세기 인류의 보편적인 발전 가치를 담고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과 실천 영역들이 단계적으로 확장되어 오고 있음. (환경 → 환경 + 경제 → 환경 + 경제 + 사회)

▶ 1972년 UN인간환경회의(UNCHE)에서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세계적인 차원의 대응 필요성을 제기

▶ 1992년 UN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환경보존과 경제성장을 통합한 개념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이념이 등장

▶ 2002년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SSD)에서 경제개발, 사회발전, 환경보호의 통합과 균형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천명함(빈곤퇴치,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 패턴의 변화, 경제 및 사회발전의 기반인 자연자원의 보호와 관리 등)

○ 하지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 사회, 환경 영역의 기계적이고 평면적인 결합이 아니라 이들 상호간의 우선순위와 관계를 재정립하는 노력이 필요함

- 일부에서는 경제, 사회, 환경 등 각 영역을 구성하는 요소들 상호간의 긴장과 갈등으로 '지속가능성 딜레마'(sustainability dilemma)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음.

- 현실을 지배하고 있는 가치 및 제도들에 내재된 지속불가능성 요인들을 찾아내고 제거하기 위해서는 경제와 사회, 환경 영역의 모호한 결합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전략은 한계가 있음.

○ 따라서 경제, 사회,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하는 지속가능발전 전략에 대한 모색이 필요함

- 목표 (사회적 지속가능성) : 세대 내, 세대 간 형평성 확보 / 인간생존 및 삶의 질 보장 / 자발적 문제해결 역량 강화

- 수단 (경제적 지속가능성) : 자원이용의 효율성 확보 / 빈곤 및 실업극복과 경제적 활력 제공 / 생산 및 소비의 성격 전환

- 토대 (환경적 지속가능성) : 생태적 수용능력과 순환 및 균형체계 보호 / 환경오염 및 파괴 최소화와 보존 및 복원노력 확대

○ 한편, 지속가능발전을 실질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사전에방적’이고 ‘통합적’이며 ‘민주적’이고 ‘상호 협력적’인 접근이 매우 중요함. 이 점에서 ‘거버넌스’(governance)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천하기 위한 대안적 기제로서 주목받고 있음

- 거버넌스는 기존의 국가 주도적인 관리 체제의 한계가 분명해짐에 따라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 각 영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와 협력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고 당면한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인 관리(통치) 양식을 말함 (from Government to Governance, Governance without Government)
- 2002년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SSD)에서도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주요 실천 기제로 강조한 바 있음

○ 하지만, 지속가능발전과 거버넌스에 대해 가지는 기대와 현실 속에서의 실현 가능성 간에는 적지 않은 괴리가 존재. 특히 우리 현실 속에서 이러한 괴리 현상을 극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음

- 거버넌스 즉 협치(協治) 체제는 국가 중심의 권위주의적 통치양식이 주도해 온 우리 현실에서 새로운 실험이자 도전이라 할 수 있음
- 지속가능발전은 지난 근대화 과정에서 개발과 성장이 지배적인 가치로 자리 잡아 온 우리 현실에서 가치와 제도의 새로운 전환을 요구하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지난 10여 년 간 각 지역에서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민과 관이 서로 협력하는 거버넌스 체제를 구성하여 활동해 온 지방의제 21 실천 조직들의 경험은 매우 소중한 사회적 자산이라 할 수 있음

○ 특히,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는 경기도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민과 관의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하는 경기도 최대의 거버넌스 조직으로, 전국에서도 모범적인 운영과 활동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하지만 최근 들어 지속가능발전을 위협하는 문제들이 곳곳에서 확대된 형태로 표출되고 있고, 경제·사회 및 제도적 환경들이 급속하게 변화됨에 따라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가 수행해야 할 역할과 과제에 대해 새로운 도전들이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지난 10년을 되돌아보고 당면한 현실의 문제들을 살펴보고, 향후 10년을 내다봄으로써,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의 활동 방향과 역할들을 새롭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2) 지난 10년 활동 경험에 대한 성찰과 전환에 대한 요구

○ 참여와 파트너십의 정신을 바탕으로 환경, 경제, 사회적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경기도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고자 하는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는 지난 10년 동안 참여 주체와 활동 내용, 문제해결 방식 측면에서 새로운 거버넌스 실험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왔음

- 지방화와 민주화의 흐름이 확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랜 중앙 집권적 통치 체제의 관성에서 벗어나 행정과 기업, 시민사회 영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실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참여하여 활동해 온 과정은 민과 관의 참여 당사자들 모두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의미 있는 경험이라 할 수 있음

○ 특히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는 활동 과정에서 민관 협력과 광역과 기초의 제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해 옴

- 시민사회단체들은 주로 정부 정책을 감시, 비판하고 견제하는데 활동의 초점을 맞추고 행정은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해 오던 것이 기존의 일반적인 모습이었다면, 실천협의회를 통한 거버넌스 체제의 등장은 행정과 시민사회단체가 파트너로 참여하여 대안을 탐색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하는 새로운 기회들을 마련해 줌

- 이러한 내용은 실천협의회 10주년을 맞아 각종 의제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운영위원, 정책위원, 양성평등위원, 기초의제협력위원, 협의회 사무처 상근자,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 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 실천협의회는 행정과 시민사회 주체들이 서로를 파트너로 인식하도록 하고 서로 간에 신뢰를 증진시키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나아가 시민사회의 역량강화와 함께 시민사회 단체들 간의 협력 관계 형성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 또한 실천협의회 활동을 통해 기초의제의 활성화와 역량강화는 물론 기초의제 간 협력관계 형성에도 긍정적 기여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 하지만 성과 못지않게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가 극복해야 할 과제들도 적지 않게 나타났음
 - 참여와 파트너십 측면에서 실천협의회 양적 성장이 아직까지 질적 발전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
 - ▶ 아직은 상대적으로 튼튼한 조직력을 갖춘 소수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실천협의회 실천에서 주요한 주체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행정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
 - 실천협의회 활동이 경기도의 지속가능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부분은 아직 미약한 실정
 - ▶ 지난해부터 중장기발전전략에 따라 실천협의회 기능 및 역할 체계를 재편하여 기존의 분과위원회를 폐지하고 13개 의제별로 실천위원회를 신설하여 각 의제별 모니터링과 평가, 정책제안 및 시범사업들을 수행해 오고 있음
 - ▶ 하지만 경기도 행정 전반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전환시키지는 데 있어서의 실천협의회 역할은 제한적으로 작용
 - ▶ 또한 이번 10주년을 맞아 실시한 인식조사에서 나타나듯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경기도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데도 실천협의회 역할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2. 제도적 환경 변화에 따른 역할 재정립

1)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과 새로운 과제들

○ 2007년 7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경기도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한 제도적 환경 역시 크게 달라지고 있음

○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총 5장 2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속가능발전 8대 기본원칙의 제시, 국가 및 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및 추진, 국가 및 지방 이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법령 제개정 시 통보 및 지속가능성 검토, 중장기 행정계획의 지속가능성 검토, 지속가능발전 지표 작성 및 지속가능성 평가,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 및 보고, 국가 및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음

○ 경기도와 같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 및 이행계획을 각각 20년, 5년 주기로 수립하며, 지방지속가능발전 지표의 작성과 함께 이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과 주요 행정계획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2년 마다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에 담아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도지사는 경기도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음

○ 특히 이러한 일들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립을 기본법에서 의무화 하고 있음

○ 기본법 제정에 따라 경기도의 주요 정책과 의사결정 과정 속에 지속가능발전 측면에서 의미 있게 평가되는 경제, 사회, 환경 분야를 균형 있게 통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동안 개별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운영중인 대표적인 거버넌스 기구인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와 <경기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이하 '경기지속위')의 역할 전환이 필요함

- 경기도는 법 제정 이전부터 지속가능발전을 목적으로 조례에 의해 경기지속위와 실천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음.
 - ▶ 경기지속위는 2003년 9월에 제정된 '경기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립을 위한 조례'에 근거하여 주요 계획과 개발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
 - ▶ 푸른경기21 역시 '경기도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지원조례'에 의해 구성된 거버넌스적 실천 기구로서, 의제 수립 및 실천 활동과 함께 경기도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 조사 활동, 교류 및 협력 활동 등 다양한 실천사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음
- 하지만 기존의 경기지속위와 실천협의회는 기능과 역할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한계들을 가지고 있음.
 - ▶ 경기지속위와 실천협의회 모두 경기도의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목표로 한 거버넌스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상호간 연계성이 매우 부족했으며,
 - ▶ 경기지속위의 경우 주요 기능이 경기도의 지속가능성 평가에 있었으나 실제 평가 사례가 없을 만큼 제대로 운영되지 못해 왔음
 - ▶ 실천협의회 역시 의제별 실천 활동이 경기도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것으로 효과적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며, 지표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들 역시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측정하는 수단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창립 10주년이 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실천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새롭게 점검하고 전환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기본법 체제 하에서 경기도의 지속가능발전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천협의회와 경기지속위가 유기적인 역할 분담과 협력 관계를 통해 상호의 역할을 준비하고 그 실천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음

○ 지속가능한 발전의 측면에서 경제-사회-환경 분야의 내용을 통합적으로 결합하고, 시민-기업-행정의 다양한 주체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중장기적 전망 하에서 단기적 실천과제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실천협의회 정책적 영향력과 사회적 영향력을 동시에 확대·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들이 있어야 할 것임

○ 또한 13개 의제로 나뉘어져 있는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실천사업들이 의제별로 개별 사업들에 활동이 분산되지 않고 경기도 전체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종합적인 비전과 전망 속에서 서로 입체적으로 결합되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와 경기지속위 간 관계 재정립

○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와 경기지속위는 구성 및 역할 체계 측면에서 서로 간에 차이가 존재하지만, 경기도의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민과 관의 주체들이 파트너십을 이루어 참여하는 거버넌스 조직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

<표 V-1> 지속위와 실천협의회 간 구성 및 역할 비교

구분	경기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구성	30명 이내 (기본법 위임조례에 근거)	약 270 여명 (자치조례에 근거) - 기초의제, 민간, 기업, 공무원,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
역할	심의 및 자문기구 (도의 정책 및 계획의 지속가능성 심의 및 자문, 도정의 지속가능성 평가)	협의 및 실천기구 (민관협력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실천 사업 추진, 도정의 지속가능성 모니터링, 교육 및 홍보활동)

○ 향후 수립될 경기도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이행계획이 단순히 행정체

획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민관의 협력적 실천계획으로서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와 경기지속위 간의 유기적인 역할 분담 체계를 구성함으로써 민관협력적 실천 역량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음

○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와 경기지속위 간의 관계 설정 방안으로는 서로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잘 살리면서 기능적으로 연계하는 상호보완적 분리형이 바람직

- 실천협의회와 경기지속위 간의 관계 설정에는 크게 ‘통합형’과 ‘상호보완적 분리형’ 두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으나, 광역지자체로서 경기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상호보완적 분리형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음.

○ 상호보완적 분리형에 따른 각각의 역할을 제시해 보면,

- 경기지속위 : 지속가능발전 지표에 의한 지속가능성 평가, 이행계획의 점검, 행정계획의 지속가능성 검토, 정책 및 계획의 지속가능성 평가 및 대안 제시 등

-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 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본전략 및 이행계획의 모니터링, 교육·홍보, 주민참여, 기초의제와의 교류협력 사업 등에 역량 집중

○ 한편 경기도 시군 기초자치단체들의 경우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할 수 있음. 즉, 통합과 관련하여 지방의제21 추진기구 조직 내로 지방지속위 기능을 배치하는 방법과 지방지속위 내로 의제 실천 내용을 결합시키는 방법이 있음. 다만 인적, 재정적 여건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통합 과정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의제의 실천력이 약화되거나 지방지속위 기능이 형식화 될 우려도 있음

<표 V-2> 통합형과 상호보완적 분리형 내용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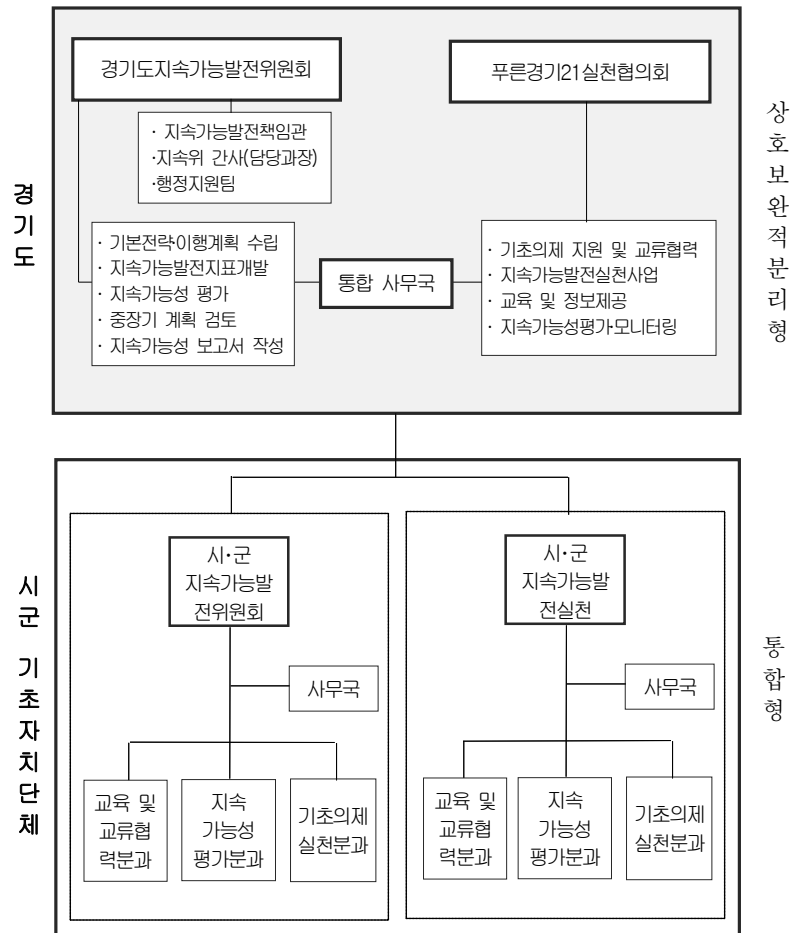
구분	통합형	상호보완적 분리형
방식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지속위의 사무국 기능을 실천협의회가 담당하고, 그동안 담당해 온 주요 기능인 기초의제와의 교류 및 지원, 실천사업, 교육·홍보활동 등의 기능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내 전문 위원회로 흡수하며 일부는 기초의제 등으로 이관하는 방안 ▶ 사무국은 실천협의회 사무처와 파견 공무원(지속가능발전책임관 등)이 공동으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지속위와 실천협의회를 현재와 같이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하되,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해 상호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방안 ▶ 지속가능발전 지표에 의한 지속가능성 평가, 이행계획의 점검, 행정계획의 지속가능성 검토 등 정책 및 계획의 지속가능성 평가 및 대안 제시는 경기지속위에서 담당하고, 실천협의회는 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본전략 및 이행계획의 모니터링, 교육·홍보, 주민참여, 기초의제와의 교류·협력 사업 등에 역량을 집중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위의 전담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을 줄이면서 실천협의회 자체의 위상과 역할을 높일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과 제도 영역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민관협력적 실천사업을 통한 지속가능성 실현의 영역을 구분하고, 경기지속위와 실천협의회 각각이 가진 특성을 살려 역할 분담을 할 수 있음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법에서 요구하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업무를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토대가 부족한 상태에서 업무의 과중으로 실천협의회의 실천력마저 약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장을 비롯한 행정과 시민사회 관련 주체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관심이 필요 ▶ 추가적인 예산과 인력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경기지속위와 실천협의회 모두 활력을 잃을 가능성도 있음
적용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적용 가능한 유형 ▶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기본법에서 지방지속위의 구성 및 운영을 권고사항으로 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지자체로서 경기도 차원에서 적용 가능한 유형 ▶ 경기지속위와 실천협의회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의 기능과 역할을 조정하고 결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한편,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와 경기도 지속위의 관계 설정과 관련하여 통합 사무국을 두어 실무적 기능을 담당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재구성될 경기지속위는 계획과 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단순한 자문역할이 아니라 실무적 기능을 뒷받침해 주는 독립된 사무국 기능이 갖추어야 함

- 하지만 정부조직법 체계상 심의기구 산하에 집행기능을 갖는 사무국을 둘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한 실정

- 결국 실천협의회와 현재 사무국 기능과 역량을 확대하여 경기지속위의 사무국 기능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 에 대한 모색이 필요함
- 관련하여 경기지속위의 업무를 공식적으로 다루기 위해 실천협의회를 법인화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표 V-1> 경기도-기초자치단체 지방의제21과 지속위 간 역할 모형

3) 제도적 환경 변화에 따른 실천 과제들

○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의 중장기 발전 전략에 따라 조직을 개편하면서 크게 실천협의회와 '정책적 영향력 확대'와 '사회적 실천역량 강화'라는 두 가지 차원의 목표를 설정하였음. 이를 위하여 경기도를 둘러싼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 과제들을 발굴하는 노력과 함께, 민간 주체들의 참여 역량 강화와 민관 협력적 실천 과제 발굴, 실천협의회와 기초의제들 간의 유기적 협력체제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한 바 있음

○ 이런 상황에서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과 이에 따른 경기지속위의 설립에 따른 여건의 변화 속에서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가 역량을 모아 추진해야 할 실천 과제와 방향에 대해서도 새로운 검토가 필요함

(1) 기본법 제정과 경기지속위의 설립에 따른 적극적 역할 모색

○ 지난 10년간 경기도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행정, 시민, 기업의 협력적 실천 체계로서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가 축적해 온 경험과 역량을 경기도의 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과 평가, 경기지속위의 재구성 및 운영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시킬 필요가 있음

○ 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 과정에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 있음

- 경기도의 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 과정에 의제 수립 경험을 풍부하게 갖추고 있는 실천협의회 차원에서 직접 참여하여 경기도민의 눈높이에 맞춰 내용을 수립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필요
- 관련하여 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 수립의 근거로 활용될 경기도의 지속가능발

전 현황에 대한 진단 과정에도 실천협의회의 참여와 역할이 매우 중요

- 또한 그동안 민관 협의 과정을 통해 재작성 된 13개의 의제 내용을 기본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하는 노력도 중요
-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 및 이행계획의 모니터링과 연계한 지방 의제21을 재작성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기본법 제정에 따라 경기도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할 때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역할을 적극 반영시킬 필요가 있음

- 경기도는 현재 기존의 경기지속위 조례와 실천협의회 조례 등을 통합한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를 제정 중에 있음

○ 기본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지속가능성 평가 활동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평가 결과가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작업이 필요

- 특히 지속가능발전 지표 중 도민이 체감하는 지속가능발전 인식 및 변화에 대한 조사 및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지속가능발전지표 평가를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함
- 그동안 실천협의회 차원에서 진행해 온 의제별 실천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경험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각 주체별 평가 역량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정보 제공 및 교육 활동에도 실천협의회가 충분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
- 참여 주체들의 실천 및 평가 능력 제고를 위한 정보 제공 및 교육 활동

○ 새로운 역할 전환에 따라 현재의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명칭을 지속가능발전 파트너십 체계로서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실천협의회>, 혹은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파트너십> 등으로 변경하는 방안 고려

(2) 다양한 주체들의 자발적 참여 기회 확대와 실천 역량 강화

○ 그동안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실천 사업은 의제별 실천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이끌어 왔음. 하지만 참여 주체 측면에서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유기적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기보다는 기획위원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사업들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위원들 간 참여의 다양성과 균형 확보가 미흡

-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제실천위원회 전체 위원들이 참여하는 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했으며, 그만큼 위원들 상호간의 소통 및 협의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음
- 결국 위원장과 기획위원을 비롯한 일부 위원들의 개인적 헌신과 노력에 기반해서는 사업의 효과성은 물론 위원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음

○ 의제의 실천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사업을 책임지고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주체들을 발굴하고 이들의 자발적 실천 역량을 끌어 올리는 노력이라 할 수 있음

- 기초의제를 비롯한 사업 추진의 새로운 파트너들을 지속적으로 찾아내서 상호 신뢰에 기반한 협력적 실천의 기반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행정의 참여가 활발한 곳과 그렇지 못한 곳의 성과가 사뭇 다르게 나타나는 만큼 의제별로 유관 행정부서 담당자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 인재개발원에 지속가능발전 교육 과정을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실천협의회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워크숍 프로그램에 공무원의 참여를 독려할 필요 있음

○ 한편, 실천협의회 특성상 실천 과정에 시간을 내어서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들의 역할이 소홀해 질 수 있는 만큼, on-line 소통 체계를 적극 활용할 필요도 있음

- 개별 위원들이 가지는 여건과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역할 유형들을 만들어 내고 체계적으로 연계시킬 필요가 있음

- 기획위원회의 경우 실무 중심으로 구성하되 사업 기획 및 추진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긴밀히 결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찾아나갈 필요가 있음

○ 의제 실천위원회 별로 실천 역량에서 나타나는 차이들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모색과 함께 기업과 연계된 실천사업들도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차원에서 앞으로 계속 발굴해 나가야 함

○ 참여 주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와 정보 및 교육 센터를 설치할 필요 있음

○ 도민들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 재고를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이를 위해 교재 개발과 전문 강사 풀을 마련할 필요 있음

(3) 광역의제로서 특장을 살린 기초의제와의 협력 사업 개발

○ 기초의제의 실천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활동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경기도의 지속가능발전은 결국 기초 시·군 단위에서의 지속가능발전 노력이 밀반침 될 때 실현 가능하다는 점에서 경기지속위와 실천협의회 상호간 역할 분담을 통해 기초의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노력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

○ 그동안 단계적으로 의제실천사업 과정에서 기초의제와의 연계를 통한 활동

들이 확대된 점은 의미 있게 평가할 수 있음. 행정 및 기업 영역의 참여가 부족했던 부분을 기초의제와 지역 단체들의 실천력이 보완해 준 측면이 큼

- 지역별로 기초의제와 사업 참여 주체들 간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 과정을 어떻게 기획하고 추진하느냐가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음

- 기초지자체 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 수립을 위한 주체로서 기초의제21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기초지자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진단 및 컨설팅 지원 등이 필요

○ 기초의제에 대한 사업비 지원 못지않게 기초의제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 사업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같은 의제 사업이라도 지역별로 추진 여건과 내용 및 성과들이 서로 다른 것이 현실인 만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적 여건이 미약한 곳에는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여건이 성숙한 곳에는 '모델개발 프로그램'을 실천협의회 차원에서 개발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의제별로 몇 개의 기초의제들이 함께 지역별 실천사업에 함께 참여하고 있으나 개별 기초의제별로 자기 사업들을 하는 경우들이 다수여서 앞으로는 관련된 기초의제들이 함께 결합하는 공동의 협력 사업들을 기획사업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음

○ 공모사업 중심으로 진행될 경우 역량이 부족한 기초의제를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소홀해 질 수 있는 만큼 워크숍, 교육·훈련 프로그램, 공동 조사사업, 평가모임 등을 지역 순회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도 필요함

(4) 모니터링을 통한 의제 실천사업의 내실화

○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는 의제를 재작성 하면서 ‘내용적인 측면’에서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비전을 분명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경, 경제, 사회적 측면을 통합적으로 고려하고자 하였으며, ‘실천적인 측면’에서 경기도의 지속가능발전 현황을 도민들이 직접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의제별로 지표를 개발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였음

○ 그 결과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의제실천사업 중에서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일부 실천사업에서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방법론적 정교함이 부족하여 노력에 비해 조사 결과의 활용 가능성이 낮은 경우들이 발견되고 있음

○ 따라서 조사 및 모니터링 사업의 기획 단계에서 전문가들의 참여를 높여, 사업의 체계화와 정교화를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

○ 또한 ‘시민실천을 위한’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 사업의 경우 시민들의 입장에서 선호도 및 욕구를 조사하고 시민들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정책제안을 위한’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 사업의 경우 지속가능한 발전의 측면에서 정책 대안을 제시하되 행정에 반영시킬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방안들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후자와 관련해서는 각 의제별로 제안된 정책 내용을 실천협의회 차원에서 수립하여 행정과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행정의 인식 및 반응에 대한 모니터링 작업도 함께 진행해야 할 것임

(5) 체계적인 평가 및 환류 체계를 통한 사업 추진 방향 점검

○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는 주민과 기업체, 민간단체, 행정 당국이 주체가 되어 상호 협의와 협력을 통해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설립 목적을 두고 있으며, ‘거버넌스적 방식을 통한 실천’과 이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달성’을 핵심 가치로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 다양한 참여 주체들로부터 협력의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거버넌스적 실천 체계를 통해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고자 하는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의 가치 지향을 중심으로 실천협의회 활동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와 환류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의제를 재작성할 당시 지향했던 가치와 방향 또한 의제 사업들을 추진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환기 시킬 필요가 있음

- 그동안 의제별 실천 활동들을 통해 중장기적 비전하에 목표 달성을 위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모습들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음

- 하지만 사업의 연속성과 사업 내용의 질적 발전 측면에서 앞으로 더욱 보완해야 할 부분들도 여전히 있음

-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전년도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사업의 수준을 보다 한 단계 높여 질적 발전을 이끌어내기 보다는 단순히 사업 대상과 영역을 확장하는 차원에 머무르는 경우들이 발견되고 있음

- 따라서 전년도의 사업 성과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해당 사업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역량과 기반을 조성하는데 대한 보다 많은 관심이 있어야 할 것임

○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설립 목적과 의제 재작성 및 조직 개편을 통해 추구했던 방향들을 고려한 평가체계 구축이 필요

- 실천협의회 사업 평가에 있어 양적 성과 평가를 넘어 질적 성과 평가를 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함

- 사업 평가 후 제안시 ‘의제의 자체 역량으로 향후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할 분야’, ‘행정의 지원과 협력이 필요한 분야’, ‘시민들의 참여 확대가 필요한

분야' 등 추진 주체별로 사업 영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성과 평가에 대한 결과에 있어 최소한의 인센티브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평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사업의 후속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의제별 사업 평가와 실천협의회 총괄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들을 협의 과정을 통해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의제사업 추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함과 동시에 평가 및 환류 과정을 체계화 할 필요가 있음

(6) 네트워크 체계의 강화를 통한 실천 영역 확장

- 경기도의 장기비전계획으로서 지방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성격을 고려할 때 지역의 다양한 파트너십과 상호 교류 확대 및 분산된 자원과 역량을 연결하고 결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실천협의회 외연이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경제, 사회 부문 다양한 주체의 실천 역량을 네트워크화 하는 데에는 미흡
-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를 경기도 지속가능발전을 실천하기 위한 포괄적인 네트워크 체계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 2002년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SSD)회의에서 제안 되었듯이, 실천협의회도 '지방의제 21'을 '지방행동21' 체제로 전환할 필요 있음
- 새로운 역할 전환에 따라 현재의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명칭을 지속가능발전 파트너십 체계로서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실천협의회>, 혹은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파트너십> 등으로 변경하는 방안 고려할 필요

(7) 지속적인 실천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사무처 실무인력 보강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에 대

한 실천 역량을 강화하고 경기지속위의 실무적 기능을 담당하도록 함

- 행정의 참여와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공동대표를 현재의 정무부지사에서 행정부지사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
-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역할과 활동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도내 관련 부서 내에 의제 활동을 전담하는 공무원(예, 지속가능발전담당관)을 배치
- 중장기적으로는 도내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거버넌스 체계를 책임지고 지원할 수 있는 전담부서 설치. 우선 환경부서 내에 실천협의회에 대한 소관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해당 업무를 환경부에서 기획관리부서(예, 지속가능발전국)로 이관
- 거버넌스의 특성을 고려한 예산 지원체계 마련
- 지방분권화에 따라 주민투표, 주민소송 등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민관협력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은 부족함.
- 현재 지방의제21 추진기구 예산은 보조금 형태로 '민간이전' 항목으로 예산 편성체계상 민간단체로 분류되고 있어 한계가 있음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도 거버넌스 기구로서 지방의제21이 가지는 특성들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만큼,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민관협력 기구의 특성을 살린 예산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지속가능발전 교육정보 센터 설치 및 운영
- 기본법에서 강조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정보망 구축 및 운영(제20조)을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정보센터 또는 지속가능발전 교육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센터는 다양한 주체들 사이의 파트너십 강화, 정보와 경험공유를 위한 네트워크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함

- 여기서 지표 개발 및 평가와 관련한 기본 자료 및 정보를 체계적으로 취합하고 분류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참여 주체들의 실천 및 평가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을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함

3.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른 역할 강화

1) 기후변화 시대에 대비한 실천 프로그램 강화

- 기후변화 현상의 전면화로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가 위협받고 있음
 - 2007년 IPCC는 4차보고서를 통해 21세기에 이산화탄소 평균 농도가 490~1,250 ppm, 지구 평균기온은 1.1~6.4℃, 해수면은 0.18~0.59m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
- 기후변화는 우리나라에서도 급격히 진행 중에 있어 상당한 피해가 예상
 - 기상청은 한반도 대기 중 이산화탄소 평균농도가 2000년 372ppm에서 2005년 389ppm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밝힘
 - 기후변화는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2006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현재와 같은 추세가 계속 되면 2100년 경 한반도는 기후변화로 인해 약 58조원(최소 2조, 최대 328조)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
 - 교토의정서 체제 이후(2013년~)의 온실가스 감축체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으로서 2013년부터 시작되는 교토의정서 이후 체제에 의무가입국으로 편입할 가능성이 높아, 이로 인한 사회 경제적 충격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경기도는 지역적 특성상 기후변화에 따른 충격과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규제

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곳 중 하나로서, 지속가능발전 측면에서 기후변화 시대에 대비한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을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음

- 경기도는 인구수나 면적 뿐 아니라, 지역 내 경제성장률과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수 같은 경제 분야와 건설 분야 등에서 전국 1위의 규모를 차지하고 있음
- 특히, 지역 내 각종 개발 수요와 경제활동 공급 측면에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인구규모를 놓고 보면, 2007년 말 기준으로 인구가 1천110만 명으로 전국대비 2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기도의 인구규모는 세계에서 75위 정도에 해당하는 수준임. 인구성장률 또한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실천협의회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후학교'를 보다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광역을 포함하여 기초자치단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자발적 협약을 맺은 뒤 이것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천하는 데 있어 실천협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음

2) 식량 위기 시대에 대비한 자립기반 구축

-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으로 인한 곡물생산 위축과 수요증대로 인한 수급 불균형, 미국 및 유럽 국가들의 바이오에너지 확산에 따른 품목 전환, 세계 곡물시장에 대한 투기자본의 결합(석유→원자재→곡물로 투기자본 이동) 등으로 세계 식량체제가 위기를 겪고 있음
- 세계적으로 식량부족 상황이 확대되자 식량 생산국들을 중심으로 쿼터제, 관세 등으로 식량수출을 통제하는 식량 무기화 움직임이 노골화 되고 있음
- 우리나라 경우 식량 자급률이 25% 수준인 상황에서, 농업과 농촌이 급속히 붕괴되고 있어 식량 위기에 따른 충격이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그동안 주식(主食)

인 쌀을 100% 자급하고 있어 식량 위기의 충격이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2014이후부터 무관세로 쌀이 들어오면 상황은 크게 달라질 전망

○ 따라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식량자립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차원의 실천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 개발 압력으로부터 생산 농지 보호를 위한 여론 조성 및 제도 개선 운동
- 생산자와 소비자들이 연계한 로컬푸드(local food) 운동을 통해 지역 차원의 식량자립 체제 구축 노력 필요
 - ▶ 생활협동운동과 농민장터 상설화설 등을 비롯한 직거래 운동 활성화
- 도시 소비자들의 생활양식 전환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전개
 - ▶ 식생활교육 활성화와 학교급식운동 전개

3)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 및 소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 미국산 소고기 수입 문제와 연관된 광우병 파동과 중국산 식품의 멜라민 파동, 옥수수를 비롯한 GM 작물의 수입에 따른 문제 등 먹을거리에 대한 공포가 최근 들어 급속히 확산되면서, 안전한 먹을거리의 생산 및 소비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폭증

- 먹을거리 문제는 시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된 문제이자 지속가능한 삶의 기본 과제

○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차원에서 안전한 먹을거리와 관련한 지속가능한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음

- 식문화 개선을 위한 식생활 교육 확대 (빈 그릇 운동,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 교육 등)
- 먹을거리에 대한 시민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운영

- 도시농업 활성화, 마을만들기와 연계한 텃밭가꾸기
- 지역, 마을, 단체별로 도시 소비자와 농촌 생산자간 자매결연 및 상호방문 프로그램 운영

4) 에너지 위기 시대에 대비한 자립기반 구축

○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는 현대 산업문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석유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데서 발생하는 '피크오일(Peak Oil)'상황은 심각한 경제적, 사회적 위기를 가져올 수 있음

- 1998년도 배럴당 10달러였던 유가가 10년 사이에 10배 이상 올랐으며, 유가가 200달러 선을 넘는 초 고유가 시대의 도래를 예견하고 있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는 2040년이면 석유가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 예측

○ 하지만 우리나라는 에너지에 대한 수입의존율이 97%로, 자립율이 매우 낮은 상태. 하지만 에너지 소비량은 세계 10위, 에너지소비증가율은 세계 1위, 석유소비비는 세계 6위, 석유수입은 세계 4위. 그만큼 고유가와 석유정점의 위기를 맞아 지속가능한 발전 자체가 근본적으로 위기를 맞을 전망이다

○ 따라서 에너지 위기 시대를 맞아 에너지 자립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시민 실천 프로그램을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차원에서 기획·진행할 필요가 있음

- 지역(마을) 차원의 에너지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한 노력을 마을만들기 운동과 연계하여 전개할 필요가 있음(예: 로컬에너지 운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태양광 및 바이오 에너지 개발과 일자리 창출 운동과의 연계(예: Green Job)
- 석유중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생활양식 개선과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한 생활실천프로그램 전개

5) 주요 실천 영역으로서의 지역복지

○ 고령화 사회의 등장 등으로 지역복지 프로그램과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실천활동과의 연계 중요성이 높아짐

- 우리나라는 급속한 출산율 저하와 함께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빠른 속도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음(늘어가는 대한민국)
- 지난 2000년 노인인구비율이 7%를 넘어서면서 본격적인 노령화 사회로 진입한 이후 2026년에는 노인인구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가 될 전망
- 노령화 사회의 등장으로 '돌봄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으나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진출 등으로 돌봄 노동(caring job)을 제공할 수 있는 영역들은 위축되고 있음
- 따라서 지역복지 서비스(communitary welfare service) 차원에서 '돌봄 노동'(caring labor)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을 개발하여 실천협의회 실천 활동으로 연결할 필요 있음

○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관심을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실천 영역과 적극적으로 결합시켜 내리는 노력이 필요

- 작년 태안반도의 기름유출 사태 때 12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자원봉사자로 나서 활동한데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에서 연령 및 계층을 불문하고 자원봉사활동 참가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2005년 기준으로 성인의 자원봉사 참여율이 20%를 넘어서면서 유럽 수준에 접근
- 관련하여, 전국 시·군·구 전체에 자원봉사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시·군·구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자원봉사 관련 업무들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발맞춰 정부에서는 2006년에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을 제정하고, 2007년에는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있음

- 하지만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이루어지는 자원봉사활동들이 지역사회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비전들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으며, 행정 및 시민사회와의 연계체제도 긴밀하지 못한 상태에 있음. 실천협의회 역시 도내 자원봉사활동 조직들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만들지 못해옴
- 따라서 향후 실천협의회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전망 속에서 도내 각 지역별로 편재되어 있는 자원봉사관련 단체 및 개인들과의 협력관계를 만드는 데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 있음
- 이는 실천협의회가 그동안 도내 지역주민들과의 접촉면적을 폭넓게 가지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한 해결방안일 뿐만 아니라, 실천협의회 활동 내용을 환경 중심에서 사회적 영역으로 확장시켜내는 데도 의미가 있음

6) 경제구조의 변동에 따른 충격 흡수할 경제적 대안 영역 개발

- 금융위기와 서민 경제의 붕괴로 지속가능한 삶이 위협받고 있음
- 우리나라는 세계 230개국과 무역교류를 하면서 경제의 75%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해외 의존형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발 금융위기가 세계경제 시스템에 미치는 충격과 영향이 국내 실물경제로 그대로 전달되고 있음
- 고용불안(비정규직과 88만원세대)과 사회 경제적 양극화(20대 80사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경제가 세계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붕괴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음
- 고용불안과 구조적 실업으로 사회 경제적 양극화 문제가 확대·심화되고 있음
- 지난 10여 년간 세계경제는 연평균 4% 이상 성장했지만 실업자는 계속 늘어나 매년 사상 최대 규모를 경신하는 등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음
- 우리나라 역시 평생직장이 평생직업으로, 완전고용은 불완전고용으로, 정규직

은 임시 및 일용직으로 전환되는 등 전일제 안전고용체제가 급속히 무너지고 있음

○ 따라서 지속가능한 삶과 생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경제적 대안들을 실험할 필요가 있음

- 재래시장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살리기
-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지역화폐, 대안금융(마이크로 크레딧), 생활협동조합운동, 품앗이 등을 통한 경제적 안전망 구축

○ 경제적 대안 모색을 위한 활동을 통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참여가 저조했던 기업(중소상공인, 자영업 포함)들을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실천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

7) 활동에 있어서 지구적 책임성 강화

○ 지방의제21의 등장 배경에 지구적인 차원의 환경·생태문제가 중요하게 작용한 만큼,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활동도 향후 국내 차원을 넘어 지구적인 차원의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책임 있게 참여할 필요가 있음

- 경기도 현안과 관련해 활동해 오던 실천협의회 활동 역량 일부를 지구적인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시킬 필요 있음
- 기후변화, 열대우림 파괴, 사막화 문제, 그리고 식량 및 에너지 위기와 지구적인 차원의 문제가 경기도 지역의 생활 속 문제와 어떻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실천 가능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시민들의 참여 기회를 제공해 줄 필요 있음
- ▶ 푸드마일(food mile),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 등 기후변화 관련 생활 속 실천프로그램 개발

▶ 노동의 세계화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 문제, 다문화 가정 문제를 의제의 실천 활동 영역으로 적극 반영

▶ 제3세계 가난한 지역 생산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공정무역(fair trade) 운동 등